

郷土史料

第五輯

우리고장의 民俗



社團 鳥致院文化院
法人

郷土史料

第五輯

우리고장의 民俗



社團 鳥致院文化院
法人

鄉土史料

第五輯

目 次

發 刊 辭	3
第一篇 民俗놀이	
一、序 論	4
二、民俗에 關한 考察	5
(1) 民俗의 定意	5
(2) 民俗의 創出條件	6
(3) 民俗의 變化	8
三、燕岐의 民俗놀이	12
(1) 地神밟기	12
(2) 줄다리기	29
(3) 지더미(地硬맞이)	45
(4) 햇불싸움	54
(5) 農旗싸움	60
棋 (6) 장승제	67
(7) 其他民俗놀이	74
1. 그네뛰기	75
2. 씨름	76
3. 널뛰기	78
4. 율놀이	79

第二篇 옛 노래	83
一、머릿글	85
二、燕岐의 옛 노래	89
(1) 農 謠	89
(2) 婦女謠	115
(3) 儀式謠	133
(4) 其 他	184
三、맺 는 말	196

發 刊 辭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의식주가 만족할 때는 “흥” 을 찾고 이를 돈구기 위하여 장단을 쳤습니다.

우리 고장에도 옛부터 비옥한 농지를 비롯하여 물 좋고 산세좋은 지역을 배경으로 조상님들이 뿌리를 내리며 살아 오면서 갖가지 생활 문화를 창출해 내고 후세에 이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기록으로 전해 주는 것 이외에 구전으로 이어지는 문화가 깊이 있고 비중을 차지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문화원에서는 민속학자 해주성씨의 도움으로 우리 가락 “농요” 를 찾아 모았습니다.

이는 자연 부락 단위로 군내 각 지역을 순회하며 연세가 높은 어른들께서 기억하고 계신것들을 나름대로 엮은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계속 연구해 나가며 조상님들의 정신문화의 얼을 새롭게 기록으로 남기고저 합니다.

본 사료집 발간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문예진흥원과 연기군에 감사 드립니다.

1988 년 12 월

鳥致院文化院長 李 基 鳳

一. 序 論

開國初의 祭天儀式에서 하늘에 우리러 感謝하던 天神感謝祭의 形態가 部落의 形成이 늘어가고 人口의 增加함에 따라 차츰 國家的 單位의 集團共同體의인 儀式이 部落單位의 共同意識을 지니며 創出된 地方의 民俗은 그 時代의 歷史의인 背景과 地域의 特徵과 技藝人의 力倆에 따라서 그 地域 나름의 特徵의인 民俗遊戯로 定着하게 되었으며 이 놀이 文化는 긴 時間동안 이 民族의 精神의인 支柱로써 강한 의지력을 만들어 주며 이 民族의 限과 興을 내포한 채 時代의인 要求에 따라서 自然的인 淘汰와 創出을 反復하며 끊임 없이 先代의 脈을 維持시켜 왔다.

이러한 우리에의 놀이文化는 그 時代의인 要求를 自然스럽게 내포시키며 때로는 限의 풀이로써 때로는 興의 한마당 祝祭로써 그 時代에 따라서 부응하며 傳하여 졌음은 그 만큼 이 民俗文化 속에서 大衆이 함께 호흡하며 살아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地域에 따른 特徵이나 技藝人의 力倆에 따라서 變化되는 놀이文化는 그 內容 (內的인面)에 있어서는 豐農에 대한 祈願, 마을의 安寧, 家內的 安過泰平을 要求하고 있으며 그 外的으로는 集團共同體의인 大同團結을 도모하기도 한다.

二. 民俗에 關한 考察

(1) 民俗의 定意

民俗이란 흔히 民間社會(庶民社會)에서 傳해지는 風習의 모든 것을 이야기 한다. 이 民俗의 範圍는 매우 廣大하여 音樂, 美術, 文學 外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庶民社會의 限과 興을 포함시키는 한가닥 枝流인 놀이文化에 대해서 적고자 한다. 대개 이 놀이文化에 대한 定意를 내린다면

첫째 ; 場所나 表現에 拘애를 받지않고 自由롭다.

둘째 ; 의상이나 소도구가 生活 속에서 함께 나타나는 것을 利用한다.

셋째 ; 地域的인 特性和 個人의 技藝力에 따라서 特徵있게 나타난다.

넷째 ; 時代的인 背景과 周圍環境에 많은 影響을 받는다.

다섯째 ; 대개는 綜合的인 樂歌舞戲의 形態로 表現된다.

上記한 같은 特徵을 지니는 이 놀이文化는 現在에 와서 農樂, 民俗놀이 假面劇, 舞踊으로 分類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우리의 놀이文化 自體가 綜合的인 形態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分類의 限界를 짓기는 매우 애매하며 단지 그 표현(再現時) 方法에 따라서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놀이文化는 上記와 같은 分類보다는 그 內面的 世界가 表出하고자 하는 뜻을 지니는 것으로써 祈願性民俗, 祭儀性

民俗 風刺性民俗, 作業性民俗, 娛樂性民俗으로 區分할 수 있는데 즉 祈願性民俗이라 함은 豊農, 豊漁에 대한 祈願, 마을의 安寧과 家内の 安過泰平 등을 바라는 地神밧기, 줄다리기, 農旗싸움, 장치기, 踏橋놀이 등의 部落이나 몇 개의 洞리가 한데 모여서 遊戲化되거나 勝負를 決定짓는 民俗이 이에 屬하며 祭儀性民俗이라 함은 대개 洞祭의 形態로 나타나는 山神祭, 堂祭, 長丞祭, 塔祭, 豊魚祭 등이 이에 屬하며 이 祭儀性民俗은 그 執祭者가 巫覡이거나 아니면 까다로운 禁忌 條件을 갖추는 祭祀長으로 나타나고 있다. 風刺性民俗이란 全國에 걸쳐서 나타나는 各種 假面劇이 이에 屬하는데 이 假面劇은 兩班社會의 처첩제도의 풍자와 몰락과 계승에 대한 비유와 庶民社會의 서러움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 作業性民俗이란 대개의 庶民社會에서 生計維持와 연관되는 꼭 必要한 形態로써 作業時에 能率의 增倍를 위해서 나타나는 各種 農事나 집터를 다질 때 나타나는 地硬맞이 성터다지기 등이 이에 속한다. 娛樂性民俗이란 단순 娛樂의 性格을 띠우고 있는 것으로써 단순한 農樂이나 花柳놀이 등이 이에 屬한다.

이러한 分類는 그 外形의 形態가 지니는 것 보다는 놀이文化의 內面이 表出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比較的 그 分類方法의 線이 分明하게 그어질 수 있다.

(2) 民俗의 創出條件

民俗의 놀이文化가 創出되기 위해서는 그 內面의 世界가 지니는 目的意識을 지니게 되는데 先史時代의 祭天儀式에서 비롯되어 時間이 지나면서 周圍環境의 影響을 받으며 形態의

自然的인 變化를 하며 傳承되는 民俗놀이는 集團共同體의인 內容을 지니며 그 原初的인 內面의 世界가 지니는 目的은 形態(外形的인)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維持되어 왔다. 이 內面의 思想은 바로 놀이文化의 原始形態인 祭天儀式에서 비롯하여 現在의 民俗놀이가 지니고 있는 內的인 表現과 같은 脈을 잇고 있는 것으로써 그 創出의 條件이 되는데 그 內面의 思想은 다음과 같다.

(1) 人間의 힘으로서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天地의 自然造化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最高의 神인 天神에게 感謝하므로써 神과 人間과의 結束을 求하며 이렇게 맺어진 關係로 인해 恒常 人間보다 優位에 있는 神이 保護해 줄 것을 믿고 싶어하는 敬神思想(現在에는 天神만이 아니고 매우 多樣한 神에게 의지한다.)

(2) 神과 人間과의 結束의 關係를 人間과 人間과의 關係로 이어지게 하여 部落民 全體의 大同團結을 추구하는 大同思想

(3) 大同思想에서 創出되어 긴 時間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서 自然發生하여 하나라는 共同體的인 意識에서 비롯하는 單一思想. < 註1 >

등 上記의 세가지 思想이 含有하는 創出條件을 지니게 되는데 이 內面思想과 함께 外形的인 條件으로 時代的 歷史的인 背景, 地域의 特性(地域民의 性格, 言語, 風習等)과 周圍環境의 影響, 그리고 技藝人의 力倆에 따라서 하나의

< 註1 > 河周成; 地方놀이文化의 實態(全國文化院 16號. P36)

놀이文化가 創出되게 된다. 이 놀이文化는 內面的 思想만 지니고 있어도 價値가 없으며 內的인 思想表現이 없이 外的인 形態의 變化만 나타나도 그 價値는 없어진다. 즉 民俗의 價値를 지니는 創出條件이란 內面的 思想(敬神思想, 大同思想, 單一思想)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 外的인 影響인 時代的, 歷史的인 背景과 周圍環境, 技藝人의 力倆에 따른 모든 것이 한데 합해서 나타날 때 價値있는 民俗의 創出條件이 되는 것이며 이 가운데 한가지라도 배제되고보면 그만큼 價値는 없다고 볼 수있다. 즉 民俗의 創出을 順次的인 方法으로 說明하면 祭天儀式의 思想→그 時代의 歷史的 背景→地域의 特性和 周圍環境의 影響→技藝人의 力倆에 따른 創出→自然的인 形態의 變化 등으로 區分 짓는다.

이 단계적인 創出의 條件은 어느 民俗이나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條件으로서 우리 民俗文化가 갖는 特徵이다.

(3) 民俗의 變化

우리나라에 散在해 있는 많은 民俗 中에서 樂歌舞戲의 總體的인 形態로 나타나는 놀이文化의 始源은 先史時代의 祭天儀式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男女가 모여서 하늘에 感謝하매 뛰고 논 것으로 보아지는데 (馬韓常以 五月下種訖 祭鬼神 群聚歌舞飲酒 晝夜無休其舞數十人 俱起相隨 ??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以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 註2 >)

이렇게 五月下種과 十月의 秋收가 끝나고 나서 晝夜로 쉬지않고 飲酒歌舞하며 서로 팔과 다리를 맞추어 일어서고 앉으며 땅을

< 註 2 > 三國志 魏志 東夷傳 馬韓條

밟는 形態는 現代의 놀이에서 나타나는 地神밟기나 거북놀이 등과 同一하다. 즉 五月下種의 形態는 地神밟기로 十月秋收가 끝난 後에 하는 놀이의 形態는 거북놀이로 나뉘어져서 遊藝化 된 것으로 推定하는데 이때의 祭天儀式的 形態도 樂歌舞戲의 綜合的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樂(歌舞飲酒. 舞; 여기서의 鐸은 그 當時에서 나타나는 原始的인 樂器의 名稱으로 보이며 鐸舞라 함은 그 樂器(打樂器로 본다.)를 들고 추는 춤으로 생각한다. 즉 鐸이라는 樂器를 두드리며 춤을 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歌(歌舞飲酒; 舞를 출때뿐 아니라 술을 마시고 흥에 겨워서 내는 소리로서 생각건대 現在에 나타나는 農謠와 같은 形態로 볼 수 있다.) 舞(歌舞飲酒. 舞; 이러한 춤은 數十人이 한데 어울려 鐸을 치면서 그 소리에 맞추어 팔과 다리를 움직이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며 땅을 밟는 모습으로 現在의 놀이文化에서 나타나는 춤의 原始形態인 즉 허튼춤의 形態로 볼 수 있다.)와 戲(여기서의 戲란 前記의 樂歌舞가 綜合的으로 表現되는 遊藝의 形態로 劇的인 面도 나타낸다.)의 綜合的인 形態이며 現代의 演戲되는 地神밟기나 거북놀이를 보면 樂(農樂; 놀이를 主導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四物이 먼저 놀이패를 인도한다.) 歌(이 놀이에서 나타나는 告祀念佛이나 德談등은 全体가 旋律이 있는 歌에 解當한다.) 舞(놀이를 進行하는 過程中 名者가 춤을 추며 즐기며 마당놀이때는 四物이 興에 겨운 춤이나 거북춤 등이 나타난다.) 戲(이러한 全体가 모이며 하나의 遊藝化 된다.)의 形態로 나타나며 地神밟기나 거북놀이를 보면 全体가 ??地低昂의 形態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이 그 外形的으로 나타나는 形態와 內面의 世界가 表現하고자 하는 思想도

同一한데 이 祭天儀式에서 나타나는 執祭者를 보면 巫覡이 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開國의 國祖인 壇君은 壇의 主人 즉 祭可長임을 알 수 있으며 新羅 第二代 南海王을 別稱 次次雄이라 했으며 이 次次雄은 巫의 뜻이란 說이 支配的이다. < 註3 > 또한 이 時代에(過去의 三韓時代를 前後해서) 나타나던 名種 都堂굿이나 別神굿 農作에 關한 것으로 이러한 것은 그때의 風習으로 보고 있다. < 註4 > 더욱 三國志에 보면 「나라의 고을마다 각각 한 사람을 뽑아 天神祭를 主祭하는데 이름을 天君이라 한다.(國邑各立一人 名之天君 又諸國名有別邑 各之爲蘇塗立木懸鈴鼓事鬼神...)」 < 註5 > 라고 하여 이 선사시대에서 行해지던 「굿」과 現在에 나타나는 各種 都堂굿이나 別神굿은 脈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民俗놀이인 地神밧기나 거북놀이에서 나타나는 名稱도 문굿. 대청굿. 조왕굿. 터주굿등 各種 굿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아도 現代의 民俗놀이는 祭天儀式에서 緣由함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先史時代의 祭天儀式인 굿이 차츰 部絡의 形成이 必要로 함에 따라 그 人的資源이 不足하게 되자 專門인 소리꾼이 登場하게 되었으며 時代 變化에 따라서 굿의 形態가 地域의 人 特牲과 周圍環境 技藝人의 力倆에 따라서 遊戲化 한 것이 바로 現代에 演戲되고 있는 民俗놀이의 形態로 나타나는데 이 內面의 世界가 지니는 思想(敬神思想. 大同思想. 單一思想)이나 그

< 註3 > 張師勛: 韓國音樂史 < 世光樂譜出版社 1986年 >

< 註4 > 李惠求: 三國時代의 音樂(文藝振興院(韓國文化藝術總覽)>

< 註5 > 三國志. 普書. 通典等의 馬韓條

外的인 形態가 보여주는 樂歌舞戲의 모습과 그 나타나는 名稱에서 同一한 것은 前記했듯이 놀이의 原始 形態는 祭天儀式에서 緣由함이다.

이러한 思想을 지니며 時間이 지남에 따라 技藝人의 力倆에 따라서 그 演戲의 方法이나 形態가 變化되고 歷史的인 (時代的인) 背景에 따라서 辭說이나 모습도 바뀌었으며 차츰 地域의인 性格을 띠우면서 나타난 것이 오늘날의 民俗놀이로써 그 價値는 內面的 世界가 나타내고자 하는 思想과 祭儀性(福을 願하고 厄을 쫓는 것과 洞里的 安寧이나 家內的 安過太平, 豊農等)을 함께 지니고 있어야 한다. 즉 傳統性(內面思想, 招福逐厄의 祈願等)과 歷史性(옛부터 傳해지는 巫俗의 形態)이 共存 할때라야 놀이文化는 그 價値를 지니게 되며 傳統性이 없거나 歷史性이 없으면 民俗놀이로서의 價値는 없다. 民俗이란 過去의 形態가 그 時代의 周圍環境에 따라서 自然的인 變化를 하는 것이지 없던 形態가 생겨나거나(새롭게 創出되거나) 急格한 形態의 變化는 놀이의 自然的인 變化가 아니며 그 內面的 思想이나 外形的인 表現에서 形態의 差異가 많아도 傳統 民俗이 될 수 없으며 단순한 創作劇에 不過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놀이文化의 變化는 그 原始的인 形態가 先史時代의 祭天儀式에서 緣由하며 時代的인 要求에 따라서 自然스럽게 變化하여야 한다. 또한 現在에 나타나는 傳統놀이를 보더라도 그 內面世界가 지니는 思想이나 外的인 形態가 表出하고자 하는 모습이 同一함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民俗놀이란(더욱 傳統놀이란) 時代에 따라서 自然的인 變化가 되더라도 그 巫俗性이나 祭儀性은 變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三. 燕岐의 民俗놀이

忠北과 接해 있으면서도 特異한 地域의 文化를 나타내고 있는 燕岐地方은 地理的인 條件으로 볼때는 鐵道の 代脈인 京釜線이 지나고 있으면서도 거의 예전의 形態가 變化하지 않고 있는 故場으로써 全國에서 가장 적은 一個邑. 六個面으로 構成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地域은 많은 俗謠와 놀이의 形態가 保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 理由는 現代 都市化가 아직 活發하게 推進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故場은 全國적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地神밧기. 줄다리기. 農旗싸움등의 民俗과 널뛰기. 그네뛰기. 씨름 등 歲時的인 놀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俗謠 部分에서의 매우 特異한 藝術的 價値가 높은 노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故場이다. 地域이 많이 축소되면서 많은 民俗의 形態가 市郡으로 넘어가긴 했으나 이 地域의 民俗分野에서는 적은 故場에 비해서는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다.

(1) 地神밧기

◎概 要

年初에 行해지는 이 地神밧기는 地神을 위함으로써 安寧과 招福을 祈願하고 豊農에 대한 것을 神에게 感謝하는 것으로써 대개 坪神이 오는 陰曆 正月 2~3日 頃에 始作하여 正月 보름을 맞이하여 끝나게 되는 洞里的 놀이

인데 이 地神밟기는 現在에 이르러서는 꼭 年初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洞里에 共同出資가 必要할 경우에도 洞里의 農樂隊에 의해서 집집마다 다니며 乞粒의 形態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地神밟기의 由來는 先史時代의 祭天儀式에서 由來하는 것으로 보는데 하늘에 感謝하고 地神을 위함으로써 豊農을 要求하는 것으로 큰 洞里의 大洞굿의 形態로 나타나는데 魏志 東夷傳 馬韓條에 보면 “五月 下種과 十月 秋收가 끝난 後에 鬼神에게 祭祀드리며 모든 사람이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을 밤낮없이 즐기고 팔과 다리를 움직여 踏地低昂하고…” 하는 記錄이 있어 이 地神밟기에서 나타나는 踏地低昂의 形態는 이미 馬韓時代의 祭天儀式에서 緣由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馬韓뿐이 아닌 辰韓이나 弁韓, 濊와 扶餘가 다같이 이러한 祭天儀式을 했음을 記錄하고 있다. (辰韓; 辰韓俗喜歌舞 飲酒有瑟. 弁韓; 與辰韓雜居 亦有城廓 衣服去處 與辰韓同 言語法格相似 祀祭鬼神. 濊常用十月節祭天晝夜 飲酒歌舞 名之爲舞天又祭以爲神… 夫餘; 以段五月 國中大會 連日飲食歌舞 名曰迎鼓……行道晝夜 無老幼皆者 通日聲不絕. 高句麗; 東夷舊語 以爲扶餘別種 言語諸事多與扶餘同…… 其民喜歌舞 暮夜男女羣聚 相就歌戲……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曰東盟 < 註6 >) 이러한 祭天儀式의 形態가 時代의 따라서 地域나름의 特徵적인 遊戲로 定着한 것으로 보이는 이 地神밟기는 그 놀이가 지니고 있는 創出의 條件은 招福逐厄으로 洞里의 安寧, 家內的 安過太平, 豊農등에 目的을 두고

< 註6 > 三國志 魏志 東夷傳

있으면서 大同團結의 共同體的인 意識을 必要로 하고 있는 대동놀이이다. 이 地神밧기는 主山을 거쳐서 堂山, 主山 大同우물을 거친 後에 洞里的 집집마다 다니며 문굿, 마당굿 (곳간, 변소, 울안, 우물등) 조왕굿, 터주굿, 대청굿을 하기 때문에 大洞일 경우에는 正月 한달이 다 걸리기도 한다 또한 大小名節에도 이 地神밧기를 演戲하기도 하며 새로 집을 짓거나 移舍를 했을때도 집들이 굿으로 이 地神밧기를 演戲하기도 한다.

◎燕岐의 地神밧기

燕岐郡의 地神밧기는 最近 10여年 前만해도 鳥致院邑 죽림동을 비롯하여 침산동 신흥동 等地와 금남면 대평리 남면 양화 전의면 읍내리 등에서 洞里的 農樂隊에 의해서 年初에 행해졌는데 요즈음에 들어서는 農樂隊의 衰退와 新敎의 影響으로 인해서 거의 斷絶된 狀態이고 간혹 老人들 에 의해서 乞粒의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1. 人員編成

地神밧기의 演戲隊의 編成은 一定한 것이 아니고 洞里的 大小에 따라서 變化하는데 基本的인 人員編成을 하면 다음과 같다.

表 : 地神밧기의 人員編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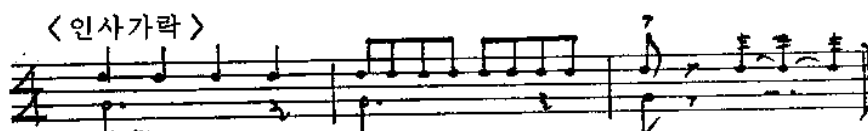
配 役	人 員	服 色
農 旗	1	고깔, 삼색띠, 바지저고리, 짚신

配 役	人 員	服 色
上 釧	1	부포상모. 삼색띠. 바지저고리. 짚신
副 釧	1	"
鉦	2	고깔. 삼색띠. 바지저고리. 짚신
鼓	2	"
杖 鼓	2	"
小 鼓	6	나비상. 삼색띠. 바지저고리. 짚신
양 반 광 대	1	정자관. 도포. 담뱃대. 바지저고리. 목화
머 슴	2	패랭이. 등(보따리)바지저고리. 짚신
여 중	2	치마저고리. 짚신
기타住民들	다 수	남자는 바지저고리. 여자는 치마저고리

2. 演戲方法

主山祭

洞里的 地神밧기 演戲隊 一同은 洞리에 있는 山祭堂에 가서 山神에게 드리는 主山祭를 드리는데 이때는 特別한 德談이 없이 인사가락을 치면서 세번 인사한다.



堂山祭

山祭堂에 가서 인사를 하고 나면 洞里的 入口에 있는 塔이나 長丞 혹은 堂 에 가서 다시 人사가락을 치면서 堂山祭를 드리는데 이 主山祭와 堂山祭는 全体의 演戲隊가 가는 것이 아니고 農旗와 上旗 그리고 뒷꾼이(징, 북, 장고, 팽과리) 中에서 몇명만이 山行하는 것이 보통이다.

大同우물굿

堂山祭가 끝나고 나면 길군악 칠채에 맞추어서 演戲隊員 全体가 各者 허튼춤을 추면서 길놀이를 하다가 洞里의 中央에 있는 共同우물에 當到하면 자른삼채를 쳐서 몰아 그 친 後에 上鉞가 “東方靑帝 龍王님 西方白帝 龍王님 南方赤帝 龍王님 北方黑帝龍王님 中央黃帝 龍王님 이 洞里에 五方地神님 이 물을 먹는 萬人間 壽命長壽 所願하고 七年대한 가뭄에도 물이 철철 솟아나고 九年장마 홍수에도 물이 깨끗해서 모든 사람 모든家庭 이 물을 먹거들랑 招福遂厄發源이요,, 하고 외치면 一同이 “어허라 地神아,,를 덩더궁이 장단에 맞추어서 외치며 우물周圍를 돌다가 上鉞의 신호에 의해 다시 길군악에 맞추어 洞里로 向한다.

<길군악 칠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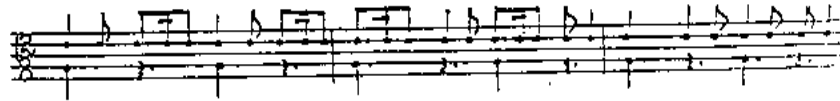


<자른삼채>



<덩더궁이>





문굿

大洞우물굿을 마치고 洞里의 첫째 집의 門앞에 到着한 演戲隊 一同은 上鉞의 신호에 의해서 자른가락을 몰아쳐서 멈춘 후에 上鉞의 門굿풀이 德談인 “여보시오 주인장 어서어서 문여소 이 택 가중전에 수명장수 들어가오 만복이 들어가오,,하고 외친 後에 집 주인의 안내를 받으며 一行은 삼채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집안으로 들어간다.

< 자른가락 >



< 삼채장단 >



마당굿

집의 마당으로 들어간 一行은 上鉞의 인도에 따라 우물 곡간. 마굿간. 변소등을 다니며 “어허라 地神아,,를 외치며 땅을 밟고 다닌다.

寵王굿

마당굿을 끝낸 一行은 上鉞와 廣大 그리고 뒷잡이 몇사람과 함께 부엌으로 들어가서 上鉞가 “누릅세 누릅세조왕 지신 누릅세,,하고 외치면 一行이 따라 외치며 부엌바닥을

꼭꼭 밟으며 踏地低昂하는데 이 부엌은 婦女子들의 生活터전으로서 食生活의 根本이 되는 場所이자 집안의 온방을 위해서 불을 때는 곳이기도 한데 이 불은 不淨을 태우는 뜻도 있으므로 이 竈王곳의 意味는 상당히 크다. 대개 韓國의 習俗에서는 이 부엌에는 火神(불의 신)이 있다고 믿어 갖가지 不淨을 消滅시켜 준다고 하여 밖에서 不淨한 곳(喪家나 殺生의 場面을 보았을 때)에 들렀을 때는 방안에 들어가기 前에 먼저 부엌에 들리는데 이는 不淨을 태워버리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집안 食口 中에서 먼 길을 떠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부엌의 부뚜막에 밥을 떠 놓아 그 사람의 安寧을 비는 習俗이 있다.

垆主곳

조왕곳을 마친 演戲隊 一行은 집 뒤의 장독대 옆에 잘 영글은 볍씨를 담아 짚으로 덮어놓은 터주가리의 周圍를 삼채장단에 맞추어 돌면서 上鉞의 “주릅세 누릅세 터주지신 누릅세,,하는 先唱에 따라서 같이 소리치면서 垆主곳을 한다.

大廳곳

垆主곳을 마친 一行은 대청에 나와서 집 주인이 대청에 준비해 놓은 告祀床(床 위에 쌀을 가득 담은 말을 놓고 그위에 수저를 꽂은 후에 실타래를 걸쳐 놓는다.) 앞에 가서 上鉞가 告祀念佛을 하는데 상쇠가 하지 못할 때는 비나리라고 專門的으로 告祀念佛을 하는 사람을 함께 데리고 다니기도 한다.

이때의 告祀念佛은 地域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京畿道와 忠淸道 地方에서는 巫歌에서 나타나는 告祀德
 談의 辭說을 많이 使用하며 그 順序는 泰平聖代, 달거리
 흥수풀이, 농사풀이로 나타난다.

※ 泰平聖代

고사고사 고사로세
 사마는 世界요
 海東은 朝鮮國이요
 이泰平時節에
 萬福을 點指할 때
 國泰民安 時花年豊
 李氏漢陽 登極時에
 三角山이 主山되고
 南山이 案山되니
 鳳鶴에 주천이 생겼구나
 鶴을 놀러 大闕짓고
 大闕앞에 大曹로다
 六曹앞에 五營門이요
 各道各邑 마련할제
 京畿道는 三十七官 마련하고
 全羅道는 二十六官 마련하고
 慶尙道는 五十七官 마련하고
 忠淸道로 돌아들어 五十六官
 마련後에

往十里는 靑龍되고
 東丘재 萬里재 白虎로다
 忠淸道라 明勝奇地 어디엔가
 鷄龍山이 名山인데
 燕岐땅이 생겼으니
 忠淸南道 燕岐郡 〇〇面 〇〇里
 이宅 家中前에
 乾命大主 〇〇氏
 坤命地主 〇〇氏
 兩住夫妻 몸을빌어
 子子孫孫 點指할 때
 上男子孫 中男子孫
 무릅밑에 下男子孫
 어깨넘어 슬동자
 무럭무럭 자라날 때
 기러기 한백년
 千秋萬歲 살아가고
 泰平聖代 누리시고

※달거리

글란 그리도 하거니와
 이宅 家中前에
 작년같은 험한歲月
 그렇저렇 다보내고
 今年새해 접어들어

달거리가 세다하니
 달거리나 풀고가자
 正月에 드는厄은
 二月영등 떡시루와
 장독간에 정화수로 막아주고
 二月에 드는厄은
 三月에 삼진날 江南제비 돌아올 때
 제비 멧먹이로 막아주고
 三月에 드는厄은
 四月 初八月 釋迦如來
 觀燈놀이 하던 燈으로 막아주고
 四月에 드는厄은
 五月 瑞午 그네뛰던
 그네줄로 막아주고
 五月에 드는厄은
 六月流頭 菖浦물에
 머리감고 세수하던
 물로서 막아주고
 六月에 드는厄은
 七月七夕 牽牛織女
 銀河水를 서로건너
 萬端說話 나눌적에
 烏鵲橋를 받쳐주던
 까막까치 머리로 막아주고
 七月에 드는厄은

八月보름 한가위에
 송편을 곱게빳어
 이웃에 나눠주던
 쟁반곶으로 막아주고
 八月에 드는厄은
 九月九日 重九節에
 菊花酒를 정히담귀
 一杯一杯 附一杯에
 三杯酒로 막아주고
 九月에 드는厄은
 十月상달 戊午日에
 무시루떡으로 막아주고
 十月에 드는厄은
 冬至선달 冬至日에
 팔죽을 가득쭈어
 오는雜鬼 가는雜鬼
 厄막이로 뿌려대던
 팔죽으로 막아내고
 冬至에 드는厄은
 선달그믐 깊은밤에
 곳곳마다 불밝히던
 제석불로 막아주고
 선달에 드는厄은
 내년 正月 열나흘날
 방망이 맞은 북어대가리

百紙 한장에 둘둘말아
막걸리 한잔 칩 끼었어
遠州越江에 消滅하니
萬事는 大吉이요
百事가 如一하니
마음가짐 잡순대로
所願成就 發願이라

※ 홍수풀이

글란 그리도 하거니와
昨年같은 험한歲月
꿈결같이 다보내고
今年 새해에 접어들어
홍수대살을 풀고가자
夫妻間에 空房煞
距里路中 落傷煞
洞里房內 婚姻葬死 不淨煞
一家親戚 不和煞
男女之間 離別煞
山에 올라 山神煞
들에내려 野菜煞
물에들어 龍王煞
大門間에 守門長煞
부엌내에 竈王煞
장독간에 垆主煞

마루대청 城主煞
 안방내에 三神煞
 헛대끝에 帝釋煞
 시렁위에 祖上煞
 앞마당에 天帝煞
 마굿간에 牛馬煞
 도적맞아 失物煞
 殺人난데 除名煞
 이煞저煞 휘몰아다
 今日 告祀床에 도액하니
 萬事는 大吉이요
 自事는 如一이라

※ 農事풀이

글란 그리로 하거니와
 農事 한철을 지어보자
 낮은곳은 논을풀고
 높은곳에 밭을갈아
 벼농사를 지을적에
 앞뜰에는 보뜰이요
 뒷뜰에는 견봉지기
 물논이면 고래실이요
 건답수답 갈아내어
 벼농사를 지어보자
 못먹었다 훌쭉벼

많이먹어 등터지기
 혼자먹어 돼지찰
 허허로다 노풍이며
 은방도에 다마금을
 여기저기 심었구나
 광주분원 양품벼에
 여주이천 자체벼
 김제남경 너른별판
 여기저기 심어놓고
 풍년들어 풍옥이며
 실기롭다 조실역
 일찍먹어 六月벼
 여기저기 심었으니
 이논에는 삼배출에
 저논에는 사배출에
 무럭무럭 자라나고
 밭농사도 지어보자
 봄에심어 봄보리며
 가을걷이 가을보리
 옥모보리 팔각보리
 여기저기 심어놓고
 두태농사 지어보자
 만리원정 강낭콩
 방정맞아 주더니콩
 이팔청춘 푸르대콩

세알이면 삼형제콩
 한알이면 독수공방
 여기저기 심어놓고
 참깨들깨 녹두기장
 모두모두 심었으니
 歲月이 流水같아
 금테를 두른 듯이
 온들에 黃金이니
 깔딱нат을 썩갈아서
 지게에다 걸어꽂고
 나갈때는 빈지게가
 들어올땐 양태바리
 이리걸어 저리베고
 저리걸어 이리벨때
 장다리같은 종놈들은
 양태바리로 저들이고
 암소같은 종년들은
 또아리받쳐 저들이니
 앞노적은 大主露積
 뒷노적은 地主露積
 山과같이 쌓았으니
 근들아니 좋으리까
 난데없는 봉황새가
 훨－휘리 날아들어
 한날개를 툭탁치니

일이천석 불려주고
 또한날개 특탁치니
 일이만석 불어날 때
 堂上父母는 天年壽요
 膝下子孫은 萬歲榮이라
 開門하니 萬福來요
 掃地하니 黃金出이라
 高台廣室 집을짓고
 네귀에다 풍경달아
 동남풍이 건듯불면
 텅그렁텅 올려대니
 泰平時節 이아닌가

(上記의 告祀念佛의 辭說은 연기군 서면 국천리 所在 대광사 주지 박창수(男40歲)의 口誦을 採錄한 것으로써 巫歌에서 나오는 대목을 比較的 간략하게 口誦한 것인데 원래 巫經의 告祀德談의 辭說은 이보다 많은 분량이다. 이 告祀唱을 부르는 사이사이에 는 사잇가락을 친다.)

<사잇가락>



마당놀이

대청에서의 告祀念佛이 끝나고 나면 집 주인이 내어주는 약간의 돈과 쌀을 받고나서 술을 한잔씩 마신 後에 地神 밭기를 했다는 데서 오는 안도감(地神을 위함으로 해서 豊農에

대한 祈願과 家内の 安過泰平을 빌고 소원성취를 要求하며 招福 逐厄을 했다는)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모여서 마당놀이를 펼치는데 이때는 굿거리, 짹짹장단, 자른삼채에 맞추어 한바탕 흥겨운 춤을 추고난 후에 길군악에 맞추어 다음집으로 向한다.

<굿거리>



<짹짹장단>



<긴짹짹>



<解説> 地神밧기는 조치원읍 죽림동 373 居住 한일동(男, 69歲)의 口述과 農樂의 가락을 中心으로 整理하였다.

(2) 줄다리기

◎ 概 要

韓國人과 짚으로 꼬아 만든 줄과는 密接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民族은 예부터 짚으로 꼬아 만든 줄을 利用해 逐厄은 물론 豐農과 神聖한 場所의 表示와 禁忌의 像徵으로 삼아왔음을 익히 아는 바이다. 이 줄을 各種 祭儀式이 행해지는 祭場에 두르면 雜人의 出入은 물론이려니와 雜鬼의 近接도 防止한 것이며 解産을 한 産母가 있는 家庭이나 祭主로 選出된 祭主의 집 앞에 느리면 外部人의 出入을 一定한 期間동안 禁止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심지어는 장독에 까지 된 새끼를 둘러서 장맛을 내기까지 했다. 이 짚으로 꼬아 만든 줄은 그것이 어느 場所에 어떤 用途로 使用되었던지 禁忌와 神聖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짚으로 꼬아 만든 줄을 서로 兩便으로 갈라서서 당기게되는 勝負性民俗인 줄다리기는 全國적으로 고르게 分布되어 盛行했으며 이 줄다리기는 前記한 防厄과 逐邪에 뜻을 같이 하면서 아주 오래 전 부터 演戲되었다. 이 줄다리기에서 나타나는 巫俗的 思考를 보면 그 外的인 理由는

첫째 : 줄을 당기므로 해서 大同團結의 團結心을 키운다.

둘째 : 團合된 힘을 과시해서 豐農과 作業의 增進에 힘쓴다.

셋째 : 줄 自体가 防厄의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洞里의 厄을 미리 막아 安寧을 追求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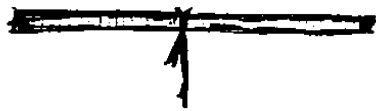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外的인 面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理由는 地域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理由를 보면

「男子와 女子로 나뉘어 당길 때 여자쪽이 이기면 三年間 洞

리에 豊年이 들고 部落이 平安하다<城南市>」 「厄送旗를 쫓은 雙龍이 江물이 풀려서 떠내려 가면 厄이 같이 없어진다<??州郡>」 「勝者は 共同으로 줄을 利用해 보를 막기 때문에 豊年이 든다 <城南市>」 「줄을 당김으로 해서 힘을 배양한다<錦山郡>」 「줄을 당기지 않으면 마을에 젊은이들이 사고가 나고 洞리가 불안하다<龍仁郡>」 등으로 地域마다 각각 特徵이 있게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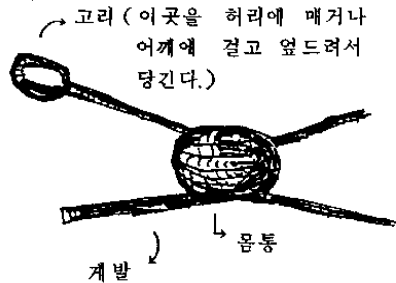
이 줄은 대개 외줄과 쌍줄 그리고 계줄로 나타나는데 계줄은 밀양.감내 等地의 一部 地域에서 나타나고 외줄은 넓은 平地가 形成되지 않은 山地나 도서지역에서 使用하고 있으며 대개의 全体的인 곳에서는 암줄과 숫줄을 結合하여 당기는 쌍줄을 당기게 된다. 이 줄의 형태는 각기 特徵있게 나타나는데 그 줄의 形態는 다음과 같다.

<외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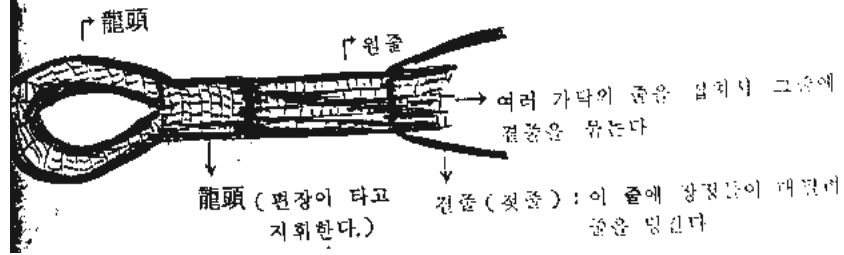
※대개의 길이는 20~30미터에 달하며 中間에 끈을 묶거나 기를 꽂아서 표시하며 요즘에는 동아줄로 대신하기도 하며 산지나 도서지방에서 사용하며 줄의 굵기는 5~10센티미터쯤 된다.

<계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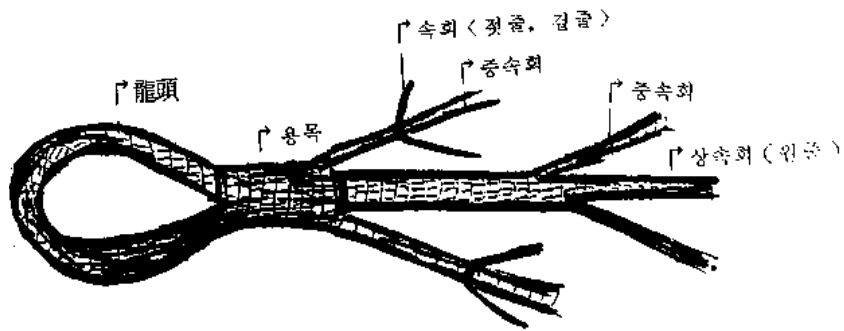
※몸통에서 계발을 뽑아 1:1, 2:2 4:4식으로 서로 같은 인원이 줄을 허리나 어깨에 메고 당기는데 계발에서 고리가 하나가 생기는 형태의 줄과 계속이어가면서 여러개의 고리가 생기는 형태로 나뉜다.

<쌍줄 1>



※ 한쪽의 길이는 30~50미터에 이르며 거개의 지역에서 당겨진 큰줄로써 용목의 굵기는 2尺정도이며 길게꼬은여러가닥의 줄을 반으로 접어 용두를 틀고 합쳐진 부분에 (용목) 편장이 타고 지휘한다. 장정들은 원줄에 묶은 곁줄에 매달려 당기게 되어있다.

<쌍줄 2>



※ 대개 한쪽의 길이는 80~100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줄로써 용목의 굵기는 1~1.5미터 정도나 된다. 이 줄은 상속회에서 중속회를 한가닥 뽑게 되므로 뒤로 갈수록 상속회는 가늘어진다. 이 줄은 충북 증원군 목계, 경기도 이천군 등지에서 당겨졌다. 곁줄은 굵기가 5센티미터쯤 되게하며 헝을 합해서 묶는다.

이러한 줄다리기는 우리나라 뿐이 아니고 세계의 여러나라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 燕岐의 줄다리기

“忠淸道 風俗에 炬戰이라는 횃불싸움이 있다. 또 편을 갈라 줄을 서로 잡아다닌다. 그래서 끌려가지 않는 편이 이기는 것으로 豊年을 차지한다.< 註7 > 고 文獻에 記錄하고 있어서 忠淸道에서는 예부터 豊年을 차지하는 巫俗的인 發祥으로 이 줄다리기를 演戲했음을 알 수 있다. 대개 過去에는 이 줄다리기를 正月 보름날에 횃불싸움과 같이 하거나 踏橋놀이 끝난 後에 하기때문에 낮뿐이 아니라 밤에 많이 하기도 했는데 燕岐郡의 여러 部落에서도 이 줄다리기가 매우 盛行했으나 最近에 이르러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줄다리기는 흔히 < 索戰 >이라고 하며 “索,,은 새끼로 꼬아 만든 풀(모양)을 뜻한다. 즉 새끼풀은 서로 당기는 단체경기로써 이 줄을 서로 당겨서 힘겨름으로 암줄과 숫줄로 만들어 그것을 結合시켜 당기는데 암.수의 結合이란 生産의 意味가 있어 自然스럽게 豊農과의 關係를 接할 수 있으며 더욱 이 줄다리기는 婦女子들이 이겨야 豊年이 든다고 하는 巫俗的인 思考는 全國에서 共通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女子는 곧 生産의 能力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燕岐郡의 여러 곳에서 30여년 前만 해도 活潑하게 演戲되었던 이 줄다리기는 現在에는 過去와 같은 巫俗性을 띠우는 곳 < 註7 > 東國歲時記

은 없고 줄도 짙으로 꼬아 만든 새끼줄이 아니고 동아줄로 대신하고 있으며 단순한 勝敗를 가름하기 위한 方法으로 당기고있어 예전의 興에 겨운 한마당의 축제가 되는 줄다리기의 再現이 時急한 實情이다. 鳥致院邑 죽림동에서는 郡內에서 가장 큰 줄다리가 당겨졌으며 30여년 前만해도 洞里의 모든 사람이 참가하여 男子들(기혼자)은 숫줄을 婦女子와 미혼자가 암줄에 매달려 줄을 당겼으며 이때의 줄은 용목의 굵기가 2m에 달하고 길이는 한쪽줄이 40~50미터에 달하는 줄로써 30여년 前에도 이 洞里에는 200세대 가까이 되는 集團村 으로서 이 줄다리와 함께 횃불놀이가 벌어져 매우 큰 장관을 이루었던 部落이다. 더욱이 部落에서는 아직도 洞里內에 風物이 있어 나름대로 傳統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1. 人員編成

配 役	人 員	服 色
農 旗	1	머리띠, 바지저고리, 삼색띠, 짚신
今 旗	2	"
部落旗	1	"
四 物	10 ~ 20	뺑과리 : 부포상, 뒷잡이는 고깔에 바지저고리 삼색띠 짚신, 소고:나비상
使 長	1	숫줄은 사모관대 암줄은 치마저고리와 화관

줄 끈	다 수	남자는 바지저고리 여자는치마저고리
잡 색	4 ~ 5	양반, 남종, 여종
무 동	4 ~ 6	중세미는 고깔에 가사장삼 남무동은 도령 북 여무동은 치마저고리

(上記의 編成表는 한편의 편성이므로 실제인원은 두배가 된다.)

2. 演戲方法

원칙적으로 모든 民俗놀이는 그 方法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順次的인 方法으로 自然스럽게 나타나던 것이기 때문에 그 演戲方法은 地域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再現時에 必要한 演戲方法을 정하면 다음과 같다.

줄의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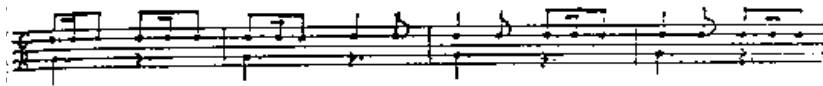
줄이 당겨지는 며칠전부터 洞里에서는 各 家庭마다 짚을 供出해서 주를 꼬는데 이때는 어느 집이나 고르게 招福逐厄이 될 수 있도록 한집도 빠지지 않게 짚을 견게되며 다 만들어진 줄은 잘 보관한다.

길놀이

줄이 당겨지는 날이되면 農樂隊를 앞장세운 演戲隊는 길군악에 맞추어 정해진 場所로 向하는데 보통 洞里農樂의 길군악은 칠채로 나타나는데 줄다리기에서는 외채로 使用한다. 이 길놀이때는 舞童을 세우고 함성을 치며 서로 상대 부락보다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最高의 技倆을 發揮한다.

〈길군악〉



마당놀이

정해진 場所에 到着하면 줄을 내려놓고 서로 農樂隊를 中心으로 하여 마당놀이를 펼치는데 이때는 삼채, 굿거리, 자춘삼채의 長短에 맞추어 舞童을 세우고 흥겨운 판굿을 벌이는데 이때의 판굿은 암줄을 당기는 편과 숫줄을 당기는 편이 따로 따로 놀이판을 펼친다.

〈삼채〉



〈꽃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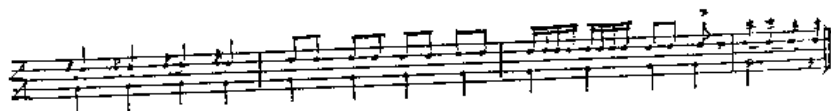
〈자른삼채〉



龍놀이

마당놀이가 끝나고 나면 男子는 숫줄을 잡고 여자는 암줄을 잡고 줄위에는 便長을 태우고 일어서며 便長의 신호에 의해서 줄을 서로 맞대기도 하고 합성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기도 하여 分圍氣를 高潮시키고 편장들의 신호에 따라 서로 相對方의 기를 누르기 위해 고향을 치기도 하며 風物은 마당돌림 장단을 몰아친다.

〈마당돌림 장단〉



龍의 結合

한창 시끄럽던 演戲隊 一同은 신호에 의해서 암줄과 솥줄을 결합시키는데 이때는 솥줄의 龍頭가 암줄의 龍頭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장목(비녀)을 질러 빠지지 않게 한다.

줄다리기

줄이 결합되고 양편이 줄을 잡고 일어서면 신호에 의해서 서로 힘껏 줄을 당기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婦女子쪽이 이기게 되어있으며 前記했듯 婦女子는 生産의 能力이 있어 女子쪽(암줄)이 이겨야 豊年이 든다고 믿는 巫俗性 때문이다. 洞리에 따라서 세 번을 하는 곳도 있으나 대개는 한번에 그치게 되어있으며 이 줄을 당길때는 줄꾼들의 합성과 농악대의 자춘가락등이 뒤섞여 놀이판의 興은 最高에 달하게 된다.

〈자춘가락〉



뒷풀이

줄다리기에 勝敗가 결정나고 난 後에는 勝敗에 關係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뒷풀이를 펼치는데 韓國의 民俗놀이에서 나타나는 이 뒷풀이는 相互協力과 相扶相助와 大同團結의 母체로써 긴 時間동안 우리네 민족이 어느 外勢의 強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온 強한 精神力의 母체가 되었으며 이때의 뒷풀이는 現在에 나타나는 民俗의 뒷풀이와는 다르게 단순한 興이 아닌 巫俗的 思考에서 오는 厄을 막아서의 안도감과 豊農이 든 것에서 오는 충족감이 함께하는 흥의 절정이었다.

이 줄다리가 끝나고 나면 줄다리에 使用되었던 줄은 地域에 따라 그 處理方法이 틀린데 대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줄을 토막내어 지붕위에 얹거나 대문 앞에 걸어놓아 厄을 막는다.

줄을 利用해 共同으로 淤를 막아서 水利施設에 도움을 준다.

洞里的 入口에 있는 장승이나 거리제를 지내는 나무에 걸어 놓아 洞里에 安寧을 追求한다.

강물위에 떠내려보내(얼음이 녹으면)厄을 막는다.

논에 갖다놓아 썬어서 퇴비가 되게 한다.

당긴 줄을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손질하여 다시 당긴다.

3. 줄의 制作

地域에 따라 줄을 制作하는 方法은 각기 特徵있게 나타나는데 대개의 줄은 자세나 가로대를 利用하여 꼬아 나간다. 이 줄을 엮는 方法은 길게 만든 줄을 꼬아서 만드는 方法과 늘어 놓은

후에 말아서 使用하는 方法이 있는데 燕岐地方의 줄의 制作方法은 다음과 같다.

(1)짚의 준비

줄을 꼬기 위해서 洞里的 집집마다 짚을 곁어서 준비하는데 이때는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집집마다 곁고루 걷는다.

(2)준비된 짚을 굵기 3센치쯤 되게 꼬면서 길이는 80여 미터가 되도록 한다.

(3)이 줄을 다시 세가닥을 합해서 꼬아나가면 그 줄의 굵기는 8~10센치가 된다.

(4)3의 줄은 나무를 利用하여서 힘을 주면서 꼬아 나가는데 이때 3의 줄을 세가닥을 합쳐서 꼬기 때문에 그 굵기는 25~30센치 정도가 되며 나무는 가로대의 힘받이 구실을 한다.

(5)4의 줄을 반으로 접어 龍頭를 트는데 이때 암줄은 머리가 넓게 하고 숫줄은 좁고 위로 치켜 올라가게 만들어 結合하기에 좋게 한다.

(6)용두가 만들어 지고 난 後에는 합해진 부분을 합쳐서 용목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용목은 굵기가 2尺 정도가 되며 2미터 정도가량을 조이며 묶어서 그 위에 편장이 타고서 지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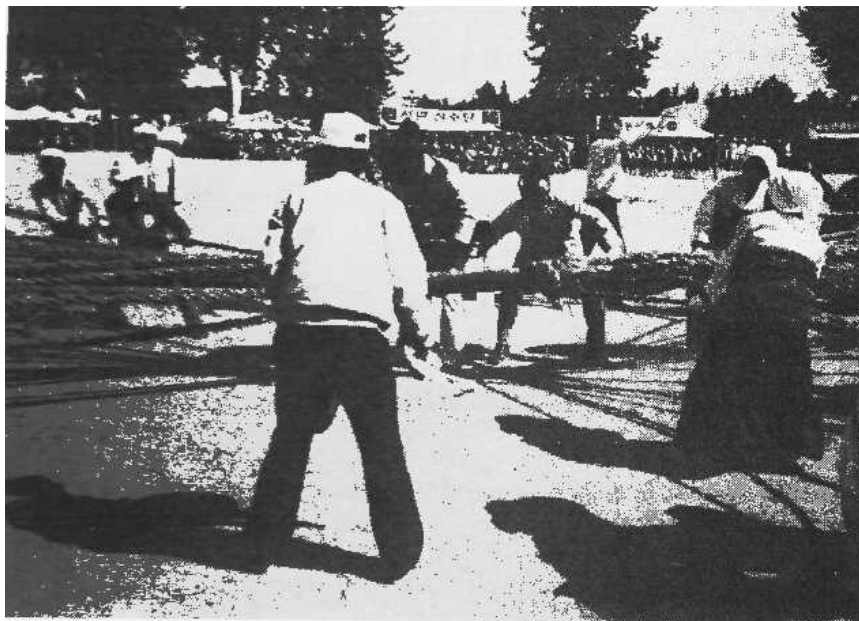
(7)용목을 만든 후에는 2미터의 간격을 두고 굵기3~5센티미터쯤 되는 藎을 합하여 만든 줄로 묶어서 곁줄(젓줄, 속회)을 묶는데 곁줄의 길이는 2미터 정도가 되게 하며 이 곳에 力士들이 매달려 줄을 당기게 된다.

(줄다리기는 방영봉(男, 70歲. 조치원읍 죽림동 147)의 口述을 토대로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記錄하였다.)

◎ 서면 용암골 강다리기

이 줄다리기는 全國적으로 特異한 줄인 강을 다림으로써 一年의 災厄의 消滅과 洞里的 安寧, 家內的 安過泰平, 豊農 等を 祈願하는 祈願的 勝負性民俗으로 이 강(줄)은 이 고장만이 지니고 있는 特徵이다.

이 줄은 중간을 굽기 25~30센티미터 정도의 통나무를 利用하여 그 양편에 굽기 3~5센티미터 길이 7~10미터 정도의 줄을 수십가닥 묶어서 그 줄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당기게 되어 있으며 이 줄을 강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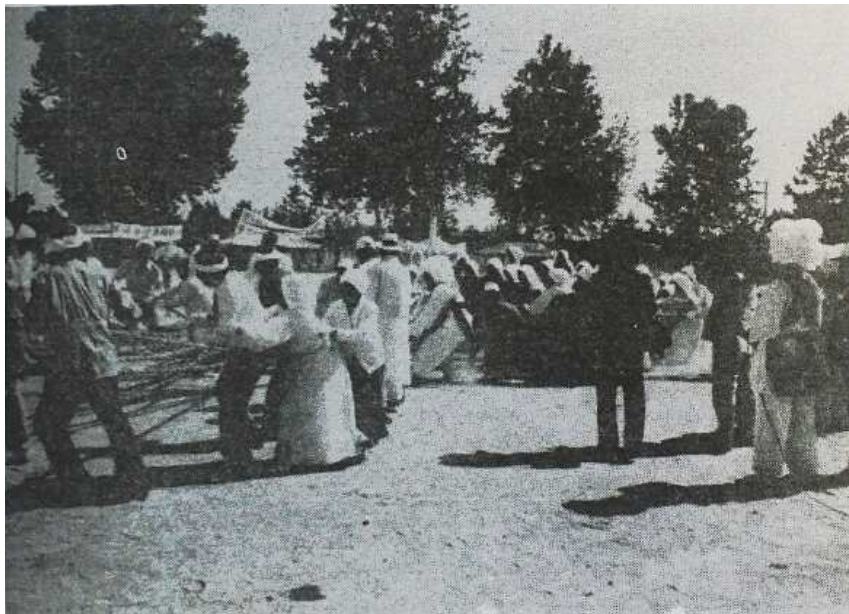


강줄의 중앙 연결 부분

이 줄다리기는 매년 正初가 되면 洞里的 住民들이 모여서 먼

저 간단히 酒果脯를 陳設한 告祀床을 차려놓고 垡主地神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터주지신께 비나이다……” 로 시작하는 垡主告祀를 드리는데 이 垡主告祀는 洞里의 安寧과 豊農을 祈願하는 德談으로 지내고 있다. 垡主告祀가 끝나고 나면 줄의 양편에 男子와 女子가 나뉘어서 매달려 줄을 당기게 되는데 나무에 여러가닥의 줄에 매달린 住民들은 鉦의 신호에 의해 서로 힘을 다해 당기게 된다. 競技는 정해진 金を 넘어서면 이기는 것으로 보통은 단번에 勝敗를 결정 짓지만 三回을 反復해서 두 번을 이기는 편이 이기는 것으로 정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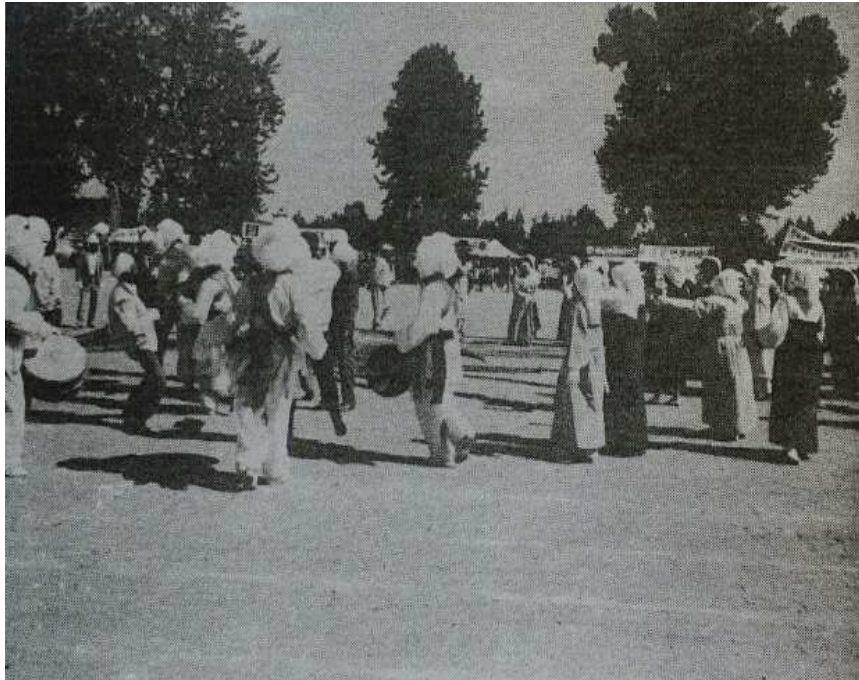
이때는 줄의 位置는 바꾸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당기게 된다.



男子가 나뉘어져 줄에 매달려 강다리를 하고 있다.

勝敗는 대개 정해져 있어서 女子쪽이 이기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 이러한 理由는 女子가 이겨야 洞里에 豊年이 든다고 傳하는 俗說에 기인한 것으로 女子는 生産의 能力을 갖고 있으므로 女子가 이겨야 豊年이 든다는 것이다.

競技가 끝나고 나면 이긴쪽은 洞里의 農樂隊의 가락에 맞추어 흥겹게 춤을 추고 진쪽은 이긴쪽을 祝賀해 주고나서 함께 어우러져 뒷풀이를 펼치고 즐기는데 이러한 뒷풀이는 洞里 住民들의 大同團結과 相扶相助의 美德을 갖게하는 重要한 要因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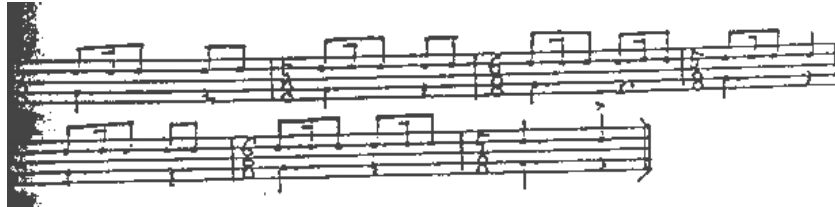


강다리에서 이긴 婦女子들이 춤을 추며 즐거워 하고 있다.

이러한 줄다리기의 형태는 만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줄을 당기고 있어 文化財的 價値가 매우 높은 것으로 保存, 傳授가 時急하다.

이 강다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단이 나타나고 있다.

〈악보;길군악〉



〈악보;자른삼채〉



〈악보;찾은가락〉



< 악보 : 굿거리 >



< 註 > 이 강다리는 1988년 10월 15일 燕岐郡民 体育大會의
도원문화제의 式前行事에서 演戲한 것을 採錄, 收錄한 것이다.

(3) 지더미(地硬맞이)

◎ 概 要

집을 짓기 위한 基礎工事의 한 方法으로 땅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하여 創出된 이 地硬다지기는 作業性民俗으로서 全國에서 共通적으로 나타나던 巫俗性의 發祥에의 民俗이었다. 이 地硬다지기는 단순히 땅만을 다지는 것이 아니고 땅을 다지기 前에 垡主神에게 告祀를 드림으로써 家内の 平安과 그 땅이 좋은 明堂이기 때문에 子孫들이 잘되고 父母가 長壽하고 財物이 많기를 바라기도 하던 巫俗과 作業이 混用되어 나타나는 民俗이었다. 이 地硬다지기는 사람이 生活을 하는 方法의 하나인 家屋을 짓는데 있어서는 꼭 必要한 것으로써 긴 時間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는데 平野나 山地, 魚村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나타나던 生活의 한 習俗이었다.

이 地硬다지기는 地盤이 단단한 山地보다는 海邊이나 江가의 연약지반이 많은 곳에서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연약지반인 곳일수록 오랜 時間을 다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地硬을 닦는 形態나 方法은 全國적으로 同一하게 나타나는데 이 風習 自体가 住居生活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地硬다지기는 30여년 前까지만 해도 全國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었으나 家屋을 짓는 方法이 現代的인 機械化로 變하자 自然淘汰되어 요즈음에 들어서는 完全히 斷絶되어 버린 民俗 中の 하나이다.

이 地硬다지기는 여느 民俗과 마찬가지로 樂歌舞戲의 綜合的인

形態로써 나타나는데 日帝의 文化抹殺政策때도 피해를 입지않은 民俗으로써 집을 짓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지경 다지기는 農樂이 必要하지 않은 民俗의 種類이기 때문에 유기그릇의 供出에 징 팽과리 등을 빼앗겼을 E0도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다. 더욱 앞서서도 記述했듯이 우리나라의 民俗은 現場에서 演戲될때 自然스러운 方法으로 潛在的인 記憶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 地硬다지기는 生活에 꼭 必要한 집을 지을 때 演戲하던 것으로써 一年 中에 時間(季節)에 關係없이 나타나던 演戲이기 때문에 部落의 모든 사람들이 作業場에 나와서 함께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傳授가 됐으며 더욱 地硬소리나 動作이 單調로와서 쉽게 배울 수 있었다는 데도 그 傳授가 용이했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必然의 民俗이기 때문에 자주 接할 수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 地硬다지기는 대개 밤에 햇불을 밝히고 땅을 다지는데 그 理由는 巫俗의 理由로 낮에 땅을 다지게 되면 垆主神에게 드리는 告祀가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이다. 즉 韓國의 巫俗에서 보면 모든 神이나 靈魂은 밤이 되어야 나타나기 때문에 낮에는 아무리 정성을 드렸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런 得이 없어서 鬼神이 活動하는 밤에 告祀를 드려야 한다는데서 나타나는 習俗이며 둘째는 實質的인 理由로써 이 地硬다지기는 따로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고 洞里的 住民들이 相互協力하여 땅을 다지는 것이기 때문에 生活을 維持하기 위한 作業이 끝난 밤시간을 利用하는 것인데 前者보다는 後者の 理由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이 全國의으로 고르게 나타나던 이 地硬다지기는 地域마다 名稱이 틀려서 地硬다지기, 터다지기, 지더미, 지점 등으로 불리우며 나

타하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던 민속이기도 했다.

◎ 燕岐의 지더미

忠南의 中央에 位置하고 있는 燕岐郡은 山이 거의 없이 平地로 되어 있으며 땅이 무른 연약지반이 많아서 어느 故場보다도 이 地硬다지기가 많이 나타난 곳이다.

燕岐地方에서는 흔히 지더미라고 稱하며 演戲되었던 이 作業性 民俗은 最近까지도 나타났던 洞里가 많은데 그 理由는 現代의 機械化가 대개 大都市 中心으로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地域은 뒤 늦게까지 傳統의인 方法에 의해서 땅을 다지는 基礎 工事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 米호천을 周圍에 낀 部落이나 논이 많은 곳에서는 더 盛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곳에는 연약지반이 많은 까닭이며 그러한 理由에서 땅이 단단해지기를 바라고 집이 튼튼해 지길 바라는 뜻에서 地硬을 다진 돌을 주춧돌로 使用하거나 집을 지을 때 함께 使用하거나 땅 속에 묻는 風習이 생기기도 했다.

1. 人員編成

원래 과거의 地硬다지기의 人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洞里의 住民들이 모여서 서로 相互協力하여 作業에 임하는 것으로 洞里의 크기나 집을 짓는 터의 크기에 따라서 人員의 構成이 되어지던 것이었으나 現在에 들어서는 再現을 하기 위한 演戲人員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表:지더미의 人員編成

配 役	人 員	服 色 및 役 割
집 주 인	1	터의 주인으로서 垓主告祀를 주관한다. 복장은 바지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는다.
선 소 리 꾀	1	바지저고리에 복을 메고 선창을 부른다.
지 경 꾀	12-20	지경을 닦는 인원으로서 후렴을 받으며 바지저고리를 입는다.
햇 불 잡 이	다 수	햇불을 들고 있으며 지경을 닦는 周圍를 밝힌다.
女 人 들	2-3	飮食을 나르거나 지경을 닦는 周圍에서 춤을 추며 흥을 돋운다.
洞里住民들	다 수	지경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며 흥을 돋운다.

2. 演戲方法

지더미의 演戲方法은 順次的인 方法에 의해서 自然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며 따로 품삯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主人은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飮食을 장만하게 되며 지경을 다지면서 먹고 마시며 하며 흥을 돋우며 돌아가면서 다

지는 형태이다.

이 地硬다지기는 單純히 집터만 다지는 것이 아니라 터를 건드릴므로 으로서 일어나는 동터를 막기 위한 巫俗性 도 띠우고 있기때문에 그 方法은 再現時에는 演戲方法이 놀이에 치중하느냐 노래에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정하여질 수도 있다. 이 地硬닷기를 놀이化하여 再現하기 위한 方法은 다음과 같다.

垓主告祀

터를 다진 땅의 한 곳에 간단하게 酒果脯를 陳設한 告祀床을 마련한 後에 집 주인이 술을 따르고 집을 지어도 아무런 동터가 없이 安寧하기를 바라는 告祀文을 읽은 후에 燒紙를 불사르고 술을 사방에 뿌린다.

지더미 준비

主人의 告祭가 끝나면 先唱者가 “자 우리 ○○네 집을 지을 터를 다져보세” 하고 외치면 一同은 “네” 하고 대답하고 地硬石을 가운데 놓고 지경돌에 달린 줄을 한가닥씩 잡고 지경꾼이 빙 둘러서면 햇불을 든 사람들은 그 周圍에 서고 洞里 사람들은 여기저기 모여서 선다.

지더미

先唱者가 삼채장단을 치면서 지경노래를 선창하면 지경꾼과 洞里的 住民들은 후창을 받으면서 지경을 다지는데 이때 地硬을 달는 方法이 노래의 전반부에 돌이 올라가고 후반부에 내리닿는 형태로 계속한다.

지경석의 反復운동

매 김 소 리		받 는 소 리	
들 고	닿 는 다	들 고	닿 는 다
에 이 어 라	지 더 미 요	에 이 어 라	지 더 미 요
산 산 마 다	명 산 이 요	에 이 어 라	지 더 미 요
골 골 마 다	명 승 지 인 데	에 이 어 라	지 더 미 요
한 낭 맥 이	뚝 떨 어 져	에 이 어 라	지 더 미 요
이 터 전 이	생 겼 구 나	에 이 어 라	지 더 미 요

이때는 아낙네들은 飮食을 준비하고 地硬을 닦는 사람들은 飮食을 먹으면서 선창을 맞추어 후렴을 받으며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

♩ = 60 <관우장비> <관우장비>

에 이 어라 지더-미요 에 이 어라 지더미 요 요
 관 산 바 나 관우장-비로 관 이 어라 지더미 요 요
 문 봉 바 나 관우장-비로 에 이 어라 지더미 요 요
 관 산 바-이 관우장-비로 에 이 어라 지더미 요 요
 에 이 어-이 관우장-비로 에 이 어라 지더미 요 요
 에 이 어라 지더미 요 에 이 어라 지더미 요 요

아들나면 忠臣이요
 딸낳으면 烈女로다
 에이어라 지더미요
 앞쪽산을 바라보니
 관우장비 뚜렷하다
 文筆峯이 分明하니
 文章才士 날것이라
 그아니도 좋으리까
 뒷쪽산을 바라보니
 석가여래 잠을자니
 露積峯이 分明하니
 萬秬巨富 날것이니

그아니도 좋으리까
 여보시오 사람들아
 이내말을 들어보소
 높은곳은 깎아내고
 낮은곳은 메워놓아
 이집터를 마련할때
 老人峯이 비쳤으니
 堂山白髮 千年壽요
 子孫萬當 할것이라
 百子千孫 富貴榮華
 그아니라 좋으리까
 이터전과 이明當에
 덩그라니 집을지어
 네귀에나 풍경달고
 五方地神 請해다가
 守護神을 삼으며는
 萬事가 大吉이요
 運數는 大通이니
 그아니나 좋으리까

한일동(남. 68歲 조치원읍 죽림동)

뒷풀이

이렇게 땅을 다지다가 쉬면서 ㄷ·ㅇ을 다지며 演戲隊는 地硬닷기
 가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이 선창자의 자근삼채가락에 맞추어

함께 어울려서 한바탕 흥겨운 뒷풀이를 펼친다.



3. 地硬石의 形態

지경들은 대개 全國에서 共通的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은 地理的條件이나 地域의 特性에 關係없이 하나의 作業에 使用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 地硬石은 두가지 種類가 있는데 첫째는 지경석의 상단에 흙을 파고 그 곳에 줄을 여러겹 동여맨 후에 밑을 그물처럼 엮어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둘째는 지경석의 상단에 구멍을 뚫고 그 곳에 단단한 나무를 박아 넣은 뒤에 그 곳에 지경줄을 묶어서 사용하는 方法이 있으며 대개는 前者의 것을 使用한다. 이 地硬石의 크기는 대개 넓적한 돌을 使用하는데 밑면의 지름은 2.5~3.5尺가 되고 높이는 2尺가량되는 것을 使用한다. 이 地硬을 다질때는 사람의 키를 훨씬 넘어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서 모든 사람이 서로 호흡을 맞추어서 一体的인 行動을 취해야 하는데 이런 것에서 우리 祖上들을 하나라는 單一思想과 共同体的인 生活의 근본을 삼기도 했다.

(4) 햇불싸움

◎ 概 要

東國歲時記에 「忠淸道 風俗에 炬踐이라는 햇불싸움이 있다.」고 記錄하고 있듯이 忠淸道의 全域에서 나타나는 이 햇불싸움을 하기 前에 달맞이를 하고 난 後에 이루어지던 民俗이다. 韓國人은 예부터 上元日을 큰 明節로 여겨왔으며 이 上元日은 農事의 준비가 始作되는 날로써 이 날은 매우 큰 意味를 지니는 날이다. 이 날까지 正初의 흥청거리던 新年 맞이의 기분은 달맞이, 줄다리기, 踏橋놀이 등으로 最高의 절정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하기에 이 上元日에는 모든 厄을 防止하고 福을 追求하기 위한 俗과 豐農에 대한 儀式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이 달맞이와 햇불싸움을 따로 區分되는 것이 아니고 연이어지는 行事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民族은 예부터 이 달과는 매우 密接한 關係를 지니며 왔는데 이 달은 많은 傳說 속에서 혹은 童話 속에서 또는 글의 所在로써 利用되었음을 본다 더욱 달은 그리운 임의 얼굴로도 美人의 환한 미소로도 그림속의 한폭 정취있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어 이 달은 우리네의 生活과 매우 親近하게 되었으며 때로는 이 달에게 精誠을 드려 所願成就를 빌기도 했고 때로는 이 달빛 아래서 戀人들의 密語가 무르익기도 하는 등 이 달을 많은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上元日의 달을 보고 그 해에 農作에 대한 점을 미리 치기도 하던 우리네의 組上들은 이 달을 멋스러움게 表現하였기

때문에 이 달과의 關係는 끊을 수 없는 親近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달빛 아래서 上元日에는 地神밧기의 뒷풀이가 또는 줄다리기와 踏橋놀이가 한바탕 벌어졌으며 中秋節에는 거북놀이의 흥겨운 놀이마당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둥근 正月의 보름달 아래서 흥겨운 달맞이를 마친 後에는 部落間에 鬩불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달집이 산 등성이에서 타오르고 논둑과 밭둑에서는 쥐불이 타며 洞里的 넓은 空地에서는 鬩불싸움이 벌어져 이 上元日의 밤은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룬듯한 장관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上元日의 밤을 온통 불로 수놓은 광경을 인구가 늘고 部落이 늘자 自然 密集된 部落 內에서 火災의 위험이있어 차츰 消滅되었던 것이 最近에는 아이들의 불놀이(쥐불놀이)만 볼 수 있을 뿐 예전의 그 광경을 찾아보기 힘들다.

◎ 燕 岐 의 鬩 불 싸 움

忠清道の 여러 地方에서 나타나는 이 鬩불싸움은 燕岐郡의 여러 곳에서도 불과 십수년 前만 해도 上元日의 밤에 部落間에 자주 나타나던 民俗이었으나 요즈음에 들어서 人口의 增加에 따라 家屋이 많이 들어서고 넓은 空地가 없어지자 自然 살아지고 말았으며 더욱 西歐文物의 導入으로 過去 우리네의 巫俗性을 떠우는 모든 民俗이 過去의 習俗이요 迷信이라고 하여 거의 斷絶되고 말았다. 연기군의 조치원읍 남면, 서면, 전동 등지에서는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이 달맞이와 鬩불싸움이 벌어지곤 했는데 요즈음에는 아이들의 쥐불놀이 만아 있는 實情이고 옛 風習

에 의해서 논둑과 밭둑을 태우는 쥐불의 형태가 있으나 이것도 上元日의 밤에 태우는 것이 아니고 아무때나 태우고 있어 예전의 정취있는 놀이마당은 찾아볼 수 없다. 조치원읍 内の 죽림동과 신흥동에서는 얼마전까지도 上元日의 밤에는 洞里의 中間에 있는 空地(논)에서 서로 횃불싸움을 즐겨 가끔 부상자가 생기기도 하며 즐겼으나 現代에도 찾아볼 수 없는 과거의 놀이가 되어 버렸다.

1. 人員編成

이 횃불싸움은 정해진 人員에 의해서 演戲가 되는 것이 아니고 洞里의 住民들이 달맞이를 하고 나서 서로 農樂隊의 風物에 맞추어 이웃 部落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洞里의 大小에 따라서 거의 全体人員(男. 女)이 참가하게 되는 놀이였다.

이러한 놀이를 달맞이와 함께 연결하여 再現할때의 人員의 編成은 다음과 같다.

表 : 횃불싸움의 人員編成

配 役	人 員	服 色
農 樂 隊	6-12	보통 一般的인 洞里의 風物잡이들로 구성하며 복장은 一般的인 農樂의 의상을 착용한다.
村 長	1	달맞이의 祭를 主管한다. 갓. 두루마기.

配 役	人 員	服 色
部 落 旗	1	햇불싸움을 할때 洞里의 表示가 되는 旗 를 잡는 旗手로써 복장은 農樂隊와 同一하다.
洞里住民(男)	다 수	바지저고리에 머리띠를 두르고 달맞이가 끝나면 햇불싸움을 한다.
" (女)	다 수	치마저고리를 입고 달맞이에 이은 햇불싸움이 시작되면 部落을 응원한다.

2. 演戲方法

햇불싸움은 他種類의 民俗과는 달리 演戲方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鬪爭의 民俗으로써 順序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다만 달맞이에 이어서 나타날때는 달맞이 自体가 順次的인 方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再現의 方法을 設定하면 다음과 같다.

달집짓기

正月 보름날의 낮에 洞里의 집집마다 다니며 짚을 한단씩 걸어서 산봉우리에 달집을 짓는다. 달집은 안에 나무를 엮어서 세워놓고 그 위에 짚을 두르는 方法을 택하는데 터주거리의 형태로 만든다. 이때 집집마다 짚을 걷는 理由는 어느 집이나 공평하게 招福逐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告山祭

저녁무렵에 달집의 周圍에 모인 一行은(部落民 의 대다수) 村長의 主導로써 달집 앞에 간단한 酒果脯를 차려놓은 告祀床을 준비하고 洞里的 安寧을 祈願하고 豊農이 들것을 追求하는 告山祭를 지낸다.

달맞이

上元日의 달이 떠오르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滿月이요,, 하고 소리치면 다들 따라하면서 각기 달을 보고 祈願을 빈다. 이때는 달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처녀면 그 해에 시집을 가고 총각이면 장가를 가며, 병이 들은 사람은 병이 완쾌되고 임신부가 보면 得男을 한다고 전하며 이때 떠오르는 달이 동쪽으로 치우치면 두메가 풍년이 들고 서쪽으로 치우치면 어촌이 풍어가 된다고 믿는 巫俗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달의 빛깔을 보고 점을 치기도 했다.

달집태우기

달맞이를 하고 난 後에 전부 들고 있던 햇불을 달집에 붙여 달집을 태우는데 이 달집이 타는 것을 신호로 洞里에서는 논둑과 밭둑에 쥐불을 놓는다. 이 쥐불은 원래 正月 初子日에 놓는 것인데 上元日에 놓는 불도 쥐불이라고 하며 이 쥐불을 놓는 까닭은 건초더미 속에서 자라는 갖가지 병충을 죽이고 들쥐를 잡기위한 方法이기도 했지만 그 탄 재가 自然 퇴비의 역할을 해내기 때문에 一石二鳥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불은 태우는 것이고 태운다는 것은 不淨을 막는다는 뜻이 있어 이

불은 現在까지도 놓고 있음을 보다. 이때 산등성이에 달집이 활활 잘 타오르면 그 해는 豊年이 든다고 믿는 習俗이 있었다.

마당놀이

달집에 불을 놓고나면 모든 사람들이 달집 周圍를 돌면 한것 興에 겨운 놀이마당을 펼치는데 이때는 洞里 農樂隊의 長短에 맞추어 깊어가는 上元日에 興이 絶頂에 달하게 된다.

길놀이

달집 周圍를 돌며 놀던 一同은 달집이 거의 다 타면 農樂隊의 길군악 가락에 맞추어서 길놀이를 하는데 이때는 손에 소나무나 철사를 利用해 횃불을 만들어 들고 그 것에 불에 붙여서 이웃 部落과의 횃불싸움을 別일 場所까지 간다.

횃불싸움

兩 部落의 사람들이 정해진 場所에 到着하면 別다른 신호가 없이 서로 불을 던지며 상대를 쫓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며 횃불싸움을 벌이는데 이처럼 불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불상사가 나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듯이 밤이 이슬하도록 上元日의 놀이는 흥을 더해 가는데 이 날을 끝으로 정초의 놀이는 모두 끝나게 된다.

(이 횃불싸움은 이금용(男, 54歲, 조치원읍 죽림동 143) 과 강천희(男, 62歲, 서면 국천리)의 口述을 토대로 하여 老人會

燕岐郡 會員들의 意見을 綜合하여 作成하였다. 前記 人員 編成表는 한 部落의 編成으로써 實質的인 演戲人員은 倍가 되어야 한다.)

(5) 農旗싸움

◎ 概 要

農村에서 農事를 짓기 위해서 들로 나가거나 들에서 돌아올때 洞里的 農旗가 서로 길에서 마주치면 서로 拜禮를 하게 되고 이 拜禮에서 發端이 되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農旗싸움이다. 이 旗싸움의 由來는 確實치 않으나 두가지의 說이 있는데 첫째는 旗拜歲에서 비롯한다고 보는 說으로써 이 旗歲拜의 由來는 약 300여年 前에 井邑에 사는 催氏 兄弟가 가을에 秋收를 끝내고 露積가리를 쌓아 놓은 後에 하늘과 祖上에게 感謝하는 告祀를 지내고 아우가 兄에게 拜禮를 올린데서 始作되었다고 하는데 < 註8 >이 歲拜하는 儀式에서 旗歲拜가 由來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 旗歲拜는 正初에 各 洞里的 農旗가 모여서 서로 서열을 정하는데 그 서열을 정하는 方法은 農樂隊가 먼저 생긴 順序대로 정하는 方法을 쓰고 있으며 部落 間的 競技인 줄다리기, 장치기, 旗싸움등의 勝敗에 따라서 이 서열을 바꾸기도 한다. 더욱 大同의 旗라 할지라도 小同에 지체 높은 兩班이 살고 있으면 그 旗가 上旗가 되는 수도 있으나 대개

< 註8 > 平澤郡誌 (P 1020. 1984年)

는 農樂隊의 조직된 順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정해진 旗의 序烈이 길에서 兩部落의 旗가 마주치면 서로 上旗임을 내세우고 相對部落의 旗가 먼저 拜禮를 할 것을 要求하다가 급기야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데 이것이 旗싸움이다. 대개의 旗싸움에 대한 說은 여기서 由來한다고 하는데 이 由來說은 確實하지가 않다. 歲拜의 風習은 百濟時代에도 있어서 隨書에 보면 「百濟의 風俗에서 장가드는 것은 中國과 같고 두 손을 땅에 짚고 머리를 숙이는 것으로 敬禮를 삼는다.」고 記錄하고 있어 < 註9 > 三國時代때도 이 歲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說은 農樂이 軍에서 陣法을 익히기 위하여 使用되거나 하나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使用되었던 軍樂일 때 鬪爭力을 鼓吹시키기 위한 方法으로 發端이 되었다고 보는 說이 있는데 前者의 由來說 보다는 後者の 由來說이 妥當한 것으로 보인다.

이 旗싸움이 全國적으로 행해졌으나 場所에 區別없이 서로 마주치기만 하면 벌어지던 겨울의 民俗으로써 서로 마주 치면 상대 部落의 農旗에 매달려 旗의 上端에 있는 幟장목을 먼저 빼앗는 部落이 이기는 것으로 결정 나는데 심한 경우에는 農旗는 물론 農樂器 까지 빼앗아 가는 경우가 있어 이 旗 싸움에 강한 洞里的 農旗가 보이면 아예 피해서 다니기까지 했다고 한다.

우리의 農村에서는 이 農旗의 位置란 절대적인 것으로써 農旗는 곧 그 洞里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 農旗를 쓰러트리거나 훼손하면 洞里에 災厄이 있다고 믿는 巫俗的인 習俗이 있어 이

< 註9 > 南漢誌 < 慶州郡刊. 1982年 >

農旗싸움에 지면 洞리에 不祥事가 갖고 凶年이 든다고 믿었다. 하기에 이 旗싸움은 더 과격해질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全國적으로 演戲되었던 農旗싸움은 1920年代의 日帝의 文化抹殺政策으로 유기그릇이 供出되어 鉞등을 빼앗기자 一時 中斷되었던 것이 光復 後에 다시 再現되기 始作하였으나 西歐文物의 導入으로 農村에서 農樂이 衰退됨에 따라 自然的으로 사라지게 되어 現在에 들어서서는 完全히 斷絶되었다.

◎ 燕 岐 의 農 旗 싸 움

燕岐郡의 全域에서도 50여년 前만 해도 洞리마다 두레조직이 있고 이 두레조직에는 農樂隊가 있어 들일을 하러 가거나 돌아올때 農樂隊를 앞세우고 作業에 임해 이 農旗싸움이 자주 벌어지곤 했다. 조치원읍을 비롯하여 전동, 전의, 금남, 서면 등지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이 旗 싸움은 30여년 前부터 자취를 감추고 말았는데 이러한 점은 忠淸道 地方이 比較的 地理的 中央에 位置하고 있어 多樣한 文化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옛것을 가장 많이 잃은 地域이기도 한데 燕岐地方은 京釜線 鐵路의 通過地域으로서 忠南.北의 文物의 흡수가 都市化에 關係없이 빠르게 들이닥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過去에 盛行했던 旗싸움이 他地보다 일찍 衰退한 것도 農耕의 文化에서 商業쪽으로 바뀌면서 自然 農樂이 衰退되고 따라서 農耕文化가 쉽게 消滅된 것으로 推定하는데 燕岐의 一部 部落에서는 아직도 많은 藝人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때 이 故場의 놀이文化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1. 人員編成

대개의 民俗이 그러하듯 旗싸움의 人員도 洞里마다 일을 하러 나갈때나 돌아올때 自然的인 構成人員이 만나는 것이 때문에 兩 部落의 人員조차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더욱 그 進行方法도 없이 拜禮를 要求하다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再現을 위한 方法이나 人員의 構成을 設定할 수 밖에 없다. 再現時에 必要한 人員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表 : 旗싸움의 人員編成

配 役	人 員	服 色
農 旗	1	머리띠.바지저고리. 삼색띠. 짚신.
令 旗	2	"
上 釧	1	부포상. 바지저고리. 삼색띠. 짚신
副 釧	1	"
鉦.鼓.杖鼓	各 2	고깔. 바지저고리. 삼색띠. 짚신
小 鼓	4-6	나비상. 바지저고리. 삼색띠. 짚신
男 子 들	다 수	머리띠. 바지저고리. 짚신. 소도구(지게)
女 子 들	"	수건.치마저고리 소도구(소쿠리, 함지박)
太 平 簫	1	바지저고리. 두루마기.

(上記의 人員編成은 한 部落의 編成으로 실제 人員은 두배가 된다.)

2. 演戲方法

길놀이

兩 部落의 演戲대는 農旗를 앞세우고 길군악 칠채가락에 맞추어 各者 興겨운 춤을 추면서 旗싸움이 벌어질 演戲場을 向해 길놀이를 한다.

〈길군악 칠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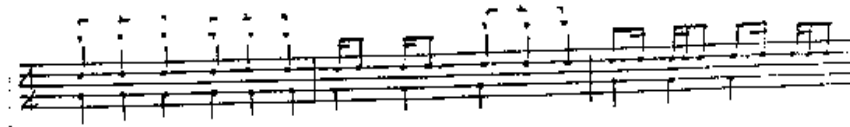


마당놀이

演戲場에 到着한 兩 部落의 演戲隊는 農旗를 中心으로 큰 圓을 形成하여 部落別로 마당놀이를 펼치는데 이때는 相對部落보다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잡이들은 最高의 技倆을 發揮하며 갓은 삼채장단에 맞추어 한바탕 흥겹게 마당풀이를 한다.

〈갓은 삼채장단〉





旗歲拜

한창 마당놀이로 熱氣를 高潮시킨 兩 部落은 서로 旗를 마주하고 나서 旗歲拜를 하는데 이때는 서로 상대부락이 더 숙이라고 하고 먼저 숙이라고 하는 등 고향을 지르면서 서로의 기를 돋운다.

旗길싸움

旗歲拜에서 過熱이 되면 지계를 벗어 놓고 男子들이 相對部落의 旗에 달려들어 旗의 上端에 꽂힌 甁장목을 빼앗으려고 하고 一部는 자기 部落의 旗를 지키려고 하며 農樂隊는 허튼장단을 몰아치며 한참을 시끄럽게 하다가 한편의 旗가 장목을 빼앗기면 旗싸움은 끝나게 되고 진 편에서는 이긴 部落의 旗에 대해 먼저 旗首를 숙여 拜禮하고 이긴 部落의 旗는 答禮한다.

허튼 장단 >



뒷풀이

拜禮가 끝나고 나면 兩 部落의 演戲대가 한데 어울려서 함께 즐거운 뒷풀이를 펼치는데 農樂의 굿거리. 자근삼채등에 맞추어서 이기고 짐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한데 어루어진 團合의 精神으로 함께 즐기며 이러한 놀이文化의 뒷풀이야말로 우리 民俗이 지니는 값있는 아름다움이요 멋이라고 할 수 있다.

<굿거리장단>



(上記의 旗싸움에 대한 記錄은 金南면 大坪리 老人會員 여러분과 김학선(男. 74歲. 조치원읍 죽림동 97)의 口述을 整理하여 記錄하였다.)

전의면 대곡리 장승제



(6)全義面 大谷里 대사동 長承祭

燕岐郡 전의면 大谷里 대사동에서는 윤년(2~4년 만에 한번씩 들게 되며 그 期間은 一定치 않다.)이 드문해에는 洞里的 入口에 서 있는 木長丞의 앞에서 城隍祭와 長丞祭를 500여년 이 넘도록 긴 歲月을 두고 지내고 있다.

이 대사동의 長丞祭는 旣 地方의 祭가 一年 혹은 二年마다 한번씩 舉行되는데 비해서 윤년이 드는해만 지내는 特異함을 보이고 있으며 이 祭를 지낼 때는 城隍祭와 長丞祭를 바로 한자리에서 지내는 特異함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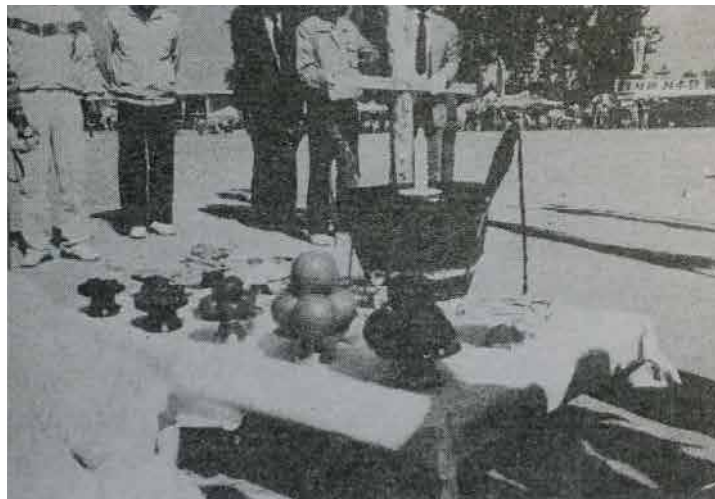
이 대곡리의 城隍堂 長丞祭의 由來는 약 500여년전 (一部에서는 500년이 훨씬 넘었다고도 한다.) 高麗 末期부터 部落의 모든 疾病과 厄運 그리고 盜亂과 外敵의 侵入을 막기 위하여 兪상곳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長丞을 세워 部落의 安寧과 豊農, 家内の 安過太平과 個人의 所願成就를 祈願하여 部落의 守護神으로 崇拜해 왔다.

이 大谷里 대사동의 長丞祭는 윤년이 드는 해의 陰曆 正月 14일에 部落이 住民들이 모여서 山에 올라 長丞을 세울 神木과 숫대(이 곳에서는 춧대라고 부른다.)로 使用할 나무를 잘라서 洞里的 入口에 있는 長丞祭場에서 長丞을 깎아 天下大將軍과 地下大將軍을 세우고 長丞의 옆에는 각각 숫대를 세우고 숫대에 한지(吉紙)를 느린 禁줄을 묶는다.

이 長丞祭는 祭日이 되기 1~2週日 時에 洞里的 住民 中에서 生氣福德을 가려서 祭官1, 祝官1, 公양주1人을 選定한다. 이때의 生氣福德이라 함은 各者의 生年月日을 上, 中, 下,

三爻에 配定하여 生氣日을 選定하는 것으로 一上生氣, 二中天宣, 三下絶体, 四中遊魂, 五上福官, 六中福德, 七下絶命, 八中歸魂을 말하는 것으로 이 生氣福德을 가려서 祭官이 選出되고 나면 洞里의 入口에는 黄土을 펴고 禁줄이 쳐지는데 이 部落에서는 아직도 禁줄이 洞里 入口에 쳐지면 外部人이 洞里에 出入을 할 수가 없으며 洞里 안에 들어 온 사람은 祭가 끝날때까지는 洞里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 禁줄과 黄土는 祭官의 집 門前에도 치는데 이 禁줄이 쳐지면 그 날부터 모든 洞里의 住民들은 몸과 마음을 淨潔히 해야 하며 祭官들은 每日 冷水에 沐浴하고 婦人과 舍房을 하지 않으며 몸과 마음을 淨潔히 하고 門밖 出入을 삼가며 喪家에 가지않고 每事에 조심을 하고 있다가 祭에 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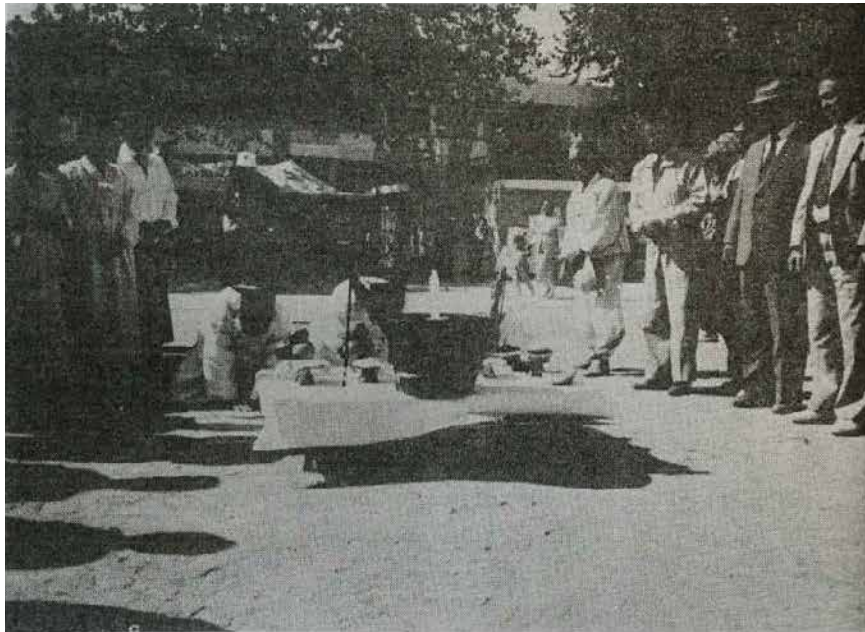
祭物을 차리는 祭需費用은 過去에는 집집마다 걷어서 使用했으나 요즘에는 洞里의 資金을 利用하며 祭物은 백설기와 탕, 포나물과 三色實果를 陳設한다.



長丞祭의 祭床

祭物은 아침일찍 場에 나가서 공양주가 흥정을 하고 공양주의 집에서 장만하며 飲食을 준비할 때는 洞里의 公同우물 중에서 祭에 使用할 우물을 깨끗하게 청소한 後에 使用을 禁하고 있다 가 그 우물의 물을 利用하여서 祭物을 차리게 된다.

祭는 허음 長丞의 옆(洞里 入口)에 있는 累石塚(돌무더기) 앞에 城隍壇에서 祭床을 차리고 洞里의 安寧을 위해서 城隍之神에게 祭를 告한 後에 床을 長丞(天下大將軍과 地下大將軍의 사이에 床을 차린다.) 앞에 陳設하고 長丞祭를 舉行한다.



長丞祭의 靜景

長丞祭는 분향으로 始作되어 降神禮를 하고 獻酌에 이어 告祝을 하는데 祝文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 正月 ○○朔 十四日

幼學 ○○○ 敢昭告于

長丞之神 曰惟 靈 昭昭不泯 洋洋如在

作鎮洞府 人所瞻仰 清潔壇場

三歲爲常 爰立叢詞 儼然其像

伏願自比以後 一洞樂業 庶民安堵

六賤三魔殄滅於界外 六畜五穀豐滿於境內

蟲蛇猛獸遠屏形跡 癘疾怪症 不侵洞里

一里之人 咸戴其德 吉日良辰

沐浴齊戒 敢竭卑誠 謹其菲薄

庶其格思 勿曰物不腆也 尙

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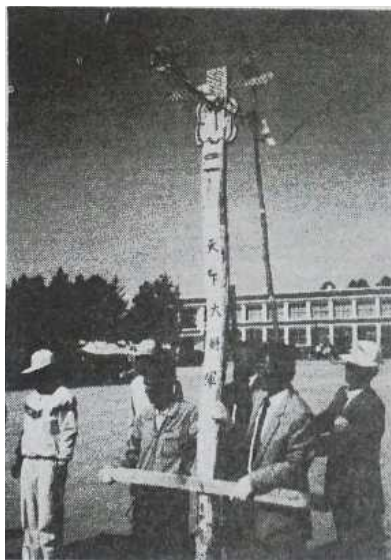
祝文을 祝頌한 다음에는 祭官 一行이 三拜하고 나서 燒紙를 올리는데 燒紙는 처음에는 洞里的 安寧과 豊農, 六畜을 위한 大洞燒紙를 제일 먼저 올린다.

大洞燒紙를 올리고 난 後에는 洞里的 住民 中에서 男子들만의 個人燒紙를 올리는데 個人燒紙는 願하는 사람에 의해서 年齡에 關係없이 올려주고 燒紙를 올리는 사람들은 謝禮를 하게 된다.

이 大谷里 대사동의 長丞은 長丞이 自然的으로 부패되어 없어질 때까지 제자리 놓아 두는데 이 長丞은 天下大將軍과 地下大將軍이 길을 마주하고 서 있으며 洞里的 守護神으로의 역할과 함께 里程表의 구실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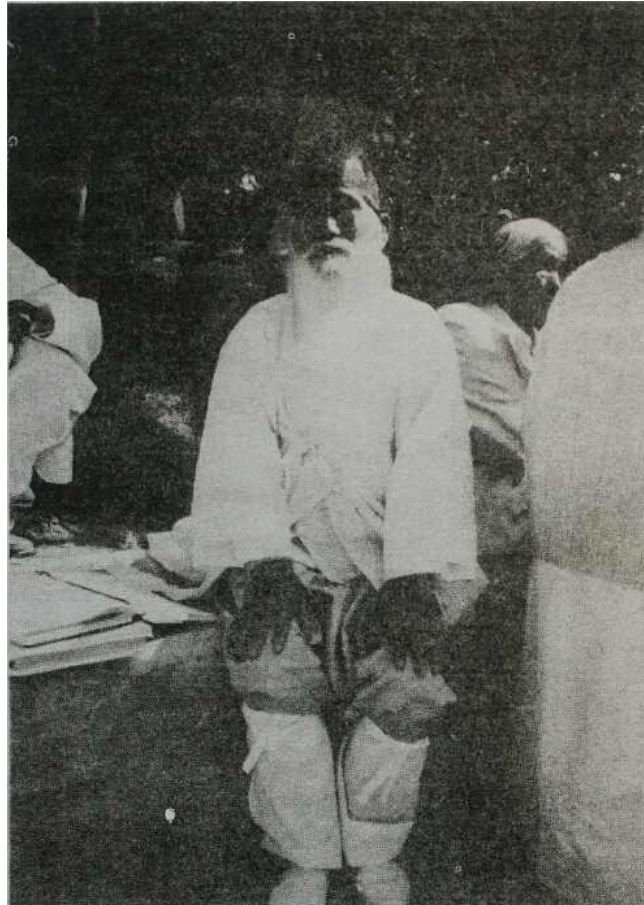
長丞祭에서 燒紙를 올리고 있다



天下大將軍



地下大將軍



대곡리의 長丞祭의 口述者인 민태혁 옹

〈註〉上記의 城隍祭, 長丞祭는 收錄은 1988年 10月 15日 도
원문화제에서 軍民体育大會 式前行事로 再現된 것을 調査 收錄하
였으며 口述者는 민태혁(男, 76歲, 연기군 전의면 대곡리 대사
동), 김남복(男, 51歲, 연기군 전의면 대곡리 대사동 173)과
3名의 口述로 整理한 것이며 이렇게 長丞祭가 始作하기 前과
끝나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農樂에 맞추어 한데 어우러져 興

겨운 춤을 추며 祝祭를 벌이는데 이러한 곳은 正月 대보름까지 계속되며 이 곳에서는 삼채, 자즌가락, 길군악 등이 使用된다.

<악보 : 길군악 >



<악보 : 삼채 >



<악보 : 자즌가락 >

(7) 其他民俗놀이

地域的 特徵이나 再現이 可能한 놀이외에도 이미 各處에서 다시 再現되었거나 再現을 서두르고 있는 놀이가 상당수 있으며 아니면 歲時的인 놀이 中에서 現在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놀이가 있어 오랜 時間을 傳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거의 全國

的으로 나타나며 그 演戲方法도 거의 共通的으로 나타나고 있어 地域의 特徵을 찾기 보다는 傳承시키는 過程에서 원래의 뜻을 잃어 버리지 않고 現代化 시킬 수 있는 方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脈을 없애지 않고 現代化를 할 수 있는 方法은 먼저 그 놀이에 대한 由來나 發展過程을 모르면 不可能하며 內容의 파악도 하지 못한채 겉치레에 공을 기울이다 보면 그러한 것은 再現이 된다고 하여도 값있는 文化가 될 수 없으며 살아있는 文化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뜻에서 全國적으로 演戲되었고 이 故場에서도 盛行했던 놀이를 그 概要나마 살펴보는 것은 큰 意味를 지닌다.

1. 그네뛰기(鞦韆戲)

옛날 古詩에 보면 「非天非地半空中. 青山綠水自進退. 形如二月落花來. 容似三月飛去燕」이라 하여 그네뛰기를 읊은 것이 있다. 이 그네뛰기는 端午日에 各地에서 큰 나무에 줄을 매거나 높은 기둥을 양편에 세우고 가로대를 지른 후에 그네를 매어서 뛰게 되어 있는데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婦女子들이 모여서 그네를 뛰는 모습은 마치 仙女가 下降하는 것도 같고 재미가 나는 것도 같아 많은 詩人들이 이 그네뛰기에 대한 글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네는 혼자뛰는 것을 <외그네>라 하고 둘이뛰는 것을 <쌍그네>라 하는데 勝敗를 결정하는 方法은 높다란 나무끝에 방울을 달아 그 방울을 먼저 그네를 지쳐서 닿게하여 소리를 울리게 하는 것으로 결정하던가 그네의 발판에 줄을 달아 그 줄이 많이 올라갈수록 勝者로 인정하는 方法이 있으며 現在에 나타나는 그네뛰기에서는 後者를 많이 使

用한다.

高麗때에는 端午日에 이 그네뛰기가 대대적으로 행해졌음을 적고 있는데 이때는 民俗놀이를 庶民들 만이 즐기는 것이 아니고 벼슬아치들도 이 그네뛰기를 했음을 적고 있다. (端午. 忠獻設鞦韆戲干栢洞客. 宴文武四以上三日) < 註9 >

古今藝醫術國에 보면 이 그네뛰기는 원래 北方 戊狄이 寒食날 추전을 뛰어서 몸의 輕捷를 연습하던 것을 後에 中國의 女子들이 배워서 하였다고 記錄하고 있으며 天寶遺事에는 寒食날 官中에서 鞦韆競技를 하였으니 이를 <半仙之戲> 라고 불렀다고 적고 있어 이 그네뛰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때 원래 北戊에서 發生하여 中國으로 건너와 寒食日에 演戲되었던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端午의 演戲가 된 것으로 보이며 現在에는 地方의 各種 郷土祭에서 婦女子들의 競技種目으로 채택하고 있다.

2. 씨름(角戲)

端午의 놀이 中에서 婦女子들의 代表的인 놀이가 그네뛰기인데 비해 男子들은 씨름을 즐겼다. 이 씨름은 적당한 넓이의 空地가 있으면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힘과 기술의 겨룸으로써 예부터 傳해진 代表的인 남자들의 놀이의 하나이다.

씨름은 <脚戲> . <角力> . <角抵> . <崑大戲> . <相撲> 등으로 불리어 졌으며 이 씨름에 關한 記錄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高

< 註9 > 高麗史 催忠獻傳

麗때 부터이다. 이 씨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日本. 中國. 몽고 등지에서도 盛行했는데 中國의 씨름은 우리나라에서 傳해진 것으로 <高麗技> 혹은 <撩技> 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씨름은 살바를 다리와 허리에 두른 후에 오른손으로 다리살바를 잡고 왼손으로는 허리살바를 잡고 일어나 어깨와 등이 일직선상으로 되었을때 신호에 의해서 시작하는데 이 씨름에는 <허리재간> . <다리재간> . <손재간> 의 세가지의 類形이 있으며 그 큰재간에는 많은 獨創的인 技術이 있다.

손재간에는 손을 利用하여 상대방을 밀거나 당기거나 상대의 무릎을 치거나 하여 이기는 기술이며 다리재간은 다리를 이용해 상대방을 걸어서 넘기거나 옆으로 쓰러트리거나 하는 모든 재간을 말하고 허리재간은 허리를 利用하는 기술로써 左右로 들어서 메치거나 뒤집어 넘기거나 하는 기술과 모든 배지기류는 여기에 속한다. 씨름의 기술에는 공격 기술. 메치기와 방어기술. 되치기 등으로 區分하는데 過去의 씨름은 처음에 <아기씨름> 이라 하여 열대여섯살 정도의 아이들이 판을 시작하면 다음에는 <총각마구리> 라고 하여 젊은 총각들이 나와서 씨름을 하게 된다. 이 총각들의 시합이 끝나면 <소걸이> 라고 하여 황소 한 마리를 타가는 장정들의 씨름이 벌어지는데 이때는 <판막음=都結局> 또는 <판매기> 라 하여 씨름판에 나서는 사람이 없을때의 승자가 最後의 우승자가 되는 것이다. 이 씨름은 우리나라의 傳承 民俗놀이로 端午가 되면 全國의 各地에서 이 씨름판이 벌어졌으나 現在에 들어서는 職業化한 씨름꾼이 생기고 競技種目化하여 옛 씨름의 정취는 고작 地方의 鄉土祭의 한마당 祝祭때나 찾아볼 수가 있다.

3. 널뛰기(跳板戲)

설날서 부터 正初에는 女子들이 길이 10尺 정도에 넓이 1.5~2尺 정도의 널빤지 밑에 짚을 묶거나 가마니를 말아서 받쳐놓고 양쪽 끝에 한사람씩 올라서서 교대로 뛰어 올랐다가 내려서는 반동을 利用해서 위로 오르는 놀이를 하는데 이것이 널뛰기이다.

이 널뛰기의 由來는 예전에 어느 죄수의 아내가 높은 담 안의 獄속에 갇힌 남편을 보고자 또 한 사람의 죄수의 아내와 짜고 널을 뛰면서 담안의 남편을 보고자 하는데서 시작했다고도 하고 밖의 出入이 自由롭지 못했던 士大夫 집안의 婦女子들이 널을 뛰면서 담 위로 바깥 세상을 구경하던 데서 시작되었다고도 하나 신빙성은 없다.

옛날 文獻의 記錄에 보면 「여염집의 부녀자들이 흰 널판을 이용하여 양쪽으로 나누어서고 몇자씩 音樂에 맞추어 뛰어 오르는 데 이것을 超板戲라고 하였으며 琉球國의 女子들도 板의 위에서 板舞라고 하여 널을 뛰는데 이것은 널뛰기와 같은 것으로 國初에 유구족의 사람들이 배워 간 것으로 보인다. (閭卷婦女用白板模駕藁枕上分立兩端激盪而跳數戶許環????然以困??爲樂號爲超板戲按周煌琉球國略其婦女舞於板上曰板舞與此相類國初琉球人朝抑或慕而校之者歟」 < 註10 >

이 널뛰기는 겨울동안 집 안에서 生活하던 婦女子들이 正初에 널을 뛰므로 해서 다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方法으로 演戲되었음을 알 수 있다.

< 註10 > 京都雜誌 跳板戲條

4. 윷놀이(擲筊戲)

正初가 되면 집안이나 밖에서 家族이나 部落民이 모여서 윷놀이를 즐기는데 이 윷의 種類에는 <장작윷> 과 <밤윷> 의 두가지가 있다. 장작윷은 길이 15 ~ 20 센치에 넓이 2.5 ~ 3 센치의 나무를 반으로 쪼개어서 사용하며 밤윷은 밤톨만 하게 만들어 공기속에 넣고 흔들다가 던져서 나오는 수대로 行馬하여 논다. 이 윷은 네짝을 갖고 놀게 되어 있으며 한 개가 젓혀지고 세개가 엎어지면 도라 하여 한점을 가고 두개가 엎어지고 두개가 젓혀지면 개라하여 두점을 가며 세 개가 젓혀지고 한 개가 엎어지면 걸이라 하여 석점을 가고 다 젓혀지면 윷이라 하여 녁점을 가고 다 엎어지면 모라하여 다섯점을 가는데 윷과 모는 다시 한 번을 가고 던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네동이의 말을 써서 먼저 나는 편이 이기게 된다.

이 윷놀이를 할때는 거적등을 바닥에 깔아서 윷판을 삼는데 윷이 이 판 밖으로 나가면 <落板> 이라 하여서 무효로 친다. 이 윷을 던지는 방법이 3尺 以上되게 높이 던지는데 이렇게 높이 던지는 것을 <천사슬 윷> 이라고 하고 낮게 굴리는 것은 <보리윷> 또는 <푸드기 윷> 이라 하여 무효로 친다. 말판은 한쪽이 다섯발씩 정사각형으로 20발이 있고 중앙에 X字로 하여 中央을 기점으로 한쪽이 두발씩 하여 9발이 있어 도합 29 발으로 되어 있다. 이 윷은 正初에 윷점이라고 하여 一半間의 身數를 점치기도 하는데 윷을 세번 던져 첫번째를 上 두번째를 中 세번째를 下 라 하여서 도는 1 개는 2 걸은 3 윷과 모는 4로 하여 1.1.1에서 4.4.4까지 64가 있다.

도도도 : 아이가 어머니를 만남 (吉)
 도도개 : 취가 창고에 들어감 (凶)
 도도걸 : 첫날밤을 촛불을 얻음 (吉)
 도도모 : 메뚜기가 봄을 만남 (吉)
 도개도 : 큰 물이 거슬러 흐름 (凶)
 도개개 : 죄 가운데 증을 세움 (吉)
 도개걸 : 하루살이가 등에 부딪침 (凶)
 도개모 : 금이나 쇠가 불을 지남 (凶)
 도걸도 : 학이 날개를 잃음 (凶)
 도걸개 : 굽주린 자가 고기를 얻음 (吉)
 도걸걸 : 용이 큰 바다로 들어감 (吉)
 도걸모 : 거북이 죽순이 있는 대밭에 들어감 (吉)
 도모도 : 나무에 뿌리가 없음 (凶)
 도모개 :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 (吉)
 도모걸 : 추운자가 옷을 얻음 (吉)
 도모모 : 가난한 자가 보배를 얻음 (吉)
 개도도 : 해가 구름 속으로 들어감 (凶)
 개도개 : 장마에 해를 바라봄 (吉)
 개도걸 : 활이 화살을 잃음 (凶)
 개도모 : 새에 날개가 없음 (凶)
 개개도 : 약한 말이 짐이 무거움 (凶)
 개개개 : 학이 하늘에 오름 (吉)
 개개걸 : 주린 매가 고기를 얻음 (吉)
 개개모 : 수레에 바퀴가 없음 (凶)
 개걸도 : 어린아이가 젖을 얻음 (吉)

개걸개 : 꿀병에 약을 얻음 (吉)
 개걸걸 : 나비가 꽃을 얻음 (吉)
 개걸모 : 활이 화살을 얻음 (吉)
 개모도 : 서먹한 손님에게 절을 함 (吉)
 개모개 : 물고기가 물을 잃음 (凶)
 개모걸 : 물위에 물결이 일어남 (凶)
 개모모 : 용이 뜻한바를 얻음 (吉)
 걸도도 : 큰 고기가 물에 들어감 (吉)
 걸도개 : 큰 더위에 부채를 줌 (吉)
 걸도걸 : 새매와 매가 발톱이 없음 (凶)
 걸도모 : 구슬을 강속에 던짐 (凶)
 걸개도 : 용머리에 뿔이 생김 (吉)
 걸개개 : 가난한 자가 또 천해짐 (凶)
 걸개모 : 고양이가 쥐를 얻음 (吉)
 걸걸도 :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됨 (吉)
 걸걸개 : 소가 풀과 콩을 얻음 (吉)
 걸걸걸 : 나무와 꽃이 열매를 얻음 (吉)
 걸걸모 : 종이 속세로 귀환함 (凶)
 걸모도 : 나그네가 집을 생각함 (凶)
 걸모개 : 말에 채찍이 없음 (吉)
 걸모걸 : 나그네가 길을 얻음 (吉)
 걸모모 : 해가 풀잎의 이슬에 비침 (凶)
 모도도 : 부모가 자식을 얻음 (吉)
 모도개 : 공도 없고 상도 없음 (凶)
 모도걸 : 용이 깊은 연못에 들어감 (凶)

모도모 : 맹인이 문에 다달음 (吉)
모개도 : 어둠 속에서 불을 봄 (吉)
모개개 : 사람이 손과 팔이 없음 (凶)
모개결 : 이가 대인을 만남 (吉)
모개모 : 각궁에 시위가 없음 (凶)
모결도 : 귓가에서 바람이 일어남 (凶)
모결개 : 어린애가 보화를 얻음 (凶)
모결결 : 사람을 얻었다가 다시 잃음 (凶)
모결모 : 어지럽고 길하지 못함 (凶)
모모도 : 살 일이 아득함 (凶)
모모개 : 물고기가 낚시를 삼킴 (凶)
모모결 : 나는 새가 사람을 만남 (凶)
모모모 : 형이 동생을 만남 (吉)

第二篇 옛노래

一、머릿글	85
二、燕岐의 옛노래	89
(1) 農 謠	89
(2) 婦女謠	165
(3) 儀式謠	133
(4) 其 他	184
三、맺는 말	196

第二篇 옛노래

一. 머릿글

人間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서로 自身の 心中의 느낌을 表現하기 위한 方法으로 言語라는 것이 必要하게 되었으며 이 言語는 같은 環境 內에서 사는 同族끼리는 서로의 意思疏通이 必要한데서 緣由하여 同質의 말과 글을 使用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말은 크게는 三等分으로 京鄕地方, 湖南地方, 嶺南地方으로 나누어지며거기에 濟州道の 特異한 島嶼地方의 形態로 創出된 言語가 있으나 細分하여 보면 各地方마다는 生活與件이나 地理的條件, 或은 職業的인 面 等에서 同類의 人間끼리 모여서 使用하는 言語가 있어 環境에 따른 言語의 差異가 생기고 있다.

이렇듯 한 地方에서 생겨난 많은 노래는 한 地方의 같은 住居環境 內에서 살고있는 무리들의 感情의 表出으로써 스스로의 內的 感性을 外部로 表現하는 方法으로 利用하고 있으며 하기에 이 俗謠는 地域內的 住民들에게는 서로 共同體的인 共感帶가 形成되어 진다.

過去에 우리네의 祖上들은 말로 할 수 없고 글로 表現할 수 없는 抑壓된 가슴속의 限이나 怨을 口속에서 혼자 되뇌이는 陰性的인 方法으로 表現했으며 가슴 뿌듯한 興이나 情感은 陽性的인 큰 소리로 흥겹게 表現했다. 여기서의 陰性的 소리란 口속에서 웅얼거리는 소리이고 陽性的 소리란 밖으로 크게 내는 소리이다. 地方에서 나타나는 俗謠를 보면 農謠나 地硬謠, 儀式謠와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弄戲謠는 陽性에 屬하고 婦女謠는 거의 陰聲에 屬한다. 같은 作業이라 해도 혼자서 作業을 할때 부르는 소리도 많은 量이 陰性에 屬하는 理由는 지루함을 잊기위해 혼자서 내는 소리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地方에서 特徵있게 表現되고 불리워지던 우리네의 가슴속의 소리, 俗謠는 이제 점차 消失되어 가고 있으며 그 技能人은 고의가 高齡에 있어 빠른 時日內에 調査 整理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先代들이 불렀던 그 많은 노래를 영영 잊어버릴 수도 있다.

俗謠는 그 地域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죽음, 生活과 사랑 그 모든 것을 表現하고 있는 歷史의 資料이다. 세상이 變化하면 俗謠의 辭說이나 旋律도 함께 變化되면서 消失되고 再創出되는 反復過程을 거치면서 이 民族의 精神的인 支柱役을 해 온 것이다.

우리 民族은 슬퍼도 영영 소리내어 울 수 없었고 기뻐도 과안대소 할 수 없는 암울한 時間 속에서 지내왔다고 볼 수 있다. 一部 세도가들도 하루의 安寧을 걱정했다면 피지배층인 庶民들은 그 가슴타는 일이 어떠했으며 또 얼마나 속으로 가슴태웠는 가도 알 수 있다. 이러한 周圍의 어려운 環境 속에서 庶民들이 創出해 낸 한풀이의 또는 흥겨움의 소리가 바로 그 地方에서 불리워지고 들던 俗謠인 것이다.

이 俗謠는 그 역할이 매우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庶民들의 喜怒哀樂과 生老病死, 그리고 庶民들의 사랑과 그 모든 것이 함축성 있게 表現되는 이 俗謠의 辭說과 旋律 안에 함께

살아 있다. 時代가 암울하면 自然的으로 그 時代에는 어둡고 칙
울한 辭說에 애조를 띠우는 旋律이 創出되었을 것이고 泰平聖代
에는 辭說이 즐겁고 旋律이 흥에 겨웁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俗謠는 그 辭說에서 그 時代의 環境을 알 수 있는 貴重한 資
料이다. 즉 俗謠 그自体가 보이고 있는 辭說 속에는 時代의
흐름에 따라서 變化하는 여러 가지의 表現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辭說 中の 語句는 그 時代의 諺말의 變化를 알 수 있다. 다
만 이러한 것은 民俗藝術과 연관되는 口碑文學的인 資料로써 重
要한 것이지만 그 辭說의 變化는 旋律의 變化에도 影響을 미쳤
다는 점이다. 더욱 時代의 變化에 따른 社會의 環境은 새로운
俗謠의 辭說에 重要한 影響을 끼치고 있어서 우리는 흔히 民俗
藝術文化 中에서 俗謠의 特徵을 다음과 같이 表現한다.

첫째 : 作者와 創出年代의 末祥이다.

둘째 : 表現이 自由로우며 周圍의 環境에 의해서 變化한다.

셋째 : 人間의 삶과 이어지는 生老病死에 대한 가장 단적인
表現을 한다.

넷째 : 歌唱者의 技藝力에 의해 辭說이나 旋律이 각기 特徵的으
로 나타난다.

이렇듯 이 俗謠는 地域的인 조건에 의해서 그 基本的인 形態
가 정해지면 다음에는 現場에서 潛在的인 記憶속에 있다가 다시
現場에서 必要時에 再現되는 形態를 취하고 있으며 이 再現時에
는 歌唱者의 時記力이나 表現力 等に 따라서 歌唱者의 獨自的인
노래로 再創出되는 것이다. 하기에 이 地方에서 나타나는 俗謠는
技藝人 全體가 하나의 技能인이며 俗謠의 保有者이다. 물론 나름

대로 능숙과 미숙은 區別되어 지고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貴重한 그 地域民의 가슴속에 내포되어 있는 삶의 소리이고 죽음의 고통이기도 하다. 이러한 地域의 俗謠가 現 時代의 文明에 밀려 점차 그 現場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은 곧 이 時代의 우리가 過去의 艱歷史 속에서 이 民族의 精神的인 支柱역할을 해 온 우리의 소리를 이 時代에 잃는다는 것은 이 나라의 歷史 中에서 저지른 과오중에 내 精神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상처로 남을 과오라고 생각된다.

庶民들의 삶의 現場에서 불리워지던 노래, 內房 깊숙히서 갓은 고초를 겪으며 속으로 되씹으며 부르던 婦女子들의 限에 맺힌 소리, 人間의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儀式謠等 수 없이 많은 노래가 이제 이 時代에 整理된다는 것은 우리의 精神을 活字로나마 記錄하여 後孫들에게 先祖들의 이야기를 알려 주고자 함이다.

二. 燕岐의 옛노래

(1) 農 謠

全國에서 가장 작은 郡인 燕岐는 한때는 交通의 要地로써 많은 사람들이 漢陽에서 地方으로, 또는 三南에서 漢陽으로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거치던 곳이었으며 現在도 이 곳을 中心으로 江原道와 忠淸南北道 或은 全羅, 慶尙으로 내려가고 京畿로 올라가는 交通의 重要한 기점이다. 燕岐는 더욱 忠淸南道와 忠北을 米호천으로 인해 가르고 있기도 하며 一邑 六個面의 적은 郡이면서도 많은 無形의 소리文化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 地方은 地理的인 特徵 때문에 京畿의 소리와 忠北의 소리가 複合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 忠淸道의 中央에 있어 忠南, 北의 東西南北의 地域에서 나타나는 特徵的인 소리가 總體的인 形態로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다.

이 地域에서 나타나는 俗謠는 이 地域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周圍의 여러 고장의 것이 綜合的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現行政地域으로는 적은 곳이나 이 地域의 俗謠는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地域的 特徵으로 나타나고 있다.

農謠는 農事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共同體的인 作業을 하기 위하여 長短에 맞추어서 先唱者의 소리에 맞추어 많은 사람이 뒷소리를 받으며 作業의 能率을 倍加시킴에 그 目的이 있다.

過去에는 洞里의 農樂隊가 두레조직과 함께 作業의 現場에 함께 나가서 先唱者의 소리에 長短을 쳐주고 뒷소리를 함께 받으며 四物의 소리를 내주고 했으나 요즈음에는 農樂도 없어지고 農事를 짓는데 있어서도 많은 곳에서 機械化된 營農法을 使用하기 때문에 過去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더욱 時代가 變化함에 따라서 農事謠는 거의 불려지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俗謠 中에서는 이 農作에 關한 農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그 理由는 우리나라가 農耕社會이며 農事는 곧 삶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農謠의 辭說을 보면 매우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豐年의 念願 人間의 살아갈 道理, 情人을 그리는 마음 等 갖가지의 생각을 表現하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辭說은 原初的인 形態의 農謠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過去에 天神祭, 等 祭天儀式에서 불리워지던 소리는 주로 神을 즐겁게 하기위해 男女老少가 모여서 불렀다고 하였으며 이때의 祭天儀式은 農事의 豐農을 하늘에 感謝드리기 위함과 一年의 農作의 豐農의 念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農謠는 거의가 豐作과 연관지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農謠가 時間이 지나며 神께 感謝하고 豐農을 念願하는 것에서 現場性이 강한 노래로 바뀌면서 그 時代에 따른 辭說과 旋律의 變化가 온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요즈음에 들어서 各 地方의 農謠는 地域的인 特徵보다는 歌唱者의 技藝力에 의해서 더 많은 特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理由는 交通이 發達하고 人口가 늘어가자 많은 사람들의 移住가 잦아지면서 全國의 農謠는 서로서로 複合的인 形態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現場性이 강한 農謠는 現場에서 先唱者의 소리에 맞추어 후렴이 정해지는 것으로 作業場에서 뒷소리를 받으며 先唱者의 소리를 潛定的으로 머리에 記憶하고 있다가 現場에서 必要時에 歌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歌唱은 唱者의 記憶力이나 表現力에 따라서 辭說이나 旋律이 變化

하는 것으로써 歌唱者 自身の 노래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農謠는 소리의 再創出의 過程에서는 먼저 부른 先唱者의 소리가 潛定的인 記憶속에서 겹으로 表出되는 것이기때문에 先唱者가 他地에서 移住해 왔을 경우 그 뒤에 나타나는 소리는 自然 先唱者의 地方의 소리와 再創者의 地域의 소리가 複合的인 形態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같이 요즈음에 보이고 있는 農謠는 地域的인 特徵보다는 歌唱者 個人的 능력에 의해 特異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歌唱者는 個人的 노래를 지니고 있는 技能保有者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變化하면서 수 많은 辭說과 旋律을 創出し킨 農謠는 時代의 變化에 따라서 그 時代에 周圍環境에 따른 影響으로 辭說이 變化했으며 消滅되고 再創出되는 反復過程을 거치면서 脈을 이어왔으나 昨今에 들어서 時代의 變化는 舊習이라는 생각하나로 外來의 文化에 침식당한채 거의 斷絶되어 가고 있는 實情이다.

忠淸南道의 農謠를 보면 대개 錦山, 大德郡 一部에서 나타나는 産地의 農謠와 論山, 서천, 扶餘, 公州 等地에서 불리는 노래 天安, 溫陽, 唐津, 禮山, 淸陽등 고장에서 나타나는 소리와 瑞山, 洪城, 보령 等 西海岸 쪽의 農謠가 地域的인 特徵을 보이고 있다. 즉 錦山地方은 全北의 무주 等 노령산맥을 中心으로 한 故場에서 나타나는 이어부르기인 連唱의 形態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천 論山, 扶餘, 等은 全羅의 右道에 가까운 소리로 나타난다. 또한 天安, 溫陽, 禮山 等은 京畿道의 南部쪽과 가까운 形態를 취하고 있으며 瑞山, 洪城, 보령 等은 鬻길을 利用한 交流로 인해 京畿 全羅의 소리가 複合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燕岐郡에서 採錄된 農謠를 보면 各地域의 複合的인 形態로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理

由는 이 地域의 地理的인 條件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地方에서 나타나는 農謠는 거의가 모심기와 김매기로 調査되고 있으며 唱者들이 高齡에 있어 하루빨리 發掘, 整理가 돼야 될 것이다.

◎모심기謠 (1)

♩. = 60.

<메리소리> 여 기도 땀-하-나 오-하- 저기도- 땀하-나
 <받음소리> 여 기도 땀-하-나 오-하- 저기도 땀하-나
 <메리소리> 여 보 시-로- 농부-님-네- 인내- 말-씀- 들어-보 소
 <받음소리> 여 기도 땀-하-나 오-하- 저기도 땀하-나
 <메리소리> 이 농 사도- 누가지었 나 신농- 새-작- 우답-길 새
 <받음소리> 여 기도 땀-하-나 오-하- 저기도 땀하-나
 <메리소리> 우리 농-부- 피나-할- 일- 농사- 밖-에- 무엇이었 나
 <받음소리> 여 기도 땀-하-나 오-하- 저기도 땀하-나
 <메리소리> 이 - 모-를 다심-어-서- 삼배- 풀-을- 기억-하-서
 <받음소리> 여 기도 땀-하-나 오-하- 저기도 땀하-나

여보시오 벗님네야
 일도사간 모심을때
 (여기도 또 하나
 어하 저기도 또하나)
 풍운조화 하시는 분은
 비내리고 바람불어
 (여기도 또 하나
 어하 저기도 또하나)
 정성들여 심은 이모
 하루하루 자라나서
 (여기도 또 하나
 오하 저기도 또하나)
 삼배출의 수확이요
 사배출의 소득일때
 (여기도 또 하나
 오하 저기도 또하나)
 우리농부 흘린 땀이
 풍년가로 들려오네
 (여기도 또 하나
 오하 저기도 또하나)

(解 說) 上記의 모심기謠는 진동面 보덕里 191 番地에 居住하는 안은상(男, 77歲)의 口誦을 採錄한 것으로써 一般的으로 京畿 忠淸地方의 모심기 作業때 많이 나타나는 作業謠이다. 이 모심기 謠는 比較的 잔가락을 많이 表現하고 있으며 歌唱者는 많은 노래를 記憶하고 있듯이 俗謠에 대해서 技倆이 뛰어난 技能人임을 알 수

있다.

◎ 모심기謡 (2)

♩. = 68 ~

<머리> 얼-릴-릴-릴 상-사-디-야 <반음> 얼-릴-릴 상-사-디-야

한-쪽 두-쪽 찾-아-보-요

정-성-을 다-해-서 집-어-보-면

밭-을 지-는 눈-독이-네

일-습-은 으-르-며 열-매-가-주-게

이쪽한쪽 꽃아놓고
(얼릴릴 상사디야)
다시한쪽 집어들어
(얼릴릴 상사디야)
정성으로 꽃아보면
(얼릴릴 상사디야)
멀기만 하던 저 눈독이
(얼릴릴 상사디야)
눈앞으로 다가오니
(얼릴릴 상사디야)

점심참이 가깝구나
 (얼렷렷 상사디야)
 심자심자 어서심자
 (얼렷렷 상사디야)
 이논빼미 어서심자
 (얼렷렷 상사디야)
 이논빼미 다심고나서
 (얼렷렷 상사디야)
 장고배미로 넘어가세
 (얼렷렷 상사디야)
 장고배미 매고나면
 (얼렷렷 상사디야)
 오늘 하루도 저물어가니
 (얼렷렷 상사디야)
 다음논으로 넘어가세
 (얼렷렷 상사디야)

(解 說) 上記의 모심기謠는 안태선 (男 . 82 歲 . 조치원읍 상동리)
 에 辭說과 歌唱을 採錄한 것으로써 전국을 통해서 가장 보편적
 으로 불리워지는 勞動謠의 하나이다. 이 農謠 상사디야는 김매기나
 모심기에서 共通的으로 나타나는데 흔히 南道唱의 판소리 “춘향
 가.”의 한 대목을 引用하여 부른 것으로 대개 이 노래가 全國
 的으로 많이 歌唱되기 始作한 것은 朝鮮朝 後記 판소리가 널리
 大衆性 있게 보급되기 시작한 때로 推定한다. 歌唱者는 이 農謠를
 旋律이 特異할 것이 없고 一般的인데 비해서 辭說은 比較的 體

系的으로 整理가 되어 있음으로 보아 力倆이 있는 技能人으로 보인다. 더욱 이 歌唱者가 居住하고 있는 곳이 邑內라고는 하지만 變두리에 屬하고 개발이 된 洞里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農事를 生業으로 하고 있으며 더욱 洞里에 農樂隊가 있어 아직도 民俗藝術에 대해서는 남다른 概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리로 보인다.

地方의 俗謠는 前記했듯이 昨今에 들어서 地域的 特性보다도 個人의 力倆에 의해 旋律이나 辭說이 나타나고 있기때문에 이상사디야의 全國的인 表現도 俗謠의 變化過程의 한 면으로 볼 수 있다.

◎ 모심가謠 (3)

이 는 배-미- 실-고-나- 서- 장-교- 배-미-로- 밭-에-가-서
 어-보- 시-오- 농-부-들- 배- 이- 배- 밭-을- 훑-어-보-소
 밭-을- 귀-는- 농-부-들- 아- 이-농- 배-미- 밭-에-삼-교
 장-교- 배-미-로- 밭-에-가-서- 우리- 밭-을- 훑-어-보-서

달떠온다 달떠온다
 월출동령에 달쫓아온다
 굽힌 허리 곧게펴고
 달맞이나 하여보세

모심기는 어찌할까
한쪽두푼 꽃더라도
정성으로 모를 심어
사배출을 기원하세

여보시오 농부들아
여기저기 꽃을때에
정성들여 꽃다보니
이논빼미 다심었네

저건너에 김서방네
모를심는 농부님네
어서빨리 모를심고
이리와서 저녁먹세.

〈辭說〉上記의 모심기謠는 朴氏(男, 76歲, 金南面 大坪里)의 歌唱을 採錄한 것으로 원래 燕岐面에서는 보이지 않고 錦山이나 全北 茂朱地方의 山間의 天水畝에서 農事를 지을 때 좁은 面積에서 많은 人員이 作業을 하기가 어려워 몇 사람만이 作業을 할 때 나타나는 노래로써 先, 後唱의 區別이 없이 한 사람이 正해진 旋律에 辭說을 붙여서 부르다가 힘이들면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이어부르기(連曲)의 形態이다. 이러한 이어부르기는 忠淸道에서는 錦山과 大德郡의 東面, 진잠, 산내 등에서 보이는데 이 노래를 歌唱한 唱者는 外地에서 배운듯 하다. 그 理由로 燕岐郡內에서 居住하는 많은 사람들이 歌唱하는 것을 보아도 連曲의 形態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上記와 같은 現象은 20~30年 前서부터 地方에 居住하는 많은 農民들이 時代의 變化에 따라서 移住가 잦고 또한 때에 따라서는 集團的으로 수십명씩 떼를지어 다니며 作業을 해주고 賃價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때에 이 地域에서 부르는 것을 記憶한 것인가도 모르겠다. 다만 唱者가 人的事項을 밝히기를 꺼려해 姓과 年齡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 모심기謡 (4)

♩. = 64 ~

심 - 어 - 보 - 세 - 어 - 서 - 나 - 심 - 어 - 보 - 세

이 - 눈 - 을 - 심 - 어 - 나 - 보 - 세 - 어 - 서 - 함 - 께 - 심 - 어 - 나 - 보 - 세

우 - 리 - 농 - 부 - 는 - 무 - 었 - 믿 - 고 - 사 - 나

이 - 눈 - 에 - 모 - 심 - 어 - 그 - 걸 - 믿 - 고 - 살 - 지

심어보세 어서나 심어보세
 이눈을 심어나보세
 어서 함께 심어나보세
 우리 농부는 무얼믿고 사나
 이눈에 모심어 그걸 믿고 살지

심어보세 어서나 심어보세
 이눈을 심어나보세
 어서 함께 심어나보세
 농사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근본이니
 이 농사를 잘지으면
 충성하는 일 아니겠소

〈解説〉上記의 모심기謠는 김태규 (男, 74歲, 조치원읍 정동리)의歌唱을 授録한 것으로써 旋律은 比較的 능숙하게 表現하고 있으나 唱者가 高齡에 있어서 辭說을 記憶하지 못하고 있었다.

地方에서 나타나는 俗謠는 그 整理가 時急한 課題로 되어 있으며 그 理由 中에 하나가 歌唱을 할 수 있는 技藝人이 거의가 高齡에 있어 記憶을 하지 못하며 앞으로 2-3年 내에 수 많은 俗謠가 技藝人의 自然淘汰와 함께 斷絶될 위기에 처해 있다.

◎ 김 매 기 謠 (1)

<해관> 열 려-려 살사-디-야 <밭요> 열 려-려 송-사 디-야
 여보 사 오 농작물-네
 사 내 팔-들-들어보-세



천하의 제일 아니겠소(얼렷렷 상사디야)
 이농사를 다지어서(얼렷렷 상사디야)
 사배출을 거두거둔(얼렷렷 상사디야)
 나라에도 충성하고(얼렷렷 상사디야)
 부모님께도 효도하세(얼렷렷 상사디야)
 효도란 것이 어떤것이뇨(얼렷렷 상사디야)
 마음가짐 바로하여(얼렷렷 상사디야)
 부모님께 아침문안(얼렷렷 상사디야)
 조석식사 정히차려(얼렷렷 상사디야)
 맛있게들 드시게 하고(얼렷렷 상사디야)
 낮이되면 눈에나가(얼렷렷 상사디야)
 열심으로 김을매서(얼렷렷 상사디야)
 풍년농사 이룩하여(얼렷렷 상사디야)
 선영봉제 한연후에(얼렷렷 상사디야)
 부모님을 모시며는(얼렷렷 상사디야)
 그도효도 아니런가(얼렷렷 상사디야)
 여보시오 농부님네(얼렷렷 상사디야)

우리같은 인생이야(얼렁얼렁 상사디야)
 농사밖에 더있겠나(얼렁얼렁 상사디야)
 열심히들 김을매세(얼렁얼렁 상사디야)

<解説>上記의 農謠는 박춘휘(남, 73歲, 조치원읍 평리)의 歌唱을 授録한 것으로써 旋律은 흔히 나타나는 상사디야의 旋律이나 辭說을 高齡에 있는 歌唱者가 比較的 상세히 口請하고 있었다. 이렇게 老齡에 있는 歌唱者들이 辭說이나 旋律을 잊지않고 있는 것은 몇 대를 이어오면서 한 곳에서 居住하면서 農事를 짓기 때문에 現場에서 創出되고 現場에서 記憶속에서 潛定的으로 反復되는 農謠의 特徵대로 늘 生活속에서 農謠를 接할 수 있기 때문이다.

燕岐郡의 경우에는 아직도 많은 農謠와 俗謠의 辭說이 調査되고 있었으며 이 地域은 아직도 오랜 地域의 土着住民들이 많이 居住하기 때문에 보인다.

◎ 김 매 기 謠 (2)



여보시오 벗님네야
 땀을낸다 한탄말게 (얼렁얼 상사디여)
 땀안내고 잘사는이
 부귀영화 모든권세 (얼렁얼 상사디여)
 단몇년을 못가지만
 우리농부 땀을내면 (얼렁얼 상사디여)
 대대손손 배불리고
 이땅에서 살아갈때 (얼렁얼 상사디여)
 누구라서 우리마음
 어느누가 알까보냐 (얼렁얼 상사디여)

<解説> 원완길(남, 78歲, 조치원읍 상동)의 歌唱을 授録한 前記의 農謠는 辭說이나 旋律이 特異한 形態이다. 旋律은 大體 先唱에 따라서 後唱이 받아지기 때문에 先唱이 한소절일때는 後唱도 한소절 先唱이 두소절이면 後唱도 두소절로 나타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農謠는 先唱은 두소절에 받음소리는 단순한 얼렁얼 상사디야로 받고 있다.

이러한 形態의 俗謠는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全國을 通해서 볼때 先後소리의 소절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歌唱者의 技藝力에 따른 特徵으로 볼 수 있다.

◎ 김 매 기 謠 (3)

♩. = 60.

<대곡> 잘 하오- 잘도-하-오 어려오- 손이 가- 잘도-하-오
 <받음> 잘 하-오 잘도-하-오 어려오- 손이 가 잘도-하-오
 <대곡> 어려 손이 가- 잘-하-오-오 어려오- 손이 가- 잘도-하-오
 <받음> 잘 하-오 잘도-하-오 어려오- 손이 가 잘도-하-오
 <대곡> 이농 사-를- 잘지-어-서 사배출-이 나거-들-랑
 <받음> 잘 하-오 잘도-하-오 어려오- 손이 가 잘도-하-오
 <대곡> 잘 하-오 잘도-하-오 어려오- 손이 가 잘도-하-오
 <대곡> 잘 하-오 잘도-하-오 어려오- 손이 가 잘도-하-오
 <받음> 잘 하-오 잘도-하-오 어려오- 손이 가 잘도-하-오

이농사를 잘지어서
사배출이 나거들랑

(잘하오 잘도하오
 에 헤요 산이가 잘도하오)
 막내딸년 여위울때
 혼수감을 장만하세
 (잘하오 잘도하오
 에 헤요 산이가 잘도하오)
 여보시오 농부들아
 이내말씀 들어나보게
 (잘하오 잘도하오
 에 헤요 산이가 잘도하오)
 우리 농부가 평생할일
 농사 밖에는 무엇이 있나
 (잘하오 잘도하오
 에 헤요 산이가 잘도하오)
 그럭저럭 지은농사
 풍년들기 어려워니
 (잘하오 잘도하오
 에 헤요 산이가 잘도하오)
 온갖 정성을 다들여서
 대풍년을 맞이하세
 (잘하오 잘도하오
 에 헤요 산이가 잘도하오)
 해는 중천에 솟아있고
 점심참을 내왔으니

(잘하오 잘도하오
 에헤요 산이가 잘도하오)
 이 논빼미 얼즌메고
 점심참을 하여보세
 (잘하오 잘도하오
 에헤요 산이가 잘도하오)

(解説) 上妓의 農謠는 김용태(男, 70歲, 전동면 송성리 287)의 歌唱을 採錄한 것으로써 忠南地方에서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김매기 農謠이다. 이 農謠는 忠南의 全體에서 旋律은 물론이려니와 辭說까지도 共通的인 面을 보이고 있어 매우 大衆化된 農謠임을 알 수 있다.

단지 唱者에 따라서 旋律上의 기교를 부리는 것이 特徵으로 나타나는데 이 農謠를 歌唱한 技藝人은 매우 능숙한 소리꾼임을 알 수 있다. 더욱 이 農謠의 辭說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過去의 政丞 判書로 나타나던 辭說 中の 名稱이 大學이나 官, 檢事 等으로 變化하였음은 俗謠의 特徵의 하나가 그 周圍의 環境에 따라서 旋律이나 辭說이 變化하게 되기 때문이다.

◎ 김 매 기 謠 (4)

♩. = 54~

<머리> 머리-어- 풀-노- 너- 어-루와- 술-음- 들-러- 파

<발소리> 발-소리- 어-러-어- 풀-노- 너- 어-루와- 술-음- 들-러- 파

<대답> 저기 가-는- 저자-녀- 아- 할라- 불-기- 어찌-로-가-나
 <받음> 에- 헤-에- 골앗-네- 에-루-화- 슬-슬- 들-러-라
 <대답> 농-사- 갖-기- 원-들-어-서- 우리- 농-부- 명-든-가-슴
 <받음> 에- 헤-에- 골앗-네- 에-루-화- 슬-슬- 들-러-라

곱기만한 그손으로
 시원하게 쓸어나주게
 (에헤에 골았네
 에루화 슬슬 들러라)
 들은체도 아니하니
 야속하고 원망스럽소
 (에헤에 골았네
 에루화 슬슬 들러라)
 바빠가는 걸음새보니
 어느놈이 기다리나
 (에헤에 골았네
 에루화 슬슬 들러라)
 우리농부 명든가슴
 그뉘라서 알아줄까
 (에헤에 골았네
 에루화 슬슬 들러라)
 저기가는 할머니는

손녀 있으면 사위삼소
 (에헤에 골았네
 에루화 슬슬 둘러라)
 사위랑은 삼고과도
 손녀어려 못삼짚네
 (에헤에 골았네
 에루화 슬슬 둘러라)
 여보시오 그런말 마오
 제비는 작아도 강남은 가고
 (에헤에 골았네
 에루화 슬슬 둘러라)
 작은고추 맵다하니
 혼례날자 잡고나 보세
 (에헤에 골았네
 에루화 슬슬 둘러라)

〈解説〉上記의 農謠는 忠淸南道 보다는 京畿道와 忠北地方에 많이 나타나는 農謠로써 燕岐郡이 忠北과 接해 있으므로 이 農謠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京畿地方에서는 김매기의 農謠가 초벌, 이벌, 세벌 때 各己 特徴적으로 나타나는데 비해서 忠淸道에서는 關係없이 必要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어 地域에 々々 區別이 되고 있다. 이 노래를 歌唱한 원완길(男, 78歲, 조치원읍 상동)은 오랫동안 忠北 淸原郡 江內面 정봉리(現 淸州市 정봉동)에 居住했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어 그 地域에서 부르던 것을 歌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牙山郡, 大田市, 唐津郡, 天安市 等에서도 간혹 이러한 旋律과 받음소리가 나타나고 있어서 比較的 京畿道の 影響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前記한 地域은 대개 安城에서 始原한 것으로 보이는 웃다리農樂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歌唱圈內에 屬한다고 볼 수 있다.

◎ 김 매 기 謠 (5)

♩. = 60.

<머리> 잘 하네 잘도 하네 일카덩이가 잘도 하네
 <발음> 잘 하네 잘도 하네 일카덩이가 잘도 하네
 <머리> 이 눈 내리며 이새며 고대음 - 눈도름 - 슬피름이 땀
 <발음> 잘 하네 잘도 하네 일카덩이가 잘도 하네
 <대곡> 먼기 만-환 - 놀베-미 가 변달 - 만-꿈 남았구 나
 <발음> 잘 하네 잘도 하네 일카덩이가 잘도 하네

네가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잘하네 잘도하네
 일카덩이가 잘도하네)

초생달이 반달이나
 우리임이 반달이지
 (잘하네 잘도하네
 얼카덩이가 잘도하네)
 가세가세 김매리가세
 어서나 빨리 김매리가세
 (잘하네 잘도하네
 얼카덩이가 잘도하네)
 이논빼미 매고나면
 장고배미를 매리가세
 (잘하네 잘도하네
 얼카덩이가 잘도하네)
 장고배미를 매다가보면
 점심참이 올것이니
 (잘하네 잘도하네
 얼카덩이가 잘도하네)
 점심참이 되거들랑
 굶었던 허리 피어나 보세
 (잘하네 잘도하네
 얼카덩이가 잘도하네)
 굶었던 허리 펼적에는
 담배도 한대 피워나 보세
 (잘하네 잘도하네
 얼카덩이가 잘도하네)

♩. = 96 ~

<아미고> 일 - - - 덩 어 리 <받은> 일 부 - 덩 어 리
 갈 - 가 - 알 어 리
 다 너 모 신 후 에 다 너 모 신
 미 도 - 다 - 다 너 모 신
 너 는 언 제 - 지 - 다 너 모 신
 소 회 - 돌 - 이 나 가 - 을 랑

나랏님께 석섬주고 (일카덩어리)
 선영제사 모신후에 (일카덩어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일카덩어리)
 처자권속 먹여살려 (일카덩어리)
 우리농부 할일이로다 (일카덩어리)
 어느누가 알아줄까 (일카덩어리)
 우리농부 애쓰는것 (일카덩어리)
 알아준다고 김을매나 (일카덩어리)
 충신되려고 김을매나 (일카덩어리)
 효자되려고 김을매지 (일카덩어리)

여보시오 농부님네 (얼카덩어리)
 받는소리가 작아지면 (얼카덩어리)
 힘도들고 목도타니 (얼카덩어리)
 얼씨구나 지화자종다 (얼카덩어리)
 자즌모리로 돌려나보세 (얼카덩어리)



〈解説〉上記의 農謠는 燕岐郡의 俗謠를 調査하던 中에 전동면
 노장리의 전동역 앞에서 몇분의 村老를 모시고 採錄할 때 그 곳에
 계시던 65歲 가량의 老人에게서 採錄한 것인데 現場에서 메모를
 하고 그 자리에서 採譜를 하는 方法을 택하는 本人의 부주의로
 人的事項을 적은 메모지를 분실하였다. 그 자리에서 함께 계시던
 분이 아니고 옆에서 보고 계시다가 歌唱을 하셨는데 김매기의 처
 음 過程부터 차츰 빨라져서 끝에는 쌈을 찐다고 하여 조금 남
 았을때 “얼카덩어리 “를 주고받으며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과

맨끝에 나온 것은 歌唱者의 說明으로는 김매기를 다 끝내고 호미를 씻으며 하는 農謠로 마무리 작업을 노래라고 하였는데 京畿道の 南部와 天安地方에서는 세벌매기때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같은 過程으로 보인다. 上記 農謠의 歌唱者는 매우 技倆이 뛰어난 技藝人이었으나 인적사항을 다시 알아보기 위해 두번이나 전동역 앞을 찾았으나 만나질 못했다.

앞에서 나타난 農謠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過去의 地域間의 差異로 分類되던 湖南地方의 섬세하고 女性的인 面과 嶺南地方의 호탕하고 男性的인 面 그리고 京畿地方의 경쾌한 面 등은 最近에 들어서 交通網의 發達로 인해서 거의 사라졌으며 더욱 移農으로 인한 住民들의 잦은 移民과 特히 現時代의 高度의 發達된 機械文明으로 인한 農事의 機械營農 方法 등으로 인해서 地域間의 特徵이 있던 農謠는 歌唱者의 力倆에 따라서 특징을 보이게 되었으며 現場(農事는 짓고 있으나 機械化에 의해서 노래를 부르는 現場은 사라진다.)의 消失로 인해서 地方의 農謠는 거의 불리워지지 않고 다만 몇 몇 技藝人의 記憶 속에 있음이 고작이다.

우리는 이 地方에서 庶民들의 生活과 함께 現場에서 歌唱되고 記憶되어 있다가 現場에서 再創出되는 수 많은 俗謠를 하루 빨리 整理, 保存하지 않으며 머지않아 大衆의 限의 소리이고 興의 결정체인 많은 소리는 그 흔적조차 없다는 점을 깊이 통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現在의 高度의 文明이란 過去라는 母體가 있어야만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내 소리를 잊고 남의 소리 속에서 산다면 뿌

리없는 民族은 五千年의 찬란한 文化遺産 云云 해가며 말하기엔 낫 뜨거울 뿐이다. 더욱 우리의 俗謠는 現場性이 強해 現場을 잃는다는 것은 곧 이 時代에 傳해지는 体系的인 많은 民謠가 그리하듯 하나의 共演藝術을 위한 소리로 變質되어 버릴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흔히 地方에서 나타나는 俗謠를 보고 總稱 民謠라고 하지만 民謠와 俗謠는 本質的으로 다른 特徵을 보이고 있으며 民謠의 母體는 俗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기에 体系化된 民謠의 보급에 앞서 우선적으로 俗謠의 發掘, 整理, 保存이 時急한 實情이다.

民謠와 俗謠는 그 本質에서는 같으나 演戲場所, 特徵, 傳授方法 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俗謠가 어느 時期엔가 体系的으로 整理된 것이 民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民謠와 俗謠는 區分이 지어지는데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旋律의 比較〉

民謠는 体系的인 方法에 의해서 傳授가 되기 때문에 몇 사람을 거쳐도 個人的인 特徵보다도 全體的인 흐름을 同一하게 나타내고 있으나 俗謠의 경우에는 唱者마다 自身の 力倆(旋律의 暗記와 表現力)에 의해서 各己 特徵있게 表現되기 때문에 個個人이 하나의 노래를 保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辭說의 比較〉

民謠는 体系的으로 한번 정해진 辭說은 거의 變化되지 않고 傳해지나 俗謠는 정해진 辭說이 없이 歌唱者가 그때 그때 必要的 語句를 구사하기 때문에 各者의 辭說이 다르게 나타나며 심지어

는 同一人이 歌唱을 해도 부를 때 마다 辭說의 變化가 오기도 한다.

〈傳授方法〉

民謠는 一定한 장소(學院이나 강습소 등 室內에서 주로 傳授된다.)에서 같은 長短에 맞추어 同一한 辭說과 旋律을 先技能人에게서 한마디씩 따라서 배우나 俗謠는 삶의 現場(논, 들, 山, 墓等)에서 歌唱者의 소리를 潛定的으로 記憶하고 있는 狀態에서 必要時에 歌唱하는 것으로써 恒常 變化하게 마련이다.

〈演戲場所〉

民謠는 共演을 할 수 있는 舞台가 꾸며진 곳에서 觀客을 위해서 演戲가 되나 俗謠는 生活 그 자체로써 살아가기 위한 必然인 場所에서 스스로의 소리로 나타난다.

〈其他〉

民謠는 大개 娛樂的인 것으로써 興을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俗謠는 人間의 生老病死와 作業을 위한 것으로 興보다는 限이 위주로 되어 있어 民謠와 俗謠는 區別되어 진다.

昨今에 들어서 많은 地方의 俗謠가 文化財로 指定되면서 民謠化하고 있으나 現場性이 강한 俗謠는 그 自体가 무대 공연물이 되면서부터 現場性의 결여, 体系的인 傳授, 個人의 特徵的인 歌唱力이 衰退 등으로 인해 윤색되고 분칠이 되어 있어 진정한 庶民의 삶의 現場에서 불리워지던 俗謠 그 本質의 保存이 時急한 實情이다.

(2) 婦女謠

內房歌謠 或은 閨房歌謠라고 稱하는 婦女謠는 俗謠 中에서 가장 넓은 領域에서 共通的인 面을 띠우고 있다. 즉 이 婦女謠를 보면 地域이나 唱者에 關係없이 辭說이나 旋律이 全國적으로 共通으로 나타나는데 그 理由는 婦女子들의 삶은 全國 어디서나 共通的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 한 理由는 韓國의 婦女子들의 지나온 歷史 속에서의 生活이라는 것은 自由롭지 못하고 表出할 수 없는 가슴속의 응어리였기 때문에 대개 입 속에서 응얼거리듯 모든 노래를 부른 理由 때문이다.

婦女謠는 어느 地域이나 同一하게 多樣하지 못한다 特히 忠淸南道 地方에서는 他地에 比해 婦女謠는 調査가 어려운 實情이다. 그 理由는 忠淸道라는 地理的인 特性이 예부터 兩班道라고 稱해지고 있어서 婦女子들의 外出이나 모임을 엄격히 禁止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며 庶民層의 婦女子들의 共通的인 이야기가 시집살이가 고되다 하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表現하지 못했으며 過去의 生活이란 것이 삶을 꾸려가기도 급박한 時間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婦女謠는 自嘆歌의 一種인 시집살이謠와 作業謠인 베틀가, 물레타령, 그리고 兒童謠인 자장가와 弄戲謠가 있다.

시집살이謠의 경우에는 두가지가 있어 첫째는 시집의 식구들을 나쁜 사람들로 빗대어 말함으로써 스스로의 분을 푸는 方法의 辭說이 있고 둘째는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형이 있다.

베틀가의 경우에는 最近에 民謠의 影響을 받아서 불리워지는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의 후렴으로 나

타나는 節이 나뉘인 形態와 “월궁에 놀던 선녀”로 始作하는 節이 없이 口述式으로 부르는 形態가 있으며

물레타령은 거리가 물레질을 하면서 情人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辭說로 表現하고 있으나 이 물레타령은 거의 調查가 되지 않고 있다.

戲兒謠의 경우에는 자장가와 애어르는 소리의 두 가지로 區分된다.

◎ 시집살이謠(1)



시집이라 하는 것은
 죽지못해 사는것이니
 동생동생 사촌동생
 시집살이 묻지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말만들어 눈물난다

앞밭에는 고초심고
 뒷밭에는 당초심어
 고초당초 맵다한들
 시집보다 더매우라
 곰의웅담 돼지쓸개
 시집보다 더쓰겠나
 시집이라 하는 것은
 고되고도 어려우니
 동생동생 사촌동생
 이내말을 들어보련
 호랑이가 무섭단들
 시아버지 더무섭고
 시어머니 양칼진것
 고양이아 이겨낼까
 시누이년 요사한것
 불여우가 둔갑하고
 서방녀석 미련한것
 곰보다도 더한데다
 아이새끼 하나있어
 울고불고 재촉할때
 애고애고 시집살이
 어찌어찌 보내려가

〈解説〉上記의 시집살이謡는 김분례(女, 68歲, 서면봉암리)의
 歌唱을 採録한 것으로써 흔히 全國的으로 나타나는 婦女謡의 共

通的인 辭說의 하나이다. 旋律은 어느 곳이나 그러하듯 邑속에서 口誦하고 있었으며 唱者가 高齡에 있어 辭說을 제대로 記憶하지 못해 몇 번이고 中斷되었으며 周圍의 할머니들이 여러번 함께 이야기하며 되풀이한 다음에라야 整理할 수 있었다.

어느 곳이나 그러하듯 地方에서 나타나는 俗謠 中에서 婦女謠의 경우에는 時代가 變化하면서 過去와 같이 集團으로 모여서 生活하는 것이 아니고 核家族化 되어 있어서 어려운 시집살이를 하던 環境이 變化하였기 때문에 自然衰退된 것으로 보인다.

◎ 시집살이謠 (2)

♩ = 54.~

형님 동가 - 형님 온다 - 문고 깨물 - 형님 온다 -
 시집 동가 - 살년 만여 - 포개 얹어 - 형님 온다 -
 형님 마중 - 누워-불까 - 형님 온성 - 대가-가자 -
 형님 형님 - 사옹- 형님 - 시집 살이 - 이애-동가 -

동생동생 사촌동생
 시집살이 묻지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어렵고도 고되더라
 호랑이같은 시아범은

하고한날 불호령에
밥맛없다 투정하고
동구밖의 주모년과
허구헌날 술타령에
집안팍의 처뜨리고
승냥이같은 시어멈은
우리집을 며늘아기
천하에서 제일못돼
속터진다 가슴치며
동네방네 다니면서
온갖흥을 다보는데
미련하기 그지없는
곰과같은 서방놈은
세상살맛 없다하며
기생방에 드나들며
온갖재산 다날린후
집구석에 처박혀서
여우같은 시누이년은
나이서른 다되도록
시집까지 못가면서
메주같은 상판에다
온갖치장 해보며는
누구하나 거들떠보나
소용없는 짓이거늘

하고한날 면경앞서
 얼굴에다 찍어발러
 온집안이 화장내니
 숨이콰콰 맥히는데
 그나저나 위안거린
 나이어린 서방님이
 형수형수 우리형수
 고생살이 어찌하오
 형수위로 한답시고
 온갖시중 다하시니
 시집살이 개집살이
 어느세월 지났구나

〈解説〉上記의 노래는 前記한 婦女謠인 시집살이謠와 같은 場所에서 採録한 것으로써 여러 사람이 함께 口述式으로 이야기하며 整理한 辭說이다. 이러한 俗謠의 特徵은 傳授過程에서 歌唱者의 力倆이 最大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써 一個人의 能力을 알 수 있는 資料이자 過去의 婦女子들의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피부로 接할 수가 있는 하나의 좋은 方法이다. 過去의 시집살이는 흔히 병어리 三年, 귀머거리 三年, 소경 三年이라고 하여 어려운 시집살이를 쉽게 알 수 있는 內容이다.

이 시집살이謠의 辭說은 서로 內容이 뒤바뀌는 形態로써 나타나는데 比較的 그 內面의 內容은 共通의 面을 띠우고 있다. 다음에 紹介되는 辭說을 보아도 그 內容은 前記한 시집살이謠 1,2의 辭說과 同類의 것임을 알 수 있다.

형님온다 형님온다
 분고개로 형님온다
 형님마중 누가갈까
 형님동생 내가가지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땡드냐
 이애이애 그말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심어
 뒷밭에는 고추심어
 고추당추 맵다지만
 시집살이 더맵더라
 등글등글 수박식기
 밥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
 수저놓기 어렵더라
 오리물을 길어다가
 십리방아 찼어다가
 아홉술에 불을때고
 열두방에 자리걸고
 외나무다리 어렵데야
 시아버지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데야
 시어머니 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지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서하나 할림새요
시누하나 뽕죽새요
시아즈범 뽕룽새요
남편하나 미련새요
자식하나 우는새요
나하나만 썩는썰썰
귀먹어서 삼년이요
눈어두어 삼년이요
말못해서 삼년이요
석삼년을 살고보니
배꽃같은 요내얼굴
호박꽃이 다되었네
삼단같은 요내머리
비사리춤이 다되었네
백옥갈던 요내손길
오리발이 다되었네
열폭무명 반물치마
눈물씻어 다젖었네
울었던지 말았던지
벼게넘어 소이졌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한쌍 오리한쌍
쌍쌍히 떠들어 오네

◎ 시집살이謠 (3)

♩ = 80

시집 간 지 - 수를 만어 - 저문 허마 - 벗기 놓고 -
 뒤주 뚜껑 - 열어 보니 - 거미줄이 - 서려있네 -
 호미랑은 - 옆에 차고 - 대바구니 - 손에 들고 -
 문밖으로 - 썩나서니 - 우리발이 - 어데 멘가 -
 앞집아가 - 뒷집아가 - 우리발이 - 어드메냐 -
 저산너머 - 자갈밭이 - 그집밭이 - 전부라오 -
 우리논은 - 어드메냐 - 저건너편 - 저논이요 -
 구르듯이 - 내달아서 - 선보리는 - 제쳐놓고 -

뒤주뚜껑 열고보니
 거미줄이 서려있네
 호미랑은 옆에차고
 대바구니 손에들고
 문밖으로 썩나서니
 우리발이 어데멘가
 앞집아가 뒷집아가
 우리발이 어드메냐
 저산너머 자갈밭이
 그집밭이 전부라오
 우리논은 어드메냐
 저건너편 저논이요
 구르듯이 내달아서
 선보리는 제쳐놓고

익은보리 가려내어
한번씻쳐 두번씻쳐
삼세번을 씻은후에
정성들여 지어놓고
앞집아가 뒷집아가
미나리밭 어디메냐
저기저기 저산밑에
시구창이 그밭이요
쓴미나리 제쳐놓고
단미나리 꺾어다가
끓는물에 데쳐내어
고사리국 끓여놓고
시아버지 진지잡수
개돼지나 먹는음식
시아버지 봉양이나
너나갓다 다떡거라
시아머니 조반드슈
새며느리 맞이하여
석삼일이 지났으면
금은패물 내다팔아
고기국은 못끓여도
산해진미 있건마는
보리밥에 미나리국
일없으니 내어가라
시아즈범 진지잡수

동구밖의 김서방떡
새로생긴 제수씨는
씨암닭에 산채로다
첫밥상을 차려내어
동리방리 손님불러
온갖잔치 벌렸더니
배불러서 생각없소
동서님아 동서님아
어서나와 진지잡수
옛날옛날 오래전에
시집와서 첫조반을
산해진미 가득차려
손윗동서 드렸더니
보리밥에 미나리국
역겨워서 못먹겠네
여보시오 서방님네
어서와서 밥자시오
들은체도 아니하고
돌아누워 버리누나
어찌살꼬 어찌살꼬
서러워서 어찌살꼬
산너머에 자갈밭에
벗짚단을 베게삼아
자는듯이 누웠구나
뒤는게안 시집식구

애고애고 며늘아가
 시집은지 삼일만에
 죽음으로 가는구나
 애고애고 서러워라

〈解説〉上記의 시집살이謡는 박말순(女 62歲 金南면 대평리)의
 歌唱을 採録한 것으로써 旋律이 있기 보다는 冊을 읽는듯한 口
 誦이었다. 採録 當時에는 老齡에 있는 唱者들이 長短도 알리 없
 고 더욱 內房歌謡는 혼자서 시집식구를 대놓고 욕을 하거나 헐
 뜯는 內容으로 남이 듣기를 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
 해진 旋律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上記의 시집살이謡는 前記한 1, 2와는 달리 시집은지 삼일만
 에 목숨을 끊는 이야기인데 시집살이謡는 전기 1, 2의 공격형
 과 3의 自殺形으로 區分된다. 이 시집살이謡는 忠淸南道의 전역에
 서 거의 同一한 解説과 旋律이 나타나고 있어 身分이나 地域
 에 關係없이 婦女子들이 生活이 힘들고 어렵다는 점에서 共通의
 인 느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베틀 노래 (1)

♩. = 54 ~

월궁 거- 돌만 선-너 오늘도 하 심-심 하면
 하늘 어-다 베틀을 고 베틀 어-나 돌아나볼까

앞다리는 높게놓고
 뒷다리는 짧게놓고
 동남간에 잉아걸고
 베틀놀이 하실때에
 잉아대는 삼형제요
 눈썹노리는 두형제요
 놀름대는 독신인데
 이내몸도 독신이요
 맵당이 소리는
 구시월 새단풍에
 왕가랑있 소리같고
 꼭두마리 우는소린
 어미잃은 외기러기
 북녘하늘 찾아가며
 슬피우는 소리같고
 월궁선녀 베틀짚때
 바디집을 치는소리
 봉황새가 체짜잃어
 울부짖는 소리같아
 밀때막대 넘나들 때
 세월죽히 가는도다

〈解説〉上記의 베틀노래는 김분례(女, 68歲, 서면 봉암리)의
 歌唱을 採録한 것으로써 婦女謠의 대개가 그러하듯 旋律은 特徵
 的인게 없이 단순한 口述式의 形態를 취하고 있었다. 흔히 이 베틀

틀노래는 過去의 婦女들이 부르는 소리와 最近에 들어서 베틀가의 影響을 받은 베틀노래의 두 種類로 나타나고 있다.

이 베틀노래는 辭說이 比較的 整理되고 있으며 흔히 忠淸地方 에 서 共通的으로 불리는 노래이다.

◎ 베틀노래 (2)

♩. = 68 ~

오늘은 하아 심심하니 베틀 - 지나 - 놓아나 볼까
 언덕 - 지는 높게 - 놓으 - 줘야 - 미운 - 날까 - 놓코
 어 우으 으 으 베짜는 바깥에 수줍노래 베틀에 수줍-만 지녀

낮에짜면 일광단이요
 밤에짜면 월광단인데
 일광단은 다짜내어서
 우리 서방님 옷이나 짓고
 월광단은 다짜내어서
 우리서방님 도포나 짓세
 에헤요오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십만 지누나

잉아대는 삼형제요
 눈썹노리는 두형제인데

이내몸은 독신이니
건너집 도령님
장가나 오소
에헤요오 배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노라

한양가신 우리임은
꽃이피면 오신다더니
앞이지고 눈이와도
돌아올날 그 언제런가
에헤요오 배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누나

〈解説〉前記의 베틀노래는 윤순희(女, 52歲)의歌唱을採録한 것으로써 民謡베틀가에서 나온 흔히 불리는 노래이다.

이 베틀노래가 民謡와 틀린 것은 俗謡의 特徵은 唱者의 技藝力에 따라서 旋律이나 辭說의 表現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民謡 베틀가와 같이 정해져 있지 않고 歌唱者에 따라서 부를때마다 旋律이나 辭說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上記의 베틀노래는 흔히 나타나는 旋律이나 辭說인데 民謡가 대개 專門的인 歌唱의 技藝人들에 의해 불리워지기 때문에 恒常 同一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 俗謡의 베틀노래는 現場性이 강한 노래로써 潛定的인 記憶 속에서 外部로 表出되기 때문에 歌唱者의 力倆에 따른 特徵을 보이고 있다.

◎ 물레타령 (1)



저기저기 저도령님
 저리도 잘났거든
 우리택에 막내아씨
 시집이나 보내려나

물레야 돌아라
 뱅뱅뱅 돌아라
 이물레질 하고나면
 우리님이 오신다니
 원앙금침 곱게펴고
 광단치마 분홍적삼
 곱게벗어 개켜놓고
 서방님만 기다리네

물레야 돌아라
 뱅뱅뱅 돌아라
 어서어서 돌고돌아
 물레질을 마친후에

뒷집아기 앞집아기
 모두모여 환담할 때
 뉘집도령 잘났던가
 서방이나 삼고보세

〈解説〉上記의 물레타령은 흔히 民謡 물레타령의 영향을 받은 旋律임을 알 수 있다. 歌唱者이점례(女, 49歲, 전의면 읍내리)는 比較的 俗謡를 口誦하는 年齡으로는 年下로써 民謡의 影響을 받아서 나름대로 부른듯 하다.

◎ 물레타령 (2)



오로롱 오로롱 갖는물레
 어서나 뱅뱅 돌아라
 서울가신 우리님이
 달이뜨면 오신다니
 어서돌아 달뜨거든
 임마중이 아니더냐
 달마중도 아니더냐

〈解説〉上記의 물레타령은 윤순희 (女, 52歲, 연기군조치원읍)의歌唱을 採録한 것인데 旋律은 忠淸地方에서 간혹 보이고 있으나 辭說은 보기 힘들다. 이러한 婦女謠는 現代의인 것이 自嘆歌인 시집살이 노래와 作業謠인 물레타령 베틀노래가 있으나 現在의 環境이 核家族化 되었기 때문에 過去와 같은 엄한 시집살이가 없으며 作業謠인 물레타령이나 베틀노래도 過去 家內에서 手工에 의해서 나타날때는 作業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많이 불리워졌으나 昨今에 들어서서는 대단위의 工業化로 되어 現場을 잃게되자 自然淘汰 되고 말았다.

이러한 婦女子들의 노래인 內房歌謠는 단순히 속에 품은 限이나 연민만을 노래한다고 보기 보다는 그 內的인 面이 지니고 있는 어려움을 이기는 슬기가 담겨있기 때문에 더 貴한 價値를 지니는 것이다.

現在에 들어서 舊習이라고 도외시하고 西歐文物에 매료된 現代의 女性에게는 찾을 수 없는 內의 미덕은 바로 이 內房歌謠를 부르면서 은연중에 생긴 習性으로 보여지며 이 노래를 잃은 現代의 女性들은 과연 얼마나 心美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過去의 女性들처럼 깊은 가슴속에 情感어린 이야기를 지니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舊習이라고 하여 무조건 排斥하기 보다는 그 속에서 멋을 찾고 女性스러움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이라고 본다.

(3) 儀式謠

儀式謠는 대개 人間이 죽어서 喪輿가 나갈 때 부르는 行輿歌와 故人的 幽宅을 마련할 때 塋분을 다지며 부르는 회단이 소리(달고질노래, 회방아타령) 그리고 民俗놀이에서 나타나는 告祀德談과 回心曲 등을 들 수 있다.

이 儀式謠는 辭說은 全國적으로 同一하게 나타나며 메김소리나 받는소리의 旋律이 약간씩 變化하는데 대개는 人間이 죽어서 家族과 離別하고 永遠한 길을 가는 서운함과 離別의 슬픔, 그리고 저승을 가야하는 두렵고 침울함을 이야기하는 行輿歌와 영원토록 잠을 자는 墓(幽宅)가 明堂이길 바라며 그 明堂의 陰德으로 後孫이 富貴功名을 얻길 바라는 달고질노래 그리고 年初에 벌어지는 地神밧기나 八月의 거북놀이 등의 대청곳에서 나타나는 告祀德談이 있다.

이 儀式謠는 대개 巫歌(巫經)의 帝釋풀이 明堂經, 地神經, 城主經 등에서 辭說과 密接한 關係를 지니며 나타나고 있으며 前記한 農謠도 告祀德談에서 引用하고 있다. 儀式謠에서 나타나는 辭說과 農謠의 辭說이 巫歌나 巫經과 密接한 關係를 지니는 것은 先史時代의 祭天儀式은 “굿” 이고 이 굿은 農作에 關한 것이며 그 굿이 傳해지면서 周圍의 影響으로 外部의 信仰과 연관이 지어지자 자연 같은 脈을 지니는 儀式謠와 相互 關係가 지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燕岐에서 나타나는 儀式謠를 紹介하기에 앞서 燕岐地方에서 口誦되는 巫經 中에서 農謠와 儀式謠와 密接한 關係를 보이는 經文의 辭說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告 祝 德 談

天開의 子하고
地闢이 丑하니
一大國이 생겨날때
陰과陽의 調和로다
日光은 陽이되고
月光은 陰이되니
山之祖宗은 崑崙山이요
水之祖宗은 黃河水라
人之祖宗은 順德이요
國之祖宗은 大韓國이니
崑崙山 一枝脈이
이낭맥에 뚝떨어져
三角으로 내려설때
학을눌러 大闕짓고
大闕앞에 六曹로다
六曹앞에 五營門이요
五營門前 三角山인데
各道各邑 마련하니
仁旺山이 主峰되고
南山이 案山이니
左靑龍은 東丘재요

右白虎는 萬里재라
 果川 冠岳山은
 名氣가 흘러드니
 冠岳山 水口막아
 東赤江은 潮水되니
 一大國을 建國하니
 大韓國이 생겼어라
 南鮮으로 내달으니
 海東有明은 朝鮮國인데
 京畿같은 政丞네는
 三十七官 마련하고
 全羅道와 江原道는
 二十六官 마련터니
 慶尙道라 접어들어
 五十六官 마련하고
 어느곳이 名地인가
 어느곳이 明堂인가
 忠淸道로 접어들어
 五十三官 마련하니
 이宅面內 宅面內
 이宅洞中 宅洞中
 千秋萬歲 굽으실 때
 이宅 家中前에
 大主 몸살 세다하니
 몸살이나 풀고가자

殺 풀어서	解喪煞
解喪 벗어	掾喪煞
掾喪 벗어	脫喪煞
夫婦之間	離別煞
父子之間	不傳煞
內外之間	空房煞
一家親戚	不睦煞
이웃간에	不和煞
나라님께	不忠煞
부모님께	不孝煞
洞里坊內	不淨煞
婚姻葬死	酒滄煞
산에 올라	山神煞
고개중턱	城隍煞
길로내려	落傷煞
들로나가	野菜煞
물에들면	龍王煞
바깥나면	벼락煞
안마당에	戲弄煞
부엌안에	竈王煞
뒤뜰에는	塋主煞
마루대청	城造煞
안방에는	三神煞
시렁위에	祖上煞
헛대끝에	帝釋煞

大門으로 썩나가서
 大門에는 守門煞
 뒤뜰돌아 추녀煞
 추녀끝에 落水煞
 굴뚝밑에 火神煞
 距里路中 落傷煞
 왼갓厄煞 들었으니
 왼갓厄煞 풀고가자
 글란그리 하려니와
 모든厄煞 막았으니
 日月이라 帝釋님네
 命과 福이나 發願하자
 日月이라 帝釋님이
 海東으로 나오실때
 天軍天兵 옹위받아
 호기 좋게 오시는데
 億非蒼生 萬民들의
 當貴貧賤 點指次로
 朝鮮으로 나오실때
 앞바다도 열두바다
 뒷바다도 열두바다
 二十四江 막혀있어
 건너설길 막연구나
 건너설길 가이없어
 이리저리 살펴보니

어느배를 타야하나
 木造船을 타자하니
 나무배는 썩어지고
 石造船을 타자하니
 돌배는 가라앉고
 土造船을 타자하니
 흙토선은 풀어지고
 鐵造船을 타자하니
 무쇠배는 달라붙고
 首陽山으로 치달아서
 앵무공작 깃늘이던
 버들잎을 주룩흠어
 柳葉船을 지어타고
 앞에는 靑旗꽃고
 뒤로는 紅旗꽃아
 明珠바람 세솔풍에
 와작직끈 건너서서
 二十四江 바삐건너
 한곳에 當到하니
 이곳이 어디메냐
 海東은 大韓國
 忠淸南道 燕岐郡 〇〇面 〇〇里
 〇氏家中 찾아들어
 人間五福을 點指할 때
 왼갓福이 모여든다

구름福은 넘어들고
 안개福은 스며들고
 물길福은 흘러들고
 바람福은 불어들고
 쪽제비업은 뛰어들고
 동자업은 걸어들고
 구렁이업은 기어들고
 부엉이업은 날아들고
 도야지업은 몰려들어
 모든업이 모였으니
 七星님의 發願으로
 子孫昌盛 하여보자
 上男에 서방님
 中男에 도령님
 下男에 童子아기
 무릅밑에 女子아기
 어깨넘어 길동자
 한땀줄에 點指시켜
 있는아기는 壽命長壽
 없는아기는 點指發願
 긴命은 서러담고
 짧은命은 이어담아
 子孫昌盛 發願할때
 어떤發願 하였드나
 나라에는 忠臣되고

父母에겐 孝子 되고
 兄弟間엔 友愛 있고
 一家親戚 和睦 하고
 이웃간에 貴童子로
 무럭무럭 자라날 때
 二年만에 起就 하니
 王侯獎相 步法 이요
 三年만에 口辯 여니
 蘇陳張義 口辯 이라
 四五歲에 入學 시켜
 文筆功夫 시킬 때에
 李太白의 文章에 다
 王羲之의 筆法에 다
 四書五經 금시 떼고
 小學大學 論語孟子
 순식간에 통달한後
 禮書春秋 마치더니
 天地風雲 造化述도
 能通하게 마치신後
 世上에 出世 하니
 첫번째로 한림 학사
 六曹判書 都丞旨에
 左右政丞 지내놓고
 一人之下 萬人之上
 領議政에 올랐으니

거리마다 頌德碑요
 洞里마다 善政碑비
 근들아니 좋으리까
 太平治國 하실 때에
 天下之大本 農事로다
 農事한철 짓고보자
 앞뜰에는 千秭지기
 뒤뜰에는 萬秭지기
 물길 좋아 고래실에
 天水바래기 봉천지기
 乾畝水畝 갈라놓고
 農事를 지을적에
 벼농사를 지어보자
 어떤벼를 심었더냐
 알록달록 까두리찰
 옥심많아 돼지찰
 감실거려 다마금
 채문좋은 금벼에다
 빛깔좋은 은방도
 키가작은 앓은뱅이
 먼저먹자 六月벼
 豐年들어 豐玉이여
 들모르는 하나벼
 黃州分院에 양품벼
 ??州利川에 자체벼

金堤萬境에 사밭벼
 왼갓벼를 기를적에
 品種 좋은 볍씨골라
 여기저기 뿌려놓고
 천석지기 뿌려놓고
 三倍出을 祈願하고
 만석지기 뿌려놓고
 四倍出을 祈願할때
 大豊年이 들었구나
 터전 좋은 땅을골라
 밭농사도 지어보자
 높은데를 깎아다가
 낮은데를 채워놓아
 네모반듯 닦은후에
 어느것을 심었드냐
 봄보리며 가을보리
 옥모보리 심은후에
 苦草糖礎 南方草에
 참깨들깨 심어놓고
 봄팥가을팥 심었으니
 콩농사도 지어보자
 성내어서 푸르대콩
 방정맞은 주더니콩
 올콩졸콩 질금콩에
 만리타향 강낭콩

獨守空房 홀애비콩
 二八青春 각씨동부
 두툼백이 兩主夫妻
 외툼백이 홀어미콩
 세툼백이 三兄弟콩
 여기저기 심어놓고
 기장, 수수, 감자, 조, 밀
 온갖雜食을 심었더니
 歲月이 如流하여
 大豊年이 들었구나
 장달이같은 중놈들은
 조부랑 낫을 지게에 꽃고
 이리로 걸어 저리베고
 저리로 걸어 이리벨때
 지게에다 저들이니
 앓다그것 못쓰겠다
 양태바리로 저들어서
 앞뜰에도 千秬露積
 뒷뜰에는 萬秬露積
 가득가득 쌓아놓고
 앵무같은 중년들은
 또아리받쳐 저들이니
 앞노적을 大主露積
 뒷노적은 地主露積
 가득가득 쌓였드니

난데없는 豊年鳥가
 한낱개를 툭탁치니
 一二千石 불려주고
 또한날개 툭탁치니
 一二萬石 불렀으니
 근들아니 좋으리까
 萬石巨富 되었으니
 집안治裝도 하여보자
 互家草家 줄行廊을
 入口字로 지어놓고
 龍의머리 터를닦고
 鶴의머리 柱礎놀때
 仁義禮智 立柱하고
 三綱으로 大樑엮고
 八條木으로 도리하고
 六十四卦 석글걸고
 三百八十四?? 로다
 날날이 散子열고
 五十土로 새를막고
 人蔘으로 구돌놓아
 不老草로 蓋草할때
 천년기와 만년굴피
 이리저리 올려놓고
 艮字窓의 가로달이
 秋菊黃色 分明하다

층층누락 초현다락
 治裝이 현란한데
 房안治裝 불작시면
 房안治裝 더욱좋다
 올려보니 소래반자
 굽어보니 각장장판
 강유지 굽도리며
 書畫附壁 立春祝은
 萬古才土 숨씨로다
 堂上子孫 千年壽요
 膝下子孫 萬歲榮이라
 燕合五福은 自南來요
 雁貧三災는 向北去라
 역역히 붙어있고
 東壁을 바라보니
 渭水江에 太公先生
 周文王을 보라하고
 곧은낚시 물에넣고
 엄연히 앉아있고
 南壁을 바라보니
 詩中天子 李太白이
 채석강중 明月下에
 한잔술에 興이올라
 물속에 잠긴달을
 잡으려고 손을젓고

(中略)

글란그리도 하려니와

今年새해 접어들어

달거리가 세다하니

달거리나 풀어보자

正月에 드는厄은

二月영등 막아주고

二月에 드는厄은

三月이라 삼짓날에

江南제비 맞이하던

명맥이로 막아주고

三月에 드는厄은

四月이라 初八日에

釋迦世尊 부처님에

觀燈으로 막아주고

四月에 드는厄은

五月端午 그네타던

그네줄로 막아주고

五月에 드는厄은

六月이라 六月流頭

菖蒲잎이 막아주고

六月에 드는厄은

七月이라 七夕日에

견우직녀相逢時에

烏鵲橋를 떠받치던

까막까치 막아주고
 七月에 드는厄은
 八月이라 한가위에
 반달송편 막아주고
 八月에 드는厄은
 九月이라 重九일에
 菊花酒로 막아주고
 九月에 드는厄은
 十月이라 上달인데
 무시루떡 막아주고
 十月에 드는厄은
 冬至달 冬至일에
 冬至팥죽 정히쑤어
 오는雜鬼 가는雜鬼
 붉은팥죽 막아주고
 冬至에 드는厄은
 竈달이라 그믐날에
 흰떡가래 막아주고
 竈달에 드는厄은
 내년正月 열나흘날
 오곡밥을 정히지어
 방망이 맞은 북어대가리
 백지한장에 둘둘말아
 막걸리한잔 척 끼얹어
 원주원강에 소멸하니

萬事는 大吉이요
百事는 如一하니
마음가짐 잡순대로
所願成就 發願이라

◎ 城主 풀이

(前略)

한明堂이 떨어져서
함경도 白頭山은
두만강이 둘러있고
한明堂이 떨어져서
平安道 妙香山은
大洞江이 둘러있고
한明堂이 떨어져서
黃海道 九月山은
細流江이 둘러있고
또한明堂 떨어져서
京畿道 三角山은
漢江이 둘러있고
한明堂이 떨어져서
忠淸道라 鷄籠山은
錦江이 둘러있고
한明堂이 떨어져서
慶尙道라 太白山은

낙동강이 둘러있고
 또한明堂이 떨어져서
 全羅道라 智異山은
 동진수가 둘러있고
 (中略)
 한明堂이 떨어져서
 忠淸南道 燕岐郡
 ○○面 ○○리에 當到하여
 ○氏宅 한家中에
 이明堂이 생겼구나
 뒷쪽산을 바라보니
 관우장비 춤을추고
 앞산을 바라보니
 석가여래 잠을자니
 明堂임이 분명구나
 左靑龍, 右白虎, 南朱雀, 地玄武
 四星이 뚜렷하니
 고관대작이 날 明堂이요
 老人峰이 뚜렷하니
 白髮堂上 모실터요
 子孫峰이 層졌으니
 膝下子孫 萬歲榮이라
 文筆峰이 盛大하니
 文章才士 날것이요
 아들아기 낳으며는

孝子忠臣 불것이요
 딸아기를 낳으며는
 烈女孝婦 날것이라
 종이나면 충충효비에다
 소가나면 약대가나고
 말이나면 龍大馬요
 개가나면 사지보구
 닭이나면 鳳鷄낭고
 물이나면 將軍水
 흙이나면 경명주사
 풀이나면 還生草니
 이런明堂 어디있나
 (以下 省略)

◎ 帝 釋 經

(前略)

明堂을 찾을 때에
 어떤明堂 구하리요
 금가래에 금줄매고
 은가래에 은줄매고
 놋가래에 놋줄달고
 무쇠가래 짚줄달아
 높은데는 밀어다가

낮은데를 채워놓고
아랫동네 윗동네
지경꾼을 불러들여
지점을 다지는데
지경맞는 거동보소
일세로다 동방인데
봉황한쌍 물혔구나
봉의머리 다치겠다
가만가만 다져주소
에라 지경이요
어허라 지경이다
이세로다 남방인데
청룡한쌍이 물혔구나
龍의머리 다치겠다
조심해서 다져주소
에라 지경이다
어허라 지경이요
삼세로다 서방인데
두꺼비한쌍 물혔구나
두꺼비머리 다치겠다
조심조심 다져주소
에라 지경이다
어허라 지경이요
사세로다 북방인데
쪽제비한쌍 물혔구나

쪽제비머리 다치겠다
 가만가만 다져주소
 에라 지경이다
 어허라 지경이요
 오세로다 중앙인데
 백호한쌍 문혔구나
 범의머리 다치겠다
 조심해서 다져주소
 에라 지경이다
 어허라 지경이요
 이때에 帝釋님네
 나무가 있어야 집을 짓지
 앞으로 보아도 열두바다
 뒤로 보아도 열두바다
 二十四江 건너서서
 名山大川 들어간후
 上樑木을 고르는데
 한나무를 잡고보니
 만물짐승 똥을누워
 不淨땀다 마다하고
 또한나무 잡고보니
 길은 말짱 하다마는
 속은 텅텅 비었구나
 속절없다 아니되고
 또한나무 잡고보니

靑龍白虎 뒤흠어져
 不淨땀다 마다하고
 또한나무 잡고보니
 임금王字 뚜렷하고
 山川明氣 들었구나
 금도끼로 찍어다가
 은자귀로 다듬어서
 유엽선 배에 실어
 명주바람 세솔풍에
 와지끈 똑딱 건너서서
 이明堂에 當到하여
 만년굴피 기와로다
 무쇠기둥 구리쇠중방에
 고대광실 높은집을
 텅그라니 지어놓고
 네귀에다 풍경을 달았으니
 구리쇠기둥이 썩어지랴
 무쇠기둥이 닳아지랴
 東南風이 년깃불면
 텅그렁텅 풍경을려
 山川明氣 들었구나
 (以下 省略)

◎ 明堂經

어화天地 開創後에
萬物이 自生할 때
崑崙山 一枝脈이
朝鮮國이 생겼구나
錦繡江山 어디 멘고
朝鮮國이 分明한데
十勝奇地 없을손가
十勝奇地 찾으려고
別有天地 찾아들어
前後左右 살펴보니
明堂奇地 여기로다
八道地官 불러들여
양손에 쇠를쥐고
後園堂山 높이올라
前後左右 살펴보니
明堂임이 分明구나
東便을 바라보니
各向子方 帝未己는
三八木을 應하여서
子孫峰이 비쳤으니
膝下子孫 萬歲榮이오
南便을 바라보니
丑方의 癸亥寅
二七火를 應하여서

文筆峰이 비쳤으니
 文章才士 날컷이요
 西便을 굽어보니
 寅方の 甲乙庚
 四九金을 應하여서
 財物峰이 비쳤으니
 億萬長者 날컷이요
 北便을 굽어보니
 卯方の 丙丁辰은
 一六水를 應하여서
 長壽峰이 비쳤으니
 白髮堂上 모실터요
 中央을 굽어보니
 辰方の 戊戌己는
 五十土를 應하여서
 日月峰이 비쳤으니
 今北家中 一門眷屬
 해와같이 밝히시고
 달과같이 밝히시어
 安過泰平 하올테니
 이런明堂 또있겠나
 (中略)
 三太六星 分명한곳
 역력히 가려내어
 東西南北 역군불러

三綱五倫 터를 닦고
 崑崙山에 玉을 깨어
 萬年柱礎 묻어놓고
 蓬萊山의 술을 배어
 下龍落鳩 上樑하고
 八卦連木 걸어놓고
 六十四卦 기와 얹고
 二十四方 외를 엮어
 五行水土를 발라놓고
 仁義禮智로 장판하고
 人蔘으로 구들놓고
 원형이전 도배하고
 要地日月 반자눌러
 順智乾坤 단청한후
 高台黃室 높은집에
 白子千孫 탄생할때
 아들아기 낳으며는
 孝子忠臣 생겨나고
 딸아기를 낳으며는
 孝婦烈女 태어나서
 金枝玉葉 貴한子孫
 日就月將 자라날때
 花朝月夕 좋은時節
 웃음으로 연화하고
 梅鳳佳節 좋을때는

춤으로다 맞이할 때
 梧桐販板 거문고는
 太平歌를 노래하니
 堂上白髮 늙은父母
 春秋精誠 하시올때
 堂上白髮은 千年壽요
 膝下子孫은 萬歲榮이라

(中略)

綠陰芳草 盛夏時는
 萬物倉陽 夏節이니
 膝下子孫 어린아기들
 芳草같이 자라나고
 東園桃梨 片時春은
 萬物始生 春節이니
 堂上白髮 늙은父母
 壽命長壽 하옵시고
 韓國枌楓 가을절은
 萬物成實 秋節이니
 東西南北 虛空中天
 가득가득 쌓인財物
 落葉같이 쏟아지고
 白雪紛紛 銀世界는
 萬物閉場 冬節이니
 金銀玉白 좋은財物
 前後左右 쌓아두고

泰平盛代 사실적에
 一日平均 열두時間은
 맘과 뜻대로 되어가고
 한달그믐 三十日은
 더잘되게 지나가고
 一年 三百六十五日은
 太平時節 보내시면
 明堂덕택 아니실까
 天皇大地 壽命長壽
 壽命長壽 빌어다가
 이明堂에 點指하고
 地皇大地 萬福地요
 萬福地도 빌어다가
 이明堂에 點指하고
 人皇大地 淨福水
 淨福水도 빌어다가
 이明堂에 點指하고
 東方木星 安心地
 平安安字 빌어다가
 이明堂에 點指하고
 南方火星은 熱火地요
 熱火地도 빌어다가
 이明堂에 點指하고
 西方金星은 富貴地
 富貴地도 빌어다가

이明堂에 點指하고

北方水星 露永地

露永지도 빌어다가

이明堂에 點指하고

中央土星 莊嚴地

莊嚴지도 빌어다가

이明堂에 點指하고

(中略)

靑龍白虎는 天財物

玄武朱雀은 地財物

明堂奇地는 富貴地

회리천행 惡退殺

여시여시 우여시

만세만세 수만세

수만세를 빌어다가

이明堂에 點指할때

千里明氣 쓸어트리고

萬里明氣 끌어들여

東西南北 흐르는 財物

이明堂에 點指할때

쓰고남게 點指하고

먹고남게 點指하고

安過泰平 시킬차로

다각기 明堂으로

춘위안정 하옵소서

◎ 祖 上 經

(前略)

왕상의 禮를 받고
맹종의 本을 받아
天下不孝 먼케하자더니
죽어지니 限일런가
夫婦離別 웬일이며
父母離別 웬일인가
남부여중 한연후에
南田北畚 마련하고
알뜰이도 모은세간
오순도순 살자더니
못다살아 圓일런가
二八青春 少年時節
남남끼리 서로 만나
生男生女 한연후에
人間재미 보자더니
흔한재미 못다보고
人間離別 원이됐나
四柱舟字 往來하며
百年往約 맺자더니
夫婦離別 圓일런가
南田北畚 農事지어
五穀白果 쌓아놓고

재미롭게	사자더니
못다살아	원이됐나
잠농채엽	양잠치고
秋夜長天	길쌈하여
순모갑사	중비단을
창고안에	가득쌓고
못다입어	원일런가
분벽사창	좋은방에
면경체경	대경이며
자개농에	반다지며
셋별같은	요강대야
저만치에	펼쳐놓고
원앙금침	자수베개
나는듯이	펼쳐놓고
夫婦和樂	사자더니
獨守空房	원일런가
(中略)	
明沙十里	해당화에
꽃진다고	설워마라
明年三月	돌아오면
꽃은다시	피련마는
人生 한번	죽어지면
움이나나	씩이돈나
이제가면	못을人生
불쌍하다	이내신세

父母同氣 좋다해도
 이 내길을 대신가며
 一家親戚 많다해도
 이 내몸을 대신할까
 친구벗이 좋다기로
 내 대신에 등장가며
 내외간이 一身이나
 이 내목숨 대신할까
 가련하고 불쌍하다
 만단설화 못다하고
 저승사자 재촉하네
 일직사자 등을밀고
 월직사자 손을끌며
 성화같이 재촉하니
 혼비백산 나죽겠네
 초로같은 이내몸이
 부초같이 살아지니
 칠성판에 올려놓고
 일곱마디 질끈묶어
 소우망산 댕틀위에
 텅그라니 올려놓고
 명정공포 앞세우고
 북망산천 가자하니
 어찌갈꼬 어찌갈꼬
 멀고먼 황천길을

路資없이 가자하니
 千金萬財 모은財産
 먹고가나 지고가나
 청산에다 집을짓고
 松竹으로 울을삼아
 백양으로 정자삼아
 구름안개 깊은곳에
 열손길을 옆에놓고
 자는듯이 누웠으니
 한줌안의 티끌이라
 (以下省略)

앞에서 보인 여러가지 巫歌(巫經)의 辭說을 보면 俗謡의 農謡, 地硬謡, 달고질소리, 行輿歌, 告祝唱의 辭說과 같다. 이 經文의 辭說이 体系的인 것은 民謡와 마찬가지로 專門化된 巫覡에 의해서 口誦되고 있으며 俗謡의 辭說은 그때 그때 技藝人의 力倆에 의해서 表現되기 때문이며 구태여 專門的인 巫覡과 같이 体系的인 辭說을 必要로 하지않고 있으며 必要한 적당한 語句를 使用하기 때문이다.

行輿歌(1)

♩. = 60.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위마라
 (에헤에 에헤에야
 어하님차 에헤야)
 명년삼월 돌아오면
 꽃은다시 피련마는
 (에헤에 에헤에야
 어하님차 에헤야)
 우리같은 초로인생
 다시올길 전혀없네
 (에헤에 에헤에야
 어하님차 에헤야)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밖이 저승일세
(에헤에 에헤에야
어하넘차 에헤야)
북망산이 멀다더니
바라보니 북망이요
(에헤에 에헤에야
어하넘차 에헤야)
여보시오 벗님네야
나는가오 나는가오
(에헤에 에헤에야
어하넘차 에헤야)
부모형제 좋다한들
어느누가 대신가며
(에헤에 에헤에야
어하넘차 에헤야)
일가친척 많다한들
어느누가 동행할까
(에헤에 에헤에야
어하넘차 에헤야)
한번가면 못올길을
나는가네 나는가네
(에헤에 에헤에야
어하넘차 에헤야)
병풍안에 그린답이
훼를치면 다시올까

(에헤에 에헤에야
 어하넘차 에헤야)
 가마솔에 삶은개가
 어커컹컹 짓으며는 오시려나
 (에헤에 에헤에야
 어하넘차 에헤야)
 어찌갈꼬 어찌갈꼬
 북망산천 머나먼길
 (에헤에 에헤에야
 어하넘차 에헤야)
 이제가면 못올길을
 처자권속 다버리고
 (에헤에 에헤에야
 어하넘차 에헤야)
 나는가오 나는가오
 (에헤에 에헤에야
 어하넘차 에헤야)

(解説) 上記의 行輿歌는 원완길(男, 78歲, 조치원읍 상동리 14번지)의 歌唱을 採録한 것으로써 燕岐地方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旋律과 辭說이다. 歌唱者는 지금은 高齡으로 제대로 歌唱을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행여의 향두꾼(선소리꾼)으로 歌唱을 했다고도 한다.

◎ 行輿歌(2)

♩. = 60.

<대관> 어하리-님-차 어허야 <행역> 어하리-님-차 어허야
 어보-시-로 천-주-님-네
 나-는-가-로- 나-는-가-로
 우-리-같은- 죄-인-들
 한-번- 아-자 죽-어-자-면
 가-시-로-가- 이-땅-주-나

人間으로 태어날 때
 (어하리님차 어허야)
 아버님의 뼈를빌고
 (어하리님차 어허야)
 어머니의 살을빌어
 (어하리님차 어허야)
 이세상에 태인이몸
 (어하리님차 어허야)
 한두살에 철을몰라
 (어하리님차 어허야)

부모은공 못다갠고
(어하리넘차 어허야)
이삼십에 당도하여
(어하리넘차 어허야)
불효노릇 면차더니
(어하리넘차 어허야)
어찌하오 어찌하오
(어하리넘차 어허야)
불효자를 못면하니
(어하리넘차 어허야)
하루만에 병이들어
(어하리넘차 어허야)
처자이별 하는구나
(어하리넘차 어허야)
어느누가 동행할까
(어하리넘차 어허야)
어느누가 대신갈까
(어하리넘차 어허야)
북망산천 돌아갈 때
(어하리넘차 어허야)
일직사자 손을끌고
(어하리넘차 어허야)
월직사자 등을밀어
(어하리넘차 어허야)
어서가자 재촉하니

(어하리넘차 어허야)

피할길이 전혀없네

(어하리넘차 어허야)

여보시오 벗님네야

(어하리넘차 어허야)

언제다시 만나려나

(어하리넘차 어허야)

꽃이피면 만나려나

(어하리넘차 어허야)

개가짖어 만나려나

(어하리넘차 어허야)

다시올길 전혀없네

(어하리넘차 어허야)

(解説) 김인동 (男, 62歲,)의 歌唱을 採錄한 이 行輿歌는 辭說이 (후렴) 뒤바뀐 形態로 나타나는 特異한 面을 보이고 있다. 대개의 行輿歌의 辭說은 “에헤야 에헤에야 어하넘차 에헤야”로 되어 있으나 이 行輿歌의 發음소리는 앞부분이 省略된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地方의 俗謠의 特徵을 보면 先. 後唱의 區別이 있는 노래는 先唱者의 메김소리에 따라서 後唱이 받아지기 때문에 先唱者의 技藝力에 따라서 다르게 變化하는 것이며 같은 地域에서도 發음소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上記의 노래는 한 소절씩으로 되어 있으며 忠淸南道에서는 보기힘든 行輿歌의 하나이다.

◎ 行輿歌(3)

♩. = 54 ~

<어귀> 오호오 오호오 아 여여여 오호오아
 <발음> 오호오 오호오 아 여여여 오호오아
 <어귀> 이따가행-행하-하 다사-오기 여행-구나
 <발음> 오호오 오호오 아 여여여 오호오아
 <어귀> 북망산여-멀다-머 나 대웅-뫼-이 북망산-오
 <발음> 오호오 오호오 아 여여여 오호오아

저승길도 멀다하니
 대문밖의 저승일세
 (오호오 오호오아
 에헤에 오호오아)
 해당화야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마라
 (오호오 오호오아
 에헤에 오호오아)
 명년삼월 봄이되면
 너는다시 피련마는

(오호오 오호오아
 에헤에 오호오아)
 한번아차 죽어진몸
 다시오기 어렵구나
 (오호오 오호오아
 에헤에 오호오아)
 부모형제 있다해도
 어느누가 대신갈까
 (오호오 오호오아
 에헤에 오호오아)
 친구들이 모였어도
 생전친구 그뿐인가
 (오호오 오호오아
 에헤에 오호오아)
 앞선사자 잡아끌고
 뒷선사자 등때리니
 (오호오 오호오아
 에헤에 오호오아)
 애고애고 나죽겠소
 쉬었다가 다시가오
 (오호오 오호오아
 에헤에 오호오아)
 간다간다 나는간다
 저승길로 나는간다
 (오호오 오호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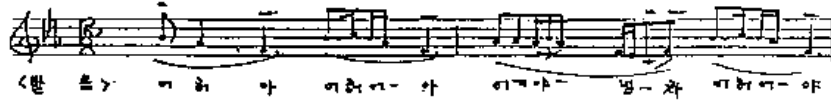
에헤에 오호오아)
 부모형제 이별하고
 북망산으로 나는간다
 (오호오 오호오아
 에헤에 오호오아)

(解 說) 上記의 行輿歌는 오정근 (男, 51歲, 金南면 대평리)의
 歌唱을 採錄한 것으로써 忠南의 全域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소리로써 歌唱者도 行輿歌의 뒷소리를 받으면서 潛定的인 記憶속
 에 있던 것을 表現했기 때문에 旋律이나 辭說이 매끄럽지 못한 것
 을 알 수 있다.

◎ 行輿歌(4)

♩ = 54

<머 3> 간 다 간 다 - 부 두 - 는 - 나 리 는 - 관 - 로 - 나 는 - 간 다
 <볼 2> 에 히 아 에 히 아 - 가 에 히 아 - 님 - 주 에 히 아 - 아
 <머 3> 관 번 가 - 주 - 관 에 - 자 만 다 사 - 모 기 가 - 에 히 아 - 아
 <볼 2> 에 히 아 에 히 아 - 가 에 히 아 - 님 - 주 에 히 아 - 아
 <머 3> 명 수 승 리 - 관 에 - 관 - 아 물 각 가 - 고 - 설 후 - 아 라



明年三月 봄이오면
 너는다시 피련마는
 (어허아 어허어아
 어기야넴차 어허아)
 한번아차 죽어지면
 다시오기 어렵구나
 (어허아 어허어아
 어기야넴차 어허아)
 여보시오 벗님네야
 언제다시 만나려나
 (어허아 어허어아
 어기야넴차 어허아)
 이세상에 태어날때
 뉘공으로 나왔던가
 (어허아 어허어아
 어기야넴차 어허아)
 아버님의 뼈를빌고
 어머님전 살을빌어
 (어허아 어허어아
 어기야넴차 어허아)
 석가세존 공덕으로

이세상에 태어날때
 (어허아 어허어아
 어기야넘차 어허아)
 칠성님은 명을주고
 제석님전 복을받아
 (어허아 어허어아
 어기야넘차 어허아)
 세상천지 만물중에
 첫째되기 인간인데
 (오허아 오허어아
 어기야넘차 오허아)
 한두살에 철을몰라
 부모은공 못다갸고
 (오허아 오허어아
 어기야넘차 오허아)
 이삼십을 당도해도
 부모은공 못다갸고
 (오허아 오허어아
 어기야넘차 오허아)
 이팔청춘 젊은몸이
 어느세월 백발되어
 (오허아 오허어아
 어기야넘차 오허아)
 아침나절 성튼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오허아 오허어아
 어기야넙차 오허아)
 부르노니 어머니요
 찾는것은 냉수로다
 (오허아 오허어아
 어기야넙차 오허아)
 상탕에서 마지깃고
 중탕에가 목욕하고
 (오허아 오허어아
 어기야넙차 오허아)
 하탕에가 좃불켜고
 산신님전 공들인들
 (오허아 오허어아
 어기야넙차 오허아)
 한번병든 이내몸이
 기사회생 어렵구나
 (오허아 오허어아
 어기야넙차 오허아)
 무당불러 곱을한들
 곱덕이나 입을소냐
 (오허아 오허어아
 어기야넙차 오허아)
 판수불러 경읽은들
 경덕이라 입을소냐
 (오허아 오허어아

어기야넘차 오허아)
눈이컴컴 침침터니
저승사자 오는구나
(오허아 오허어아
어기야넘차 오허아)
적삼벗어 초흔하고
사자상을 마련하니
(오허아 오허어아
어기야넘차 오허아)
일직사자 앞에서고
월직사자 뒤에서서
(오허아 오허어아
어기야넘차 어허아)
어서가자 재촉하니
아니가진 못하리라
(오허아 오허어아
어기야넘차 어허아)
간다간다 나는간다
북망산으로 나는간다
(오허아 오허어아
어기야넘차 어허아)

◎ 잣은 行輿歌



〈解説〉上記의 行輿歌(4)와 잣은行輿歌는 燕岐의 俗謡를 調査하던 中에 오봉산 기슭에서 만난 行輿를 따라가며 採録한 것이다. 先唱者는 알 수 없으나 周圍 사람들의 말로는 專門的인 선소리꾼으로 鳥致院 邑內에 居住한다고 한다. 最近에 들어서 葬儀 점에서 소리꾼을 고용해 請해오면 보내준다고 한다.

過去の 地方에 散在한 俗謡는 專門的인 소리꾼이 아니고 才能에 의해서 洞里마다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말아서 했으나 요즘에는 俗謡의 淘汰와 技藝人의 消滅로 인해서 專門家를 請해서 선소리를 부탁한다. 上記 行輿歌의 歌唱者는 매우 기교가 뛰어나고 旋律이나 辭說이 整理가 되어 있으며 行輿를 빠른 時間內에 운구하기 위한 잣은상여소리를 하고 있어 연기군에서는 보기 어려운 形態이다. 上記의 歌唱者는 한때 鳥致院邑에서 行輿소리를 말아하던 송백천 (忠北 淸原郡 江外面 중봉리居住, 三年前 작고)와 함께 다니면서 배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忠北 淸原郡 江外面에 居住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치원읍은 미호천을 경계로 해서 忠北과 接해있기 때문에 이 地域의 俗謡

는 忠北 西部와 同一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 上記의 行輿歌가 旋律의 흐름이 變化가 심한 理由는 現場에서 歌唱됐기 때문이다. 俗謠는 現場性이 강한 소리이기 때문에 現場에서 나타나는 소리는 生命力이 있기 때문이다.

◎ 달고질 소리(1)

$\text{♩} = 68 \sim$

<곡> 에 제 달 - 고 <말음> 에 제 달 - 고
 만 더 수 잘 들기 - 들 거
 가 개 흥 - 수 잘 볼기 - 들 거
 이터 - 전을 - 바리 - 짝 마
 팔도 지 원 복수 - 들 리
 영남 - 태 - 전 잠산 - 구 나

이터전의 내력바라
 (에헤 달고)
 곤륜산 일지맥이
 (에헤 달고)

이땅에 똑 떨어져
(에헤 달고)
대한국이 생겼구나
(에헤 달고)
산지종은 곤륜이요
(에헤 달고)
수지종은 황하수요
(에헤 달고)
이 명당을 마련할때
(에헤 달고)
노인봉이 밝았구나
(에헤 달고)
당상노인 모시겠소
(에헤 달고)
자손봉도 밝았구나
(에헤 달고)
자손창성 하겠구나
(에헤 달고)
열녀봉도 비쳤으니
(에헤 달고)
열녀춘향 나겠구나
(에헤 달고)
고관봉도 우뚝하니
(에헤 달고)
정승관서 나겠구나
(에헤 달고)
재물봉도 뚜렷하다

(에헤 달고)
 만석거부 되겠구나
 (에헤 달고)
 여보시오 달고꾼들
 (에헤 달고)
 달고질을 하실때에
 (에헤 달고)
 목소리를 함하여서
 (에헤 달고)
 기운차게 하시며는
 (에헤 달고)
 먼데 사람은 듣기 좋고
 (에헤 달고)
 가까운 사람 보기 좋아
 (에헤 달고)
 이 명당 이 터전에
 (에헤 달고)
 부귀영화 누리리다
 (에헤 달고)

(解 說) 上記의 달고질소리는 김태규(男, 74歲, 조치원읍 정동)의
 歌唱을 採錄한 것으로써 辭說은 体系的인 整理가 되어 있으나
 旋律은 간단하게 나타나고 있다. 地方의 俗謠를 보면 辭說은 거
 의 同一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旋律에서 歌唱者의 技藝力을 알 수
 있으며 그런점에서 地方에서 發刊되는 民謠 俗謠集은 반드시 歌

唱을 할 수 있는 樂譜가 함께 整理되어야 하며 이 俗謠集은 口碑文學的인 面 보다는 地方의 삶의 소리를 保存하는 民俗音樂的인 면에서 우선이기 때문에 그 辭說 또한 바로 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 달고질 소리 (2)

곤륜산 일지맥이
 이땅위에 떨어져서
 (에헤여 달고)
 이나라가 생겼으니
 해동은 조선이라

(에 헤여 달고)
 威慶道라 第一山은
 白頭山이 主峰이요
 (에 헤여 달고)
 그山脈이 떨어져서
 平安道라 돌아들어
 (에 헤여 달고)
 妙香山이 主峰이니
 근들아니 明堂일까
 (에 헤여 달고)
 그山脈이 落脈하여
 江原道는 金剛山이요
 (에 헤여 달고)
 그山脈이 落脈하여
 京畿道는 三角山이라
 (에 헤여 달고)
 南鮮으로 내려가니
 어느곳이 名山인가
 (에 헤야 달고)
 全羅道라 접어들어
 智異山이 主峰이라
 (에 헤야 달고)
 그山脈이 떨어져서
 어디간줄 몰랐더니
 (에 헤야 달고)

忠淸道로 돌아들어
 鷄龍山이 솟았구나
 (에 헤야 달고)
 鷄龍山이 落脈하여
 忠淸南道 燕岐郡에
 (에 헤야 달고)
 오봉산이 솟았으니
 그아니도 名山인가
 (에 헤야 달고)
 이터전 이明堂에
 ○氏산소 마련하니
 (에 헤야 달고)
 子孫萬堂 할것ियो
 壽命長壽 할것이니
 (에 헤야 달고)
 이明堂 이터전이
 天下第一이 아니던가
 (에 헤야 달고)

(解説) 上記의 달구질소리는 前記한 行輿歌(4)와 같은 歌唱者가 부른 것으로 專門的인 소리꾼이 부른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 現場에서 회답이를 하기 위하여 歌唱을 한 것이므로 旋律이 自然스럽게 구사되고 있는 점도 特異하다.

韓國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種類의 俗謠는 現場에서 必要에 의해서 歌唱될 때 그 旋律이나 辭說이 自然스럽게 表現되는 것이며

傳受도 現場에서 可能한 것이기에 現場이 살아진 요즈음에는 그 廣大한 分量의 俗謠의 整理, 保存이 時急하다. 上記의 달고질소리도 선소리는 두소절이고 받는소리는 한소절로 나타나고 있음은 그만큼 선소리꾼이 力倆이 있는 技藝人이기 때문에 많은 辭說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其他

앞서 紹介한 農謠, 婦女謠, 儀式謠 外에도 많은 俗謠가 있어 그 地方에서 살고 있는 住民들의 가슴속에 있는 言語를 音律로 表現했다.

이러한 많은 노래는 現場에서 再創出되고 消滅되는 反復過程을 거치면서 긴 時間동안 전해졌으며 이러한 속에서 周圍環境의 影響을 받고 技藝人에 따라서 辭說과 旋律이 特徵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많은 노래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아 完全淘 될 위기에 처해있어 發屈, 整理가 時急한 實情이다.

내 祖上들의 精神의 表現이고 이 民族의 삶의 現場의 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어찌보면 우리 스스로가 韓國人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도 모르겠다.

앞의 俗謠 外에도 整理가 되어 할 것은 婦女謠의 一種인 자장가와 弄戲謠,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作業에서 나타나는 地硬謠 등이 있다. 燕岐郡에서 調査된 자장가와 弄戲謠(애 어르는 소리) 後硬謠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 자 장 가 (1)



부모에겐 효자동이
 형제간에 우애동이
 일가친척 화목동이
 동네간에 보배동이
 잘자거리 잘자거라
 우리아기 잘자거라
 금이되면 한말이요
 은이되면 두말인데
 우리아기 착한아기
 잘도잔다 착한아기

◎ 자 장 가 (2)



우리아기 착한아기
 보배동이 귀염동이
 멍멍개야 짚지마라
 꼬꼬닭아 울지마라
 우리아기 잠깨올라
 짚지마라 울지마라
 우리아기 착한아기
 잘도잔다 잘도잔다
 저기가는 저기러기
 우리아기 태워주렴
 저기가는 저나비야
 우리아기 함께놀렴
 자장자장 잘도잔다
 금자동아 옥자동아
 착한아기 우리아기

나라님겐 충신동이
 부모님겐 효자동이
 형제간에 우애동이
 동네마다 귀염동이
 우리아기 잘도잔다

◎ 弄戲謠(1)

♩ = 80.
 강살 강살 - 강살 - 도령 - 강살 새들 - 열에 끼고 -
 서양에 풀 - 누굴 - 머니 - 한모 들어 - 뽕밭 - 터니 -
 강서 - 뽕네 - 새아 새가 - 버들 남강 - 앞메 - 뽕고 -

배짜기를 하드란다
 여보시오 새아가씨
 그베짜서 뭐할라오
 도령님네 웃지으려
 이베를다 짜가지고
 도령님네 웃지을때
 무명으로 바지깃고
 삼베랑은 저고리지어

강실도령 호사시켜
서방님을 삼을라오

◎ 弄戲謠(2)



머리빠진 새앙쥐가
들락날락 다까먹고
밤한톨이 남았구나
밤한톨을 삶아다가
껍질일랑 곱게까서
겉껍질은 오빠주고
속껍질은 누나주고
알맹이는 네가먹고
알맹이는 내가먹고
너와함께 나뉘먹자
달강달강 우리아가

◎ 弄戲謠(3)

명기명기 평산아
 날라가는 학산아
 포대기속 귀염아
 쌀한섬을 들고보니
 우리애기 반만되고
 콩한섬을 달고보니
 우리애기 동감낼세

<解説>上記의 자장가와 弄戲謠는 燕岐郡 烏致院邑에 所在한 郡 老人會館에서 김씨 (女, 69歲, 연기군 조치원읍)할머니 外 10여명을 모시고 돌러가며 한마디씩 부르는 것을 採録한 것이다.

앞의 旋律에서 나타나듯 旋律의 變化가 거의 없이 單調로운 音律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아이들을 재우거나 어르기 위해서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기교가 必要없으며 더욱 婦女謠의 경우에는 거의 歌唱者에 따른 特徵이 없다는 점이다.

本 筆자가 忠南을 調査하던 中에 大德에서 採録된 자장가는 忠淸道의 地域的 特徵이 나타나고 있어 참고삼아 紹介 한다.



열미품에 동자자듯
 동정호에 바람자듯
 추녀아래 제비자듯
 우리애기가 잘도잔다

논다논다 잘도논다
 우리애기가 잘도논다
 상투끝에 큰애놀듯
 백화화단에 나비놀듯
 동정호에 붕어놀듯
 외그네에 춘향놀듯
 허공중천 연이놀듯
 우리아가가 잘도논다

◎ 地硬謠 (1)

♩. = 68~

<머개> 일 렬-렬 지-침이-고 <발음> 일 렬-렬 자-침이-요

들깃 다 가 - 쿨하 니 흥-고

여기 도 꽃-고 저기도 꽃-서



여보시오 역군님네
 (얼렷렷 지점이요)
 이내말씀 들어보소
 (얼렷렷 지점이요)
 이한터전 마련하여
 (얼렷렷 지점이요)
 명당발원 소원하니
 (얼렷렷 지점이요)
 이터에다 집지은후
 (얼렷렷 지점이요)
 아들애기 낳으며는
 (얼렷렷 지점이요)
 효자여 충신아닌가
 (얼렷렷 지점이요)
 딸아기를 낳으며는
 (얼렷렷 지점이요)
 열녀에다 효부라니
 (얼렷렷 지점이요)

그아니도 좋을손가
 (얼릴릴 지점이요)
 지경맞는 역군님네
 (얼릴릴 지점이요)
 들었다 놓아 다져주고
 (얼릴릴 지점이요)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아
 (얼릴릴 지점이요)
 명당터전 이룩하여
 (얼릴릴 지점이요)
 부귀영화 발원하세
 (얼릴릴 지점이요)

< 解説 > 上記의 地硬謠는 홍덕표 (男, 47歲, 조치원을 정동)의
 歌唱을 採録한 것으로써 이 地硬謠는 집을 짓기 위해 必然
 的으로 나타나는 소리로써 10여년 전까지도 쉽게 接할 수 있
 었던 소리이다. 하기에 가장 기억하는 이가 많은 소리이면서도
 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旋律의 구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 地硬謠(2)





이明堂이 되었구나
 (에이어라 지경이요)
 이明堂을 다져줄때
 (에이어라 지경이요)
 東方을 바라보니
 (에이어라 지경이요)
 靑龍한쌍 문혔구나
 (에이어라 지경이요)
 청룡머리 다치겠다
 (에이어라 지경이요)
 가만가만 다져주소
 (에이어라 지경이요)
 남방을 바라보니
 (에이어라 지경이요)

주작한쌍 묻혔으니
(에이어라 지경이요)
주작머리 다치겠다
(에이어라 지경이요)
가만가만 다져주소
(에이어라 지경이요)
서방을 바라보니
(에이어라 지경이요)
백호한쌍 묻혔구나
(에이어라 지경이요)
백호머리 다치겠다
(에이어라 지경이요)
가만가만 다져주소
(에이어라 지경이요)
북방을 올려보니
(에이어라 지경이요)
玄武한쌍 묻혔구나
(에이어라 지경이요)
현무척추 다칠쎄라
(에이어라 지경이요)
가만가만 다져주소
(에이어라 지경이요)
중앙을 살펴보니
(에이어라 지경이요)

등사한쌍 문혔구나
 (에이어라 지경이요)
 등사허리 다치겠다
 (에이어라 지경이요)
 가만가만 다져주소
 (에이어라 지경이요)
 아랫동네 역군님네
 (에이어라 지경이요)
 윗동네 역군들아
 (에이어라 지경이요)
 가만가만 다져주소
 (에이어라 지경이요)

< 解説 > 上記의 地硬謠를 歌唱한 김순례(女, 62歲, 전의면)는 專門的인 女巫로써 一般的인 歌唱者보다 辭說이나 旋律이 整理가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專門的인 巫覡이 歌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地方의 俗謠는 그 地方에서 나타나는 巫經과 密接한 關係를 맺기 때문이며 이 地硬謠가 巫經의 하나인 帝釋經에서 口誦되기 때문이다.

三. 맺는글

흔히 民俗의 特徵을 이야기할 때 “百里不同風”이란 表現을 합니다. 그만큼 民俗은 地域나름의 特異한 形態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燕岐地方의 現地를 다니며 踏査를 하면서 우리는 이 地域만의 獨特한 民俗인 강다리거나 대곡리장승제 등 貴重한 資料가 많이 散在해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 고장의 無形의 民俗인 놀이나 俗謠 등은 이 곳에서 삶을 영위하다가 스러져간 수 많은 先人들의 限뻘힌 소리로 또는 興에 넘치는, 한 長短의 춤이나 旋律로 表現되었던 것으로 우리 모두의 大同의 集合的인 母體가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傳承民俗을 舊時代의 낡은 習俗으로 도외시한 채 西歐文化만이 진정한 것인양 착각하여 文化植民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낮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고장의 傳承民俗은 傳門家들의 것이 아니고 이 고장에서 뿌리를 박고 삶을 영위하는 모든이의 것입니다. 그것은 남이 保存할 수도 없고 남이 傳授시킬 수도 없는 이 地域民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忠淸南北道와 京畿道의 特徵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이 고장의 民俗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이 地域의 精神的인 支柱로써 이 地域을 오늘날까지 있게한 根本인 것입니다.

술한 歲月 속에서도 지켜 온 이 고장의 習俗인 傳承民俗이 오늘 이 時代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손에서 淘汰하고 滅失된

다고 하면 그 責任은 우리 모두가 져야 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 後孫들에게 地탄을 받을 것입니다.

긴 歷史 속에서 우리와 함께 呼吸하며 傳해진 이 땅의 精神的인 脈은 그러한 理由에서 더 지켜져야 할 것이며 燕岐人만의 責任입니다.

진정한 燕岐人이요 文化國民으로서의 긍지는 내것을 지키고 傳承시키기에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988年 12月

編著者 河 周 成

編著者略歷

- 1949年 서울생
- 국립국악원 연구원
-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연예사
- 경주시립국악원강사
- 성장물산상무
- 광주군지집필위원등



編著書

- 利川의 民俗 - 거북놀이 (1985年 : 利川文化院)
- 내고장 民俗 (1987年 : 龍仁文化院)
- 安城南寺黨 風物놀이 (1987年 : 錦山文化院)
- 錦山の 民俗 (1987年 : 錦山文化院)
- 錦山の 土俗信仰 (1987年 : 錦山 郷土文化研究院)
- 한밭의 옛노래 (1987年 : 大田文化院)
- 天安의 옛노래 (1988年 : 天安文化院)
- 南寺黨 風物놀이 圖譜 (1988年 : 安城郡)
- 한밭의 마을굿 (1988年 : 大田文化院)
- 錦山の 農謠 (1988年 : 錦山文化院)
- 態津의 옛노래 (1988年 : 公州文化院)
- 唐나루의 脈落 - 巫俗 (1988年 : 唐津文化院) 等

參考文獻

- 三國志. 三國遺事. 三國史記. 朝鮮實錄
- 燕岐郡誌. 忠清南道誌. 京畿道誌.
- 文藝總覽. 文藝年表. 大田市誌. 等
- 梁柱東 : 古歌研究
- 張師勛 : 韓國音樂史
- 李惠求 : 三國時代의 音樂
- 成慶麟 : 韓國傳統舞蹈
- 成樂緒 : 朝鮮音樂史(未刊)
- 李柱鉉 : 韓國의 假面劇
- 沈雨晟 : 韓國의 民俗놀이
- 河周成 : 한말의 옛노래. 내고장 民俗等
- 文化院刊 鄉土誌

本 圖書는 韓國文化藝術振興院으로부터 出版費
一部를 支援 받아 發刊되었습니다.

鄉土史料

1988年 12月 10日 印刷

1988年 12月 20日 發行

역은이 : 河 周 成

發行處 : 鳥致院文化院

發行人 : 二 基 鳳

印刷處 : 合 同 印 刷 社

조치원읍 신흥1동 94

☎ 2-6880

非賣品

